

발 간 등 록 번 호

11-B552745-000025-10

ISSN 2799-8061

이 연구결과는 「2021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음

[2021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연구기관/ (주) 에스에이컨설팅

2022. 11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윤지성((주)에스에이컨설팅 대표)

참여연구자 : 송민주((주)에스에이컨설팅 연구원)

이선웅((주)에스에이컨설팅 연구원)

제 출 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수탁연구과제 『2021 사회적기업 성과 분석』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11

(주)에스에이컨설팅

대표 윤 지 성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방향	1
제2절 주요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년 4월 제출)	2
제3절 연구구성	5
제2장 주요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기업 현황	6
제1절 주요 사회적경제조직과 정부지원정책	6
제2절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	13
1. 사회적기업의 분포	13
2. 사회적기업 지원금	16
제3장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분석	35
제1절 취약계층의 고용	35
1.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36
2.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임금 및 근로시간	42
제2절 사회서비스제공	49
제3절 사회적기업 의사결정구조	73
제4절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80
제4장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86
제1절 재정성과 : 수입구조 분석	86
1. 매출액	86

2. 영업이익(손실)	104
3. 당기순이익(손실)	112
제2절 지출: 비용구조 분석	126
1. 매출원가	126
2. 판매비 및 관리비(경비 포함)	131
3. 영업외비용	136
4. 노무비	141
제3절 기타 성과지표	151
1. 노동생산성	151
2. 일반인 근로자 고용효과	154
 제5장 요약 및 결과해석	 170
 부록 상대적 성과 비교 분석	 174
제1절 사회적 및 경제적 성과 비교 분석	174
1.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비교	174
2. 수입구조: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비교	176
3. 수입구조: 영업이익 및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177
4. 수입구조: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순이익 비교	178
5. 비용구조: 매출원가 및 매출원가대매출액의 비교	178
6. 비용구조: 판매비 및 관리비, 영업외비용 비교	179
 참고문헌	 180

표 목 차

<표 1-1> 2021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연구보고서의 구성	5
<표 2-1> 우리나라 주요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및 유형	7
<표 2-2> 2021년 사회적기업 정부지원	8
<표 2-3> 재정지원 사업별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9
<표 2-4> 사회적기업 주요 금융지원 세부내용	10
<표 2-5>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2021년)	10
<표 2-6> 코로나19 사회적경제기업 주요 지원 정책(2021년)	12
<표 2-7>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수	14
<표 2-8>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의 수	15
<표 2-9>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20
<표 2-10> 지역별 지원금	22
<표 2-1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지원금 평균, 중위값 및 기업 수	24
<표 2-12>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지원금 비율	27
<표 2-13>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지원금	28
<표 부가분석 2-1> 지원금 총액 분석	31
<표 부가분석 2-2> 지원금 총액 분석	34
<표 3-1> 지역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및 기초생활 수급자수	38
<표 3-2> 인증연도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및 평균	39
<표 3-3>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41

<표 3-4>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42
<표 3-5>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평균임금	44
<표 3-6>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시간	46
<표 3-7> 인증연도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47
<표 3-8>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48
<표 3-9>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48
<표 3-10>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 및 비율 :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52
<표 3-11>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및 지역인구 :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55
<표 3-12> 인증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56
<표 3-13> 인증유형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57
<표 3-14>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58
<표 3-1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 인원 중위값 추이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59
<표 3-16> 지역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적기업의 수	62
<표 3-17> 지역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64
<표 3-18>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일반인/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기업 비율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67
<표 부가분석 3-1> 사회서비스 수혜자 총 인원(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69
<표 부가분석 3-2> 사회서비스 수혜자 총 인원(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지역, 표준산업분류별)	72
<표 3-19> 지역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 수와 평균 개최 건수	74
<표 3-20>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의사결정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75
<표 3-2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이사회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추이	77
<표 3-22>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기타 형태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 시계열 추이	78
<표 3-23> 지역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재투자 총액	82
<표 3-24> 인증연도, 인증유형 및 조직형태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평균금액	83
<표 3-2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평균금액 추이	85
<표 4-1> 지역별 매출액	96
<표 4-2> 지역별 영업이익(손실)	109
<표 4-3> 지역별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평균 및 중위값	116
<표 부가분석 4-1> 재정성과 총액(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119
<표 부가분석 4-2> 재정성과 총액 분석(지역, 표준산업분류별)	123
<표 4-4>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원가 비교	129
<표 4-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매출원가 및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	130
<표 4-6> 지역별 판매비 및 관리비 평균 및 중위값	134
<표 4-7>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	135
<표 4-8>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영업외비용 비교	139
<표 4-9>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외비용	140

<표 4-10> 지역별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	144
<표 4-1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노무비	145
<표 부가분석 4-3> 지출총액(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147
<표 부가분석 4-4> 지출총액(지역, 표준산업분류별)	150
<표 4-12> 지역별 노동생산성 평균 및 중위값	152
<표 4-13>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노동생산성	153
<표 4-14> 지역별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	155
<표 4-15>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156
<표 4-16>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157
<표 4-17>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157
<표 4-18> 지역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158
<표 4-19>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159
<표 4-20>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159
<표 4-21>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160
<표 부가분석 4-5> 전체 유급근로자(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161
<표 부가분석 4-6> 전체 유급근로자(지역, 표준산업분류별)	167
 <표 5-1> 2021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요약	 170

그림목차

[그림 1-1] 2021년 사업보고서(2021년 4월 제출) 오프라인 양식	3
[그림 2-1]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수	13
[그림 2-2]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	17
[그림 2-3] 연도별 항목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	18
[그림 2-4]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분포별 기업 수	19
[그림 2-5] 정부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의 비율	20
[그림 2-6] 일반지원금 구성비	21
[그림 3-1] 연도별 취약계층, 일반인 유급근로자 수 및 평균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36
[그림 3-2]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별 사회적기업 비율	37
[그림 3-3] 인증연도별 평균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추이	40
[그림 3-4] 연도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43
[그림 3-5]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자 평균근로시간	45
[그림 3-6] 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및 사회적기업의 수 : 전체 사회적기업	50
[그림 3-7] 연도별 사회서비스 총 수혜인원 및 중위값 : 전체 사회적기업	50
[그림 3-8] 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51
[그림 3-9] 연도별 사회서비스 총 수혜인원 및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53
[그림 3-10]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규모별 제공기업 수 및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54
[그림 3-11] 연도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61
[그림 3-12] 연도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63
[그림 3-13] 사회서비스 유형 및 수혜대상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65
[그림 3-14] 사회서비스 유형 및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66
[그림 3-15] 연도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 수	73
[그림 3-16] 연도별 이사회 참여인원 비율	79
[그림 3-17] 연도별 기타 의사결정기구 참여인원 비율	80
[그림 3-18] 연도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금액	81
[그림 3-19]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사회서비스 재투자 총액	81
 [그림 4-1] 매출 총액	86
[그림 4-2] 매출액 분포	87
[그림 4-3] 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87
[그림 4-4] 공공매출 총액	88
[그림 4-5] 공공시장 매출액 분포	88
[그림 4-6] 공공시장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89
[그림 4-7] 민간매출 총액	89
[그림 4-8] 민간시장 매출액 분포	90
[그림 4-9] 민간시장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90

[그림 4-10] 연도별 매출액 분포	91
[그림 4-11] 연도별 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91
[그림 4-12] 연도별 공공매출액 분포	92
[그림 4-13] 연도 및 공공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92
[그림 4-14] 연도별 민간매출액 분포	93
[그림 4-15] 연도 및 민간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93
[그림 4-16] 연도별 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94
[그림 4-17] 연도별 공공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94
[그림 4-18] 연도별 민간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95
[그림 4-19] 인증연도별 평균 매출액	98
[그림 4-20] 인증유형별 평균 매출액	99
[그림 4-21] 조직형태별 평균 매출액	99
[그림 4-22] 인증연도별 평균 공공매출액	100
[그림 4-23] 인증유형별 평균 공공매출액	101
[그림 4-24] 조직형태별 평균 공공매출액	101
[그림 4-25] 인증연도별 평균 민간매출액	102
[그림 4-26] 인증유형별 평균 민간매출액	103
[그림 4-27] 조직형태별 평균 민간매출액	103
[그림 4-28] 연도별 영업이익 총액	105
[그림 4-29] 영업이익 분포	106
[그림 4-30] 영업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106
[그림 4-31] 연도별 영업이익(손실) 분포 비교	107
[그림 4-32] 연도 및 영업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108
[그림 4-33] 영업이익(손실) 평균 및 중위값	108
[그림 4-34] 인증연도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110
[그림 4-35] 인증유형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110

[그림 4-36]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111
[그림 4-37]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총액	112
[그림 4-38] 당기순이익(손실) 분포	113
[그림 4-39] 당기순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113
[그림 4-40]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분포	114
[그림 4-41] 연도 및 당기순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114
[그림 4-42] 당기순이익(손실) 평균 및 중위값	115
[그림 4-43] 영업이익(영업손실) 및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발생 비교	115
[그림 4-44] 인증연도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117
[그림 4-45] 인증유형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117
[그림 4-46] 조직형태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128
[그림 4-47] 연도별 매출원가 금액	125
[그림 4-48] 매출원가 분포	126
[그림 4-49] 매출원가 분포별 기업 수	126
[그림 4-50] 연도별 매출원가 분포 비교	127
[그림 4-51] 연도별 매출원가 평균 및 중위값	127
[그림 4-52] 연도별 매출액(평균 및 중위값) 대비 매출원가 비중	128
[그림 4-53] 연도별 판매비 및 관리비 금액	131
[그림 4-54]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	132
[그림 4-55]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별 기업 수	132
[그림 4-56] 연도별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	133
[그림 4-57] 판매비 및 관리비 평균 및 중위값	133
[그림 4-58] 영업외비용 총액	136
[그림 4-59] 영업외비용 분포별 기업 수	137
[그림 4-60] 영업외비용 분포별 기업비율	137
[그림 4-61] 연도별 영업외비용 평균 및 중위값	138

[그림 4-62] 연도별 노무비 금액	141
[그림 4-63] 노무비 분포	142
[그림 4-64] 노무비 분포별 기업 수	142
[그림 4-65] 노무비 분포 비교	143
[그림 4-66] 연도별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	143
[그림 4-67] 연도별 노동생산성 평균 및 중위값	151
[그림 4-68] 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155
[그림 부1-1]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175
[그림 부1-2]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175
[그림 부1-3]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근로자 평균근로시간	176
[그림 부1-4]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비교	177
[그림 부1-5] 영업이익 및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177
[그림 부1-6]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순이익률 비교	178
[그림 부1-7] 매출원가 및 매출원가대매출액 비교	179
[그림 부1-8] 판매비 및 관리비, 영업외비용 비교	17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방향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2007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변화해 왔으며 그에 따라 큰 양적성장을 이루었다. 2017년에는 사회적기업 10주년을 기념한 정책토론회에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 확산의 주체로서 활동한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한계점을 공유했으며(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외, 2017), 논의 되었던 사회적기업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포함되면서(대한민국정부, 2020) 더욱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성과분석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정책들의 추진과 변화는 사회적기업 성과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길현중 외, 2020). 특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제 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18)은 본 성과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적기업 성장에 따라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과 과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탐색하고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지속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분석의 결과는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여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향성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2019년에 사회적기업의 등록제로의 전환 추진은 진입장벽을 낮춰 양적성장과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늘리고자 추진되었으나 동시에 위장 사회적기업 진입 및 사회적기업의 변별력이 약화된다는 등 다양한 우려와 비판이 존재하여 도입 여부는 아직까지도 논의 중에 있다¹⁾. 이에 따라 2021년 사회적기업 성과 분석은 기존에 추진되었던 정책들 안에서 사회적기업들의 특성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2021년에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인 코로나19

1) <https://futurechosun.com/archives/42119>

확산의 영향을 받아 급격한 경기 악화가 진행되었고, 중소기업 및 다양한 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워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로 인한 실업률도 급격히 증가하였다(김진영·서지애, 2020).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성과와 정책들과의 연결성 보다는 위기 상황에 집중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재난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 및 기존의 자원·역량에 따라 지표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분석 및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연도별 시계열 분석으로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2021년 성과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2021년 사회적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성과를 충실하게 보고하여 비교가 용이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주요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2022년 4월 제출)

본 성과분석을 위해 활용되는 주요자료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이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 회계연도 4월 말과 10월 말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 이중 2019~2021년 성과를 기술하여 2020~2022년 4월에 제출한 사업보고서가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주요 원자료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이후 사업보고서 양식은 총 네 차례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길현종 외, 2013, 2018), 본 연구에 활용된 사업보고서는 2017년 개편되어 현재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4월 제출 사업보고서 오프라인 양식은 [그림 1-1]과 같다.

2022년 4월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인증 사회적기업은 총 3,063개소이다. 한국사회적기업 내부자료에 의하면,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인증 사회적기업의 수는 총 3,215개소로 확인되며,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비율은 95.2%로 계산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상당수의 사회적기업이 사업보고서의 제출의무에 충실했다고 판단된다.

[그림 1-1] 2021년 사업보고서(2022년 4월 제출) 오프라인 양식

① 기업 현황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변경[]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농(어)업회사법인[] 영농(어)조합법인[] 기타[]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 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범위					연간 개최 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임원 등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기타()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근로자 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천원(천원)		
④ 지원 내역	정부 지원	구분	내용			금액		
		일자리창출사업				천원		
		전문인력지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정책자금				천원		
		기타				천원		
	민간 지원	소계				천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민간금융지원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그림 1-1]의 계속

⑤ 재정 성과	매출액	천 원		공공시장	천 원		
				민간시장	천 원		
	매출총이익	천 원		매출원가	천 원		
	영업이익	천 원		판매비와 관리비	천 원		
	영업외수익	천 원		노무비	천 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천 원		영업외비용	천 원		
	당기순이익	천 원		법인세 등	천 원		
⑥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 관련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 원	시간
	비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 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명	천 원	시간
⑦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보건[] 사회복지[] 보육[] 환경[] 간병·가사 지원[] 산림[] 고용[] 청소[] 문화·예술[] 관광·운동[] 문화재[] 기타[]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비취약계층					명	
⑧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시/도 () 구/군					
	공헌 내용						
⑨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2.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2.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div>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제3절 연구 구성

언급한 연구방향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추가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표 1-1>의 순으로 구분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조직 일반 및 정책 현황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3장 및 제4장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와 경제적성과를 나누어 제시할 것이다.

<표 1-1> 2021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연구보고서의 구성

구분	주요내용
제1장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방향 · 주요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년 4월 제출) · 연구의 구성
제2장 주요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기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원제도 ·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 (분포, 지원금 및 기타 영업외수익)
제3장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고용 · 사회서비스 제공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 사회적 목적 재투자
제4장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성과(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지출(매출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 영업외비용, 노무비) · 기타성과지표(노동생산성, 비취약계층 고용)
제5장 요약 및 결과해석	·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제2장 주요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기업 현황

제2장에서는 주요 사회적경제조직의 개요 및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정리한 후, 인증 사회적기업 일반 현황을 사업보고서 분석결과를 활용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 중 후자인 인증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에는 조직특성별 분포와 사회경제적 성과로 분류되기 어려운 지원금 및 기타 영업외 수익에 대한 정보가 제시될 것이다.

제1절 주요 사회적경제조직과 정부지원정책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2017년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본 고의 연구대상인 인증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사회복지법인, 자활센터, 농협, 수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 중기협, 산림조합, 업연초엽 등이 모두 포함된다(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7). 다만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서는 주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대표적 사회적경제 조직체로 언급되어 왔다. 이에 더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를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체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나 정책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19, 2020;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20). 이상에서 언급한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체의 정의와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의 공식 규모를 제시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본 표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체의 규모와 관련한 통계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인증 사회적기업은 실제로 운영 중인 기업에 대한 규모를 제시하는 반면, 협동조합은 수리·인가 조직 전체를 제시하고, 소셜벤처의 경우는 제시된 정의에 부합하는 기업을 탐색해 조직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즉, 현재 통계 체계에서 제시된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체 규모의 총합이 전체 사회적경제 조직의 규모라 보기는 어렵다.

<표 2-1> 우리나라 주요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및 유형

조직유형 (중앙부처)	정의	규모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등)	<p>인증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사회적기업육성법)</p> <p>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www.socialenterprise.or.kr)</p> <p>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www.socialenterprise.or.kr).</p>	<p>인증 3,215개소 (활동기준; 2021년 12월) (www.socialenterprise.or.kr)</p> <p>예비 3,081개소 (2022년 12월; www.seis.or.kr)</p>
협동조합 (기획재정부)	<p>일반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p> <p>사회적협동조합: 위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p>	<p>일반 18,281개소 사회적 3,448개소 (수리·인가기준; 연합회 제외; 2021년 12월; www.coop.go.kr)</p>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행정안전부, 2020: 1)	<p>1,697개소 (2021년 12월; www.mois.go.kr)</p>
소셜벤처 (중소기업벤처부)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지닌 기업가가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중소벤처기업부, 2022: 12) (sv.kibo.or.kr/)	<p>2,031개소 (실태조사를 통해 관별된 기업; 2021년)</p>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www.kdisw.or.kr)	<p>997개소 (2021년 12월, www.kdisw.or.kr)</p>

<표 2-2> 2021년 사회적기업 정부지원

구분	지원사업		지원내용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소셜벤처 대학 동아리 지원사업		- 대학 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150만 원 상당의 활동비 지원 및 멘토링 제공
	소셜벤처 경연대회		- 청소년, 대학생, 일반, 글로벌 부문 - 권역대회 및 전국대회로 개최하며 상금 및 상장수여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예비창업팀, 초기창업팀, 재도전 창업팀 - 창업공간, 창업자금, 멘토링, 네트워킹, 사후지원 등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		- 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출신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 - 교육지원, 멘토링지원, 협업지원, 자원연계 지원
재정지원	인건비 지원	일자리 지원	- 일자리 창출 시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일부(9.955%) 지원
		전문인력 지원	- 기관경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사업개발비		- R&D, 마케팅, 브랜딩 등 경상적 사업비 지원 (사회적기업 연 1억 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연 5천만 원 이내) - 사업개발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3억원 내에서 인정
	세제지원		-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사회보험료지원		- 4년간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성장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사회적기업에 보호된 시장을 제공
	판로지원		- 공공조달 정보제공, 사회적경제 상품물, 판로지원 정보제공 - 상품 경쟁력 강화, 유통채널 진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지원
	전문컨설팅, 경영지원		- 전문컨설팅 기관으로부터의 기술지원 및 컨설팅 비용지원
자원연계	SE파트너십 (CSR)		-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정보제공·매칭 - 사회적경제기업 연계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설계 컨설팅 - 사례관리 및 홍보
	프로보노/SE프로		-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중년 기업을 위한 경영자문 및 멘토링, 교육 및 워크숍, 세미나 지원
	사회적금융		- 기존 금융제도 활용이 어려운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조달방식 다각화 및 일반국민의 투자 및 참여 유도
	국제협력		- 국내외 사회적경제 리더들의 사례공유와 토론 -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건문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1a: 64.

다음으로 <표 2-2>~<표 2-4>는 본 연구의 주요대상인 사회적기업의 지원사업 내역 및 주요사업의 세부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표 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적기업 지원은 사회적기업 진입 전 지원, 진입 후 지원, 그 외의 지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지원 중에는 일자리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지원, 경영컨설팅지원, 사회보험료지원, 세제지원이 확인되는데, 이 중에서 사회보험료지원, 세제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는 인증 사회적기업에, 이외의 지원은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모두에 지원 되고 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 금융지원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금융지원이 여러 전달체계 주체 통해 지원이 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2-3> 재정지원 사업별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구분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주요 지원내용	최저임금수준 인건비+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분 일부	월 200만 원/ 250만 원 한도 (인증 2, 예비 1명) * 자부담 10/20/30/50%	인증: 연 1억 원 예비: 연 5천만 원 한도 * 자부담 10/20/30%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지원한도 50명 * 인증기업만 해당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지원기간 산정방법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3년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인증) 인증 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4년

주: 1.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에 지원.

2.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1: 10.

<표 2-4> 사회적기업 주요 금융지원 세부내용

사업명	내용	주체
미소금융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대상 시설·운영자금 등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정책자금	-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저리의 대출 방식으로 사업화 자금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사회적기업나눔보증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신용보증 공급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기업특례보증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특별 보증 운영	지역신용보증재 단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한손에 잡히는 사회적 기업, 2021: 39

다음으로 <표 2-5>는 2021년 중앙부처에서 시행중인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주요사업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b). 본 표에 의하면 2021년 총 16개 중앙부처에서 57개의 사회적경제 주요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이 확인된다. 아래와 같이 다수의 부처에서 각자 여러 종류의 사회적경제 조직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표 2-5>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2021년)

중앙부처	사업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기업 모태펀드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 사업개발비 지원
중소기업벤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임팩트 펀드 • 소셜임팩트 보증 •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예비창업패키지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지원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 • 소셜벤처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토요문화학교 운영 •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스포츠클럽 육성 •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 관광두레 조성

<표 2-5>의 계속

중앙부처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화) •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지원 • 사회적경제혁신성장(R&D)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 강화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창업교육체제 구축 •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 인문사회연구소(문제해결형) 지원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 마을기업 육성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 농촌 교육·문화·복지(축제·유학 포함) 지원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 신품종 생명자원 활용 공동체 활성화
금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 보증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활용 확대 •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대출지원 • 사회투자펀드 조성 및 운영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뉴딜 300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b.

다음으로 <표 2-6>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기업 주요 지원정책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본 표에 의하면 2021년 총 3개 중앙부처에서 코로나19를 대비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정책을 운영 중에 있음이 확인된다. 기본적으로 지원금 지급이나 규제 완화 등이 있다. 2021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면서 공동판로 개척 및 협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비대면 판로 지원 등의 지원사업이 추진 후 지속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자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6> 코로나19 사회적경제기업 주요 지원 정책(2021년)

중앙부처	사업	대상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 월 지원금 선지급 허용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유지지원금수령 등), 일시적 임금체불 발생 시 행정처분 면제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추가지원 코로나19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 지원 가능 (지원금의 70% 지원,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 지원 불가) 	사회적기업
기획재정부	• (사회적)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자료 입력기한 유예	사회적협동조합 및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판로지원, 기타 운영 지원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활기업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 2021년 자활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1)

제2절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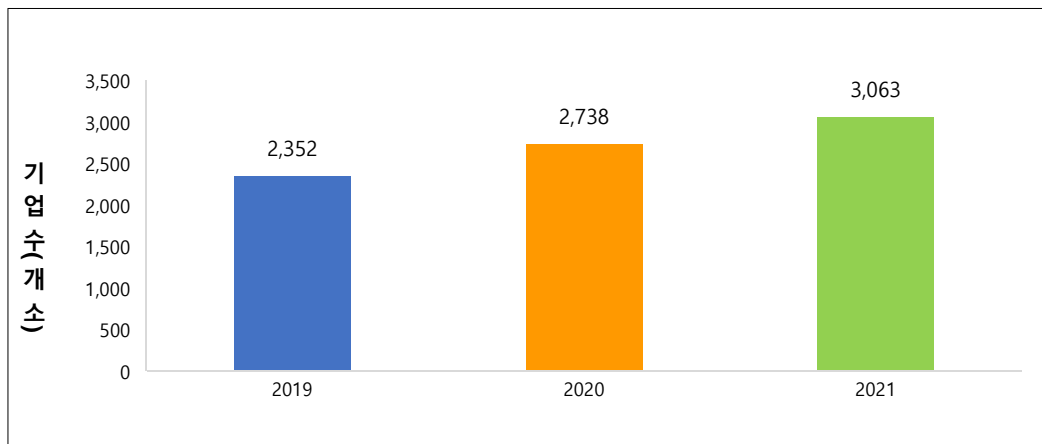
이하에서는 2021년 사업보고서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인증사회적기업의 특성, 사회적기업 지원금에 대해 확인해 볼 것이다.

1. 사회적기업의 분포

먼저, 본 연구에 포함된 인증 사회적기업의 수를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제시하면 [그림 2-1]과 같다. 제1장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총 3,063개소로, 2020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에 포함된 사회적기업보다 325개소 증가했다.

[그림 2-1]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수

(단위: 개소)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사업보고서 제출 인증 사회적기업의 분포를 지역별로 확인해 보면 다음 <표 2-7>과 같다.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이 위치한 곳은 서울(17.3%)과 경기(17.6%) 지역으로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의 약 34.9%가 해당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적기업이

가장 적게 위치한 지역은 세종(0.8%), 제주(2.6%), 대전(2.7%), 울산(3.3%), 대구(3.8%), 지역이며, 이외에 다른 지역은 4.0~6.9%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2-7>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수

(단위: 개소, %)

구분	개소	백분율
서울	531	17.3
부산	142	4.6
대구	115	3.8
인천	194	6.3
광주	129	4.2
대전	84	2.7
울산	101	3.3
세종	23	0.8
경기	540	17.6
강원	171	5.6
충북	129	4.2
충남	122	4.0
전북	180	5.9
전남	159	5.2
경북	210	6.9
경남	153	5.0
제주	80	2.6
전체	3,063	100.0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다음으로 <표 2-8>는 이들 인증 사회적기업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한 결과이다. 인증연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인증을 받은 기업 수가 해마다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2014~2021년에 인증을 받은 기업 수가 2,385개소(77.9%)로 2007~2013년에 인증을 받은 기업 수인 678개소(22.1%)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표 2-8>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의 수

(단위: 개소)

구분		2019	2020	2021
인증연도	2007	35	35	33
	2008	104	101	94
	2009	54	52	45
	2010	135	132	123
	2011	106	103	92
	2012	114	112	105
	2013	197	197	186
	2014	204	201	189
	2015	234	230	218
	2016	237	230	217
	2017	244	236	222
	2018	299	294	274
	2019	389	388	360
	2020	-	427	415
	2021	-	-	490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567	1,809	2,036
	사회서비스제공형	143	175	221
	혼합형	191	196	194
	기타(창의·혁신)형	301	349	246
	지역사회공헌형	150	209	366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308	280	343
	비영리민간단체	115	71	74
	사회복지법인	63	76	72
	상법상회사	1,469	1,808	1,99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9	10	11
	영농조합법인	74	99	10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14	394	466
	기타	-	-	4
전체		2,352	2,738	3,063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한편, 인증연도를 기준으로 2019년 및 2020년에 비해 2021년의 인증 기업 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폐업, 인증 반납 등의 사유로 해당 인증연도의 기업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인증유형의 경우, 일자리제공형이 2,036개소(66.5%)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로 사회서비스제공형과 일자리제공형이 혼합된 혼합형(194개소, 6.3%)을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은 72.8%까지 증가한다. 이는 전체 사회적기업에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을 갖는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비율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19년 및 2020년 역시 이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형태의 경우, 앞서 인증유형의 일자리제공형의 경우와 유사하게 상법상회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 사회적기업의 65.0%인 1,993개소가 상법상회사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0년의 경우에도 상법상회사가 조직형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상법상회사가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상법상회사의 설립이 다른 조직형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금 요건이나 인적 구성이 요구되는데, 자본구조가 취약한 기관들은 민법상법인의 형태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출자금 요건이 다소 낮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인증 초기에 상법상회사가 많았으며 특히 자활공동체가 이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곽선화 외, 2010). 한편, 2015~2021년 추세를 보면, 일반/사회적협동조합 수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2년 12월 시작된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설립된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의 상당수가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사회적기업 지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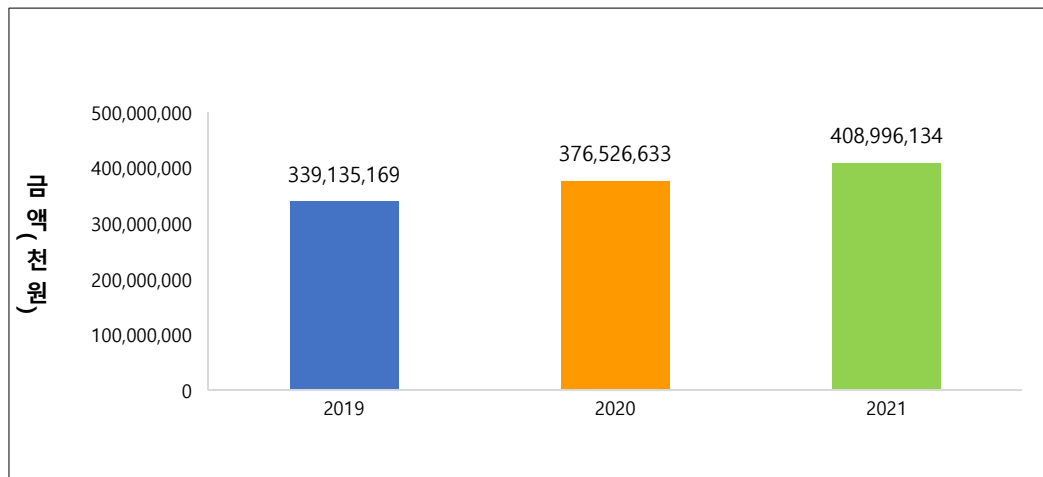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지원금 현황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일부 정부보조금의 경우 영업외수익이라는 용어를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점을 고려하여(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본 성과분석에서는 지원금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정부지원 및 일반지원에 대해 분석하였다. 순수한 지원

금 및 기타 영업외수익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에 활용되는 지원금 및 기타 영업외수익에서 금융지원은 제외한다. 정부지원에는 일자리창출사업지원금, 전문인력사업지원금, 사업개발비지원금, 사회보험료지원금, 기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을 대상으로 하며 정책자금은 제외하였다. 민간지원에는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영업외수익 금액이 포함되며 민간금융지원은 제외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전체 지원금 총액의 추이를 확인해보면 다음 [그림 2-2]와 같다. 2021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은 2020년 대비 약 8.6% 증가한 4억 원 정도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2]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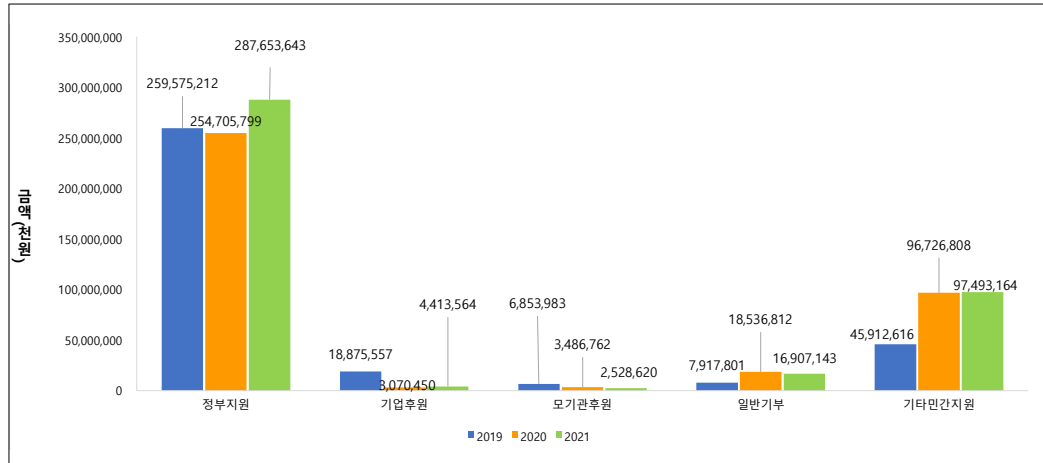
주 :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사회적기업 지원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해보면 아래의 [그림 2-3]과 같다. 정부지원금 및 기타 민간지원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 전년대비 약 1.9% 감소한 것에 비해 2021년에는 전년에 비해 약 12.9% 증가하였다. 기타 민간지원의 경우에는 2020년에 전년대비 약 110.7%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전년에 비해 약 0.8% 정도로 소폭 증가하였다. 기업후원의 경우 2020년에 전년대비 약 83.7% 정도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전년에 비해 약 43.7% 정도 증가하였다. 모기관후원

의 경우 2020년에는 전년대비 약 49.1% 정도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전년대비 약 28.5% 정도 감소하였다. 그 외 일반 기부는 2020년에는 전년에 비해 약 134.1%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전년에 비해 약 8.8% 정도 소폭 감소하였다.

[그림 2-3] 연도별 항목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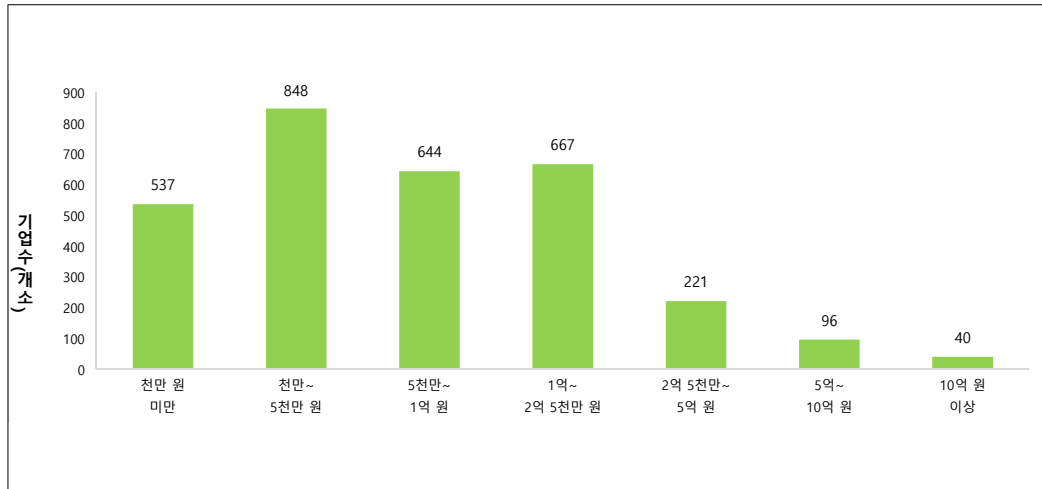
주 :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21년 정부 지원 2,195개소, 기업후원 49개소, 모기관지원 63개소, 일반기부 271개소, 기타민간지원 3,035개, 총지원금 3,053개소 기준.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다음으로 [그림 2-4]는 사회적기업 지원금의 금액 및 분포별 기업 수를 나타낸다. 사회적기업 중 2021년에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 지원 등 다양한 항목의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사회적기업 3,063개소의 99.7%인 3,053개소로 나타났다. 지원금 액수는 2020년의 경우와 유사하게 1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 중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원받는 기업이 848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1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원받는 기업이 667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금액을 지원받는 기업이 644개소로 나타났다.

[그림 2-4]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분포별 기업 수

(단위: 개소)



주 :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21년 정부 지원 2,195개소, 기업후원 49개소, 모기관지원 63개소, 일반기부 271개소, 기타민간지원 3,035개, 총지원금 3,053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다음으로, 지원금을 총지원금과 개별항목(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민간지원)으로 구분한 뒤, 항목별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의 평균 및 중위값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 2-9>과 같다. 총지원금을 먼저 살펴보면, 2021년 총지원금 평균은 약 1억 3천 3백만 원, 중위 값은 약 5천 8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의 총지원금 평균 약 1억 5천만 원과 중위 값 약 7천 2백만 원, 2020년의 평균 약 1억 3천 9백만 원과 중위 값 약 6천 5백만 원과 비교해 볼 때 평균값과 중위 값 모두 2019년 및 2020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 중에서는 기타민간지원(3,035개소) 다음으로 정부지원을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이 지원받고 있었는데(2,195개소, 71.9%), 정부지원금의 평균은 약 1억 3천만 원, 중위 값은 약 6천 2백만 원으로 다른 지원금 항목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업후원, 일반기부, 모기관 지원, 기타 민간지원의 순으로 지원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후원의 경우 평균 지원 금액은 2019년 약 9천 4백만 원에서 2020년 약 7천 3백만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약 9천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중위 값은 2019년 약 2천 2백만 원에서 2020년 약 2천 5백만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1년 1천 1백만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표 2-9>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단위: 천 원)

구분	2019		2020		2021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정부지원	128,949	68,477	127,162	68,875	131,049	62,486
기업후원	94,378	22,168	73,105	25,464	90,073	11,690
모기관지원	120,245	32,000	61,171	24,060	40,137	9,284
일반기부	28,077	11,719	72,979	12,424	62,388	10,128
기타 민간지원	25,465	3,885	35,851	5,795	32,123	6,409
총지원금	150,326	72,109	139,196	65,190	133,965	58,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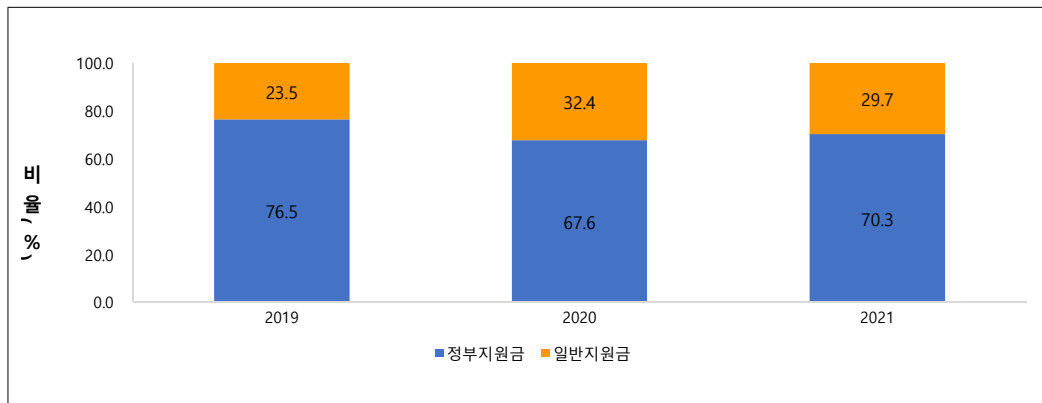
주 :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21년 정부 지원 2,195개소, 기업후원 49개소, 모기관지원 63개소, 일반기부 271개소, 기타민간지원 3,035개, 총지원금 3,053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다음으로 전체 지원금 중 정부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그림 2-5]와 같다. 2021년 전체 지원금 중 정부지원금은 7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9년 76.5%에서 2019년 67.6%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2-5] 정부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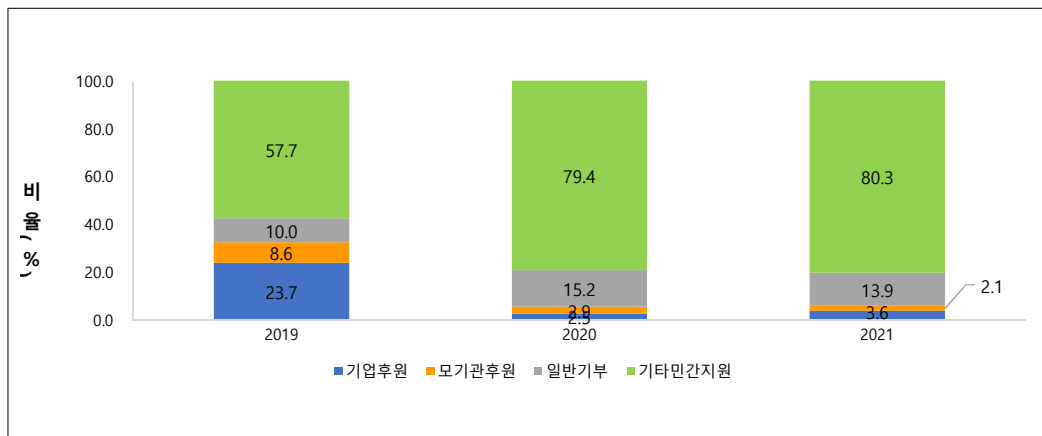
주 :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한편, [그림 2-6]에는 정부지원 이외의 일반지원금의 비율 변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체 비율에서 기업후원이나 모기관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21년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기타 민간지원의 경우 201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정부지원금비율과 일반지원금 구성비의 이러한 변화가 사업보고서 상 일반지원 항목의 자료처리와 관련된 것인지, 실제적인 변화, 예를 들면 최근 지속적으로 많은 사회적기업이 진입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2-6] 일반지원금 구성비

(단위: %)



주 :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다음으로 전체 지원금 및 세부 지원금의 평균 및 중위값을 지역별로 세분해 확인해 보면 다음 <표 2-10>과 같다. 먼저 지원금 총액의 평균을 살펴보면 기업 수가 23개소로 적은 세종을 제외하면 제주가 약 2억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인천 약 1억 8천만 원, 서울 약 1억 7천만 원, 경북 약 1억 4천만 원의 순서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의 경우 세종을 제외하면 제주 약 2억 2천만 원, 제주 약 2억 원, 서울 약 1억 6천만 원으로 높게 나타났고, 기업후원은 광주 약 2억 5천만 원, 경기 약 2억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중위값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기업 간 기업후원의 편차가 큰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일반기부는 경기 약 1억 1천 7백만 원, 서

울 약 1억 1천 6백만 원, 충북 약 4천 4백만 원으로 나타나 제주의 경우 정부지원과 기업후원 모두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서울 지역에서는 정부지원보다는 민간지원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지역별 지원금

(단위: 천 원, 개소)

지역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민간지원	지원금총액
서울	평균	157,057	57,525	49,553	115,926	39,888	167,127
	기업 수	375	18	13	62	526	531
	중위값	62,418	8,837	36,403	24,491	6,455	58,914
부산	평균	99,710	162,545	8,579	13,128	24,132	108,432
	기업 수	112	4	1	11	142	142
	중위값	56,206	86,414	8,579	3,652	5,632	56,235
대구	평균	108,731	18,321	3,574	3,954	14,758	107,382
	기업 수	97	4	3	9	114	115
	중위값	71,074	5,732	440	3,000	4,623	71,083
인천	평균	222,271	-	2,538	7,851	22,154	175,349
	기업 수	133	-	9	20	193	194
	중위값	47,153	-	2,381	2,519	5,889	42,686
광주	평균	114,581	246,018	141,399	25,604	26,993	112,222
	기업 수	89	1	3	6	128	129
	중위값	49,074	246,018	57,486	11,203	7,146	40,975
대전	평균	140,387	19,342	-	41,626	21,288	141,480
	기업 수	66	1	-	20	83	84
	중위값	64,778	19,342	-	13,972	4,139	72,892
울산	평균	107,351	5,000	49,141	9,050	26,837	112,150
	기업 수	78	1	2	9	99	100
	중위값	69,349	5,000	49,141	2,565	6,371	65,878
세종	평균	246,468	-	-	18,747	59,601	240,812
	기업 수	17	-	-	2	22	23
	중위값	124,498	-	-	18,747	6,065	121,871
경기	평균	113,230	198,422	41,648	116,558	35,624	121,211
	기업 수	336	10	10	50	535	539
	중위값	44,203	42,067	4,724	12,538	6,223	45,364

<표 2-10>의 계속

지역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민간지원	지원금총액
강원	평균	118,868	12,819	3,577	24,648	22,763	105,992
	기업 수	113	2	2	21	168	168
	중위값	46,148	12,819	3,577	10,000	6,255	45,521
충북	평균	128,492	42,963	6,248	44,272	50,374	124,579
	기업 수	72	1	2	6	129	129
	중위값	73,736	42,963	6,248	24,955	11,592	55,946
충남	평균	103,421	162,480	-	15,890	34,923	113,200
	기업 수	90	1	-	5	122	122
	중위값	55,653	162,480	-	12,788	7,677	57,215
전북	평균	118,733	34,264	39,838	25,702	39,988	133,903
	기업 수	137	1	3	11	175	177
	중위값	78,456	34,264	11,214	6,271	6,661	74,617
전남	평균	96,811	-	188	32,516	31,534	104,713
	기업 수	118	-	2	2	157	157
	중위값	61,132	-	188	32,516	5,990	61,653
경북	평균	123,370	42,800	9,491	35,573	34,791	144,009
	기업 수	181	2	6	14	209	210
	중위값	79,242	42,800	7,325	7,538	5,992	81,182
경남	평균	105,155	30,205	11,487	26,635	19,515	100,104
	기업 수	114	1	4	10	153	153
	중위값	65,815	30,205	12,659	17,698	7,238	57,524
제주	평균	200,149	9,457	220,300	36,534	26,116	208,176
	기업 수	67	2	3	13	80	80
	중위값	92,044	9,457	100,900	4,200	8,290	94,659
전체	평균	131,049	90,073	40,137	62,388	32,123	133,965
	기업 수	2,195	49	63	271	3,035	3,053
	중위값	62,486	11,690	9,284	10,128	6,409	58,282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다음으로 지원금 평균과 중위값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지원금 평균과 중위값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나누어 확인해 보면 다음 <표 2-11>과 같다. 먼저, 인증연도를 확인해보면 지원금 총액에 있어서 2015년 인증기

업의 평균금액이 약 6천7백만 원으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2020년 인증기업의 평균 금액이 약 9천5백만 원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2007년 인증기업의 경우 평균 금액이 약 2억 5천5백만 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평균과 중위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원금을 받는 기업 간에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인증유형의 경우 혼합형의 지원금 총액의 크기가 약 1억 9천8백만 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서비스제공형도 약 1억 5천4백만 원으로 지원금 총액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컸다. 다음으로는 기타(창의·혁신)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의 순서로 나타났다. 인증유형별 평균 정부지원 금액의 경우 혼합형이 약 2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유형 간에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민간지원 내역에서는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직형태의 경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인의 지원금 총액의 평균이 약 5억 6천만 원, 중위값 4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기타의 지원금 총액 평균 약 5천1백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2-1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지원금 평균, 중위값 및 기업 수

(단위: 천 원, 개소)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지원금총액
인증 연도	2007	평균	231,483	467,572	17,301	108,415	68,823	255,298
		기업 수	19	1	1	10	32	32
		중위값	66,407	467,572	17,301	6,119	11,805	64,716
	2008	평균	265,214	31,801	86,657	96,226	50,323	240,591
		기업 수	56	2	11	17	92	92
		중위값	64,450	31,801	70,000	28,649	9,188	57,442
	2009	평균	159,098	211,073	-	62,827	31,445	148,895
		기업 수	28	2	-	7	44	45
		중위값	36,688	211,073	-	5,000	3,098	44,211
	2010	평균	140,714	276,418	36,218	21,066	28,645	139,917
		기업 수	86	3	5	22	122	122
		중위값	57,511	246,018	13,555	13,421	5,531	45,962
	2011	평균	182,268	51,415	48,055	38,544	40,170	176,308
		기업 수	62	1	10	19	91	92
		중위값	44,961	51,415	13,739	17,955	9,441	58,683
	2012	평균	155,483	288,978	-	10,652	21,346	136,491
		기업 수	72	2	-	21	103	104
		중위값	55,481	288,978	-	6,271	6,130	36,961

<표 2-11>의 계속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지원금총액
인증 연도	2013	평균	113,577	27,515	21,077	33,873	34,008	124,460
		기업 수	136	7	8	30	186	186
		중위값	43,545	5,000	10,675	12,769	5,496	45,234
	2014	평균	133,151	112,038	175,036	31,121	35,834	136,283
		기업 수	132	4	3	14	189	189
		중위값	38,971	13,672	32,109	15,055	6,686	40,480
	2015	평균	62,601	93,523	4,862	24,392	21,203	66,509
		기업 수	145	6	2	11	213	217
		중위값	37,940	11,473	4,862	8,844	5,951	39,999
	2016	평균	212,602	32,419	22,634	53,625	51,420	219,352
		기업 수	166	5	5	17	212	216
		중위값	40,732	6,910	22,631	19,694	10,319	49,923
	2017	평균	81,087	58,924	564	164,448	31,974	105,872
		기업 수	182	5	1	9	218	222
		중위값	51,637	17,466	564	4,200	7,037	58,724
	2018	평균	134,542	41,056	1,996	173,673	30,911	154,826
		기업 수	227	5	3	17	272	272
		중위값	94,199	40,315	374	30,629	6,173	95,810
	2019	평균	120,234	-	2,380	127,556	30,841	130,228
		기업 수	271	-	3	25	360	360
		중위값	74,356	-	2,297	10,418	7,003	71,893
	2020	평균	97,601	20,694	7,275	57,106	28,447	94,576
		기업 수	264	5	7	26	413	414
		중위값	57,394	5,000	540	8,848	5,241	50,417
	2021	평균	138,427	34,264	3,803	22,689	27,017	126,805
		기업 수	349	1	4	26	488	490
		중위값	76,299	34,264	1,798	5,376	5,724	71,856
인증 유형	일자리 제공형	평균	122,455	85,500	47,635	58,162	34,324	126,939
		기업 수	1,430	24	50	154	2,023	2,032
		중위값	59,529	19,579	11,316	9,051	7,365	55,926
	사회 서비스 제공형	평균	169,477	234,074	7,862	48,945	25,924	153,919
		기업 수	155	2	6	26	218	219
		중위값	57,288	234,074	6,437	12,837	5,730	59,870
	혼합형	평균	250,216	218,698	45,775	26,759	22,499	198,008
		기업 수	127	5	2	30	189	192
		중위값	56,518	42,963	45,775	6,128	4,896	51,385
	기타 (창의· 혁신)형	평균	120,604	47,695	2,365	77,541	34,028	137,012
		기업 수	287	16	2	32	361	366
		중위값	74,977	5,000	2,365	20,396	4,934	72,490

<표 2-11>의 계속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지원금총액
인증 유형	지역 사회 공헌형	평균	101,446	18,404	1,131	117,016	24,046	119,608
		기업 수	196	2	3	29	244	244
		중위값	64,551	18,404	374	7,555	5,482	58,509
조직 형태	민법상 법인	평균	159,487	188,174	41,765	62,077	34,179	165,405
		기업 수	240	6	9	80	341	341
		중위값	78,257	100,727	32,109	9,679	5,978	77,098
	비영리 민간단체	평균	103,064	-	6,300	19,032	13,871	94,960
		기업 수	54	-	1	19	72	73
		중위값	59,524	-	6,300	16,143	3,829	44,516
	사회복지 법인	평균	591,673	-	79,377	57,040	66,992	560,275
		기업 수	52	-	25	41	70	71
		중위값	563,190	-	20,113	14,947	12,180	490,518
	상법상 회사	평균	101,419	61,943	4,723	14,337	31,483	103,758
		기업 수	1,396	35	24	26	1,977	1,990
		중위값	53,028	8,865	1,501	4,200	6,651	51,212
	소비자 생활협동 조합	평균	116,841	20,638	-	9,542	35,736	135,811
		기업 수	9	1	-	3	11	11
		중위값	102,113	20,638	-	8,282	19,599	103,076
	영농조합 법인	평균	92,021	0	-	19,669	43,718	116,418
		기업 수	78	0	-	1	99	99
		중위값	86,480	0	-	19,669	11,288	82,707
	일반/ 사회적 협동조합	평균	173,067	156,553	12,163	87,324	28,292	185,724
		기업 수	365	7	4	101	461	464
		중위값	69,925	19,342	827	11,093	4,775	74,180
	기타	평균	64,010	-	-	-	35,912	51,915
		기업 수	1	-	-	-	4	4
		중위값	64,010	-	-	-	18,657	50,662
전체	평균		131,049	90,073	40,137	62,388	32,123	133,965
	기업 수		2,195	49	63	271	3,035	3,053
	중위값		62,486	11,690	9,284	10,128	6,409	58,282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한편, <표 2-12>은 전체 지원금에서 차지하는 세부항목 비율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로 구분해 확인한 결과이다. 중요도가 높은 정부지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증연도의 경우 오래된 인증기업에 비해 최근 인증기업의 정부지원금 비율이 대체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난 반면, 기업후원의 경우에는 대체로 인증기간이 오래된 기업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살펴볼 때에도 대체로 정부지원이 60~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지원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12>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지원금 비율

(단위: %)

		정부 지원	기업 후원	모기관 지원	일반 기부	기타	계
인증 연도	2007	53.8	5.7	0.2	13.3	27.0	100.0
	2008	67.1	0.3	4.3	7.4	20.9	100.0
	2009	66.5	6.3	-	6.6	20.6	100.0
	2010	70.9	4.9	1.1	2.7	20.5	100.0
	2011	69.7	0.3	3.0	4.5	22.5	100.0
	2012	78.9	4.1	-	1.6	15.5	100.0
	2013	66.7	0.8	0.7	4.4	27.3	100.0
	2014	68.2	1.7	2.0	1.7	26.3	100.0
	2015	62.9	3.9	0.1	1.9	31.3	100.0
	2016	74.5	0.3	0.2	1.9	23.0	100.0
	2017	62.8	1.3	-	6.3	29.7	100.0
	2018	72.5	0.5	-	7.0	20.0	100.0
	2019	69.5	-	-	6.8	23.7	100.0
인증 유형	2020	65.8	0.3	0.1	3.8	30.0	100.0
	일자리제공형	77.8	0.1	-	0.9	21.2	100.0
	사회서비스제공형	67.9	0.8	0.9	3.5	26.9	100.0
	혼합형	77.9	1.4	0.1	3.8	16.8	100.0
	기타(창의·혁신)형	83.6	2.9	0.2	2.1	11.2	100.0
조직 형태	지역사회공헌형	69.0	1.5	-	4.9	24.5	100.0
	민법상법인	68.1	0.1	-	11.6	20.1	100.0
	비영리민간단체	67.9	2.0	0.7	8.8	20.7	100.0
	사회복지법인	80.3	-	0.1	5.2	14.4	100.0
	상법상회사	77.3	-	5.0	5.9	11.8	10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8.6	1.0	0.1	0.2	30.1	100.0
	영농조합법인	70.4	1.4	-	1.9	26.3	100.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62.3	-	-	0.2	37.6	100.0
	기타	73.3	1.3	0.1	10.2	15.1	100.0
전체		30.8	-	-	-	69.2	100.0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표 2-13>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지원금

(단위: 천 원)

구분		2019					2020					2021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일반 기부금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일반 기부금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일반 기부금
인증 연도	2007	497,582	202,257	106,647	54,561	21,571	218,849	195,305	67,572	27,058	95,374	255,298	231,483	467,572	17,301	108,415
	2008	218,664	175,456	250,635	100,314	41,536	251,523	242,314	65,923	95,579	78,564	240,591	265,214	31,801	86,657	96,226
	2009	155,603	178,680	93,653	109,716	31,217	169,383	192,521	197,798	178,224	84,337	148,895	159,098	211,073	-	62,827
	2010	130,071	123,186	71,759	58,102	24,019	137,068	131,945	48,225	41,196	37,923	139,917	140,714	276,418	36,218	21,066
	2011	179,545	163,588	50,643	42,606	29,579	191,715	201,939	-	68,911	36,272	176,308	182,268	51,415	48,055	38,544
	2012	151,076	147,227	31,529	45,744	16,779	136,746	150,315	13,882	16,000	11,898	136,491	155,483	288,978	-	10,652
	2013	106,922	92,313	100,620	54,856	24,118	123,108	121,975	35,335	49,734	27,146	124,460	113,577	27,515	21,077	33,873
	2014	122,627	106,008	35,047	202,635	20,072	115,657	108,246	121,563	109,847	22,489	136,283	133,151	112,038	175,036	31,121
	2015	177,827	181,096	93,935	3,600	19,124	94,716	88,047	136,321	1,465	48,570	66,509	62,601	93,523	4,862	24,392
	2016	166,997	140,344	26,584	315	37,659	226,573	125,908	47,887	2,085	44,850	219,352	212,602	32,419	22,634	53,625
	2017	152,265	125,154	35,308	276,345	11,421	139,684	134,894	15,090	4	156,722	105,872	81,087	58,924	564	164,448
	2018	141,550	122,108	38,369	19,003	49,375	146,165	138,153	168,051	1	135,118	154,826	134,542	41,056	1,996	173,673
	2019	113,875	94,437	215,253	70,918	24,431	124,054	111,593	26,838	76	260,968	130,228	120,234	-	2,380	127,556
	2020	-	-	-	-	-	96,375	103,560	20,059	2,169	24,166	94,576	97,601	20,694	7,275	57,106
	2021	-	-	-	-	-	-	-	-	-	-	126,805	138,427	34,264	3,803	22,689

<표 2-13>의 계속

구분		2019					2020					2021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일반 기부금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일반 기부금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일반 기부금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38,256	125,890	48,518	136,875	22,376	147,380	131,902	74,704	68,681	78,714	126,939	122,455	85,500	47,635	58,162
	사회서비스제공형	117,321	103,591	47,559	30,113	28,018	110,078	95,751	213,670	4,089	42,113	153,919	169,477	234,074	7,862	48,945
	혼합형	129,308	114,016	67,425	23,394	29,664	121,435	138,834	43,663	29,280	24,741	198,008	250,216	218,698	45,775	26,759
	창의·혁신형(기타)	238,239	174,506	154,745	114,823	44,901	116,635	109,468	32,048	1	61,601	137,012	120,604	47,695	2,365	77,541
	지역사회공헌형	160,361	113,432	431,053	22,075	29,146	147,039	131,773	93,264	77	145,944	119,608	101,446	18,404	1,131	117,016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225,606	136,313	229,459	458,402	30,601	178,117	166,949	75,738	43,074	53,359	165,405	159,487	188,174	41,765	62,077
	비영리민간단체	187,874	173,543	24,431	85,149	23,588	97,464	102,899	22,765	36,441	20,656	94,960	103,064	-	6,300	19,032
	사회복지법인	577,573	526,360	41,452	85,299	24,835	615,382	572,314	4,870	99,535	60,665	560,275	591,673	-	79,377	57,040
	상법상회사	112,969	108,247	43,471	32,983	15,832	108,170	98,165	61,787	11,546	22,753	103,758	101,419	61,943	4,723	14,337
	소비자생활협동 조합	90,457	56,053	42,246	-	54,174	114,334	79,812	52,454	-	18,619	135,811	116,841	20,638	-	9,542
	영농조합법인	113,158	117,977	10,000	-	4,000	138,166	148,045	-	-	2,000	116,418	92,021	-	-	19,669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64,130	123,671	160,006	35,008	34,783	171,151	138,951	163,966	3,182	134,304	185,724	173,067	156,553	12,163	87,324
	기타	-	-	-	-	-	-	-	-	-	-	51,915	64,010	-	-	-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마지막으로 2019~2021년 총지원금 및 세부 지원금 평균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로 구분해 비교해 보면 <표 2-13>와 같다. 먼저 인증연도별로 살펴볼 때, 전체 평균 지원금의 크기는 대체로 최근에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지원금 평균 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 인증기업들의 평균 지원금 액수가 적게 나타났다.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살펴볼 때 전체 평균 지원금의 경우 혼합형이 약 1억 9천8백만 원, 사회복지법인인 약 5억 9천2백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전체 평균 지원금은 대체로 2020년 전년대비 증가하였다가 평균 지원금의 크기가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인증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조직형태별로는 사회복지법인, 영농조합 법인의 경우 2020년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다가 2021년 다시 증가하였고, 소비자생활협동 조합,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으며, 민법상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상법상회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그리고 다음의 <표 부가분석 2-1>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2019~2021년 전체 지원금, 정부지원금, 민간지원금, 지원금 비율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부가분석 2-2>에서는 전체 지원금을 지역과 표준산업분류 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지원금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19, 2020, 2021)

<표 부가분석 2-1> 지원금 총액 분석

(단위: 천 원, %)

	항목		2019	2020	2021
전체지원금	전체총액		339,135,169	376,526,633	408,996,134
	인증연도	2007	16,917,771	7,440,881	8,169,533
		2008	21,429,034	24,900,849	22,134,370
		2009	8,091,347	8,638,580	6,700,254
		2010	16,258,824	18,093,022	17,069,907
		2011	17,774,983	19,363,283	16,220,363
		2012	16,618,342	14,905,314	14,195,052
		2013	19,566,796	24,006,184	23,149,483
		2014	23,299,099	23,015,866	25,757,411
		2015	39,122,014	21,311,121	14,432,519
		2016	39,077,371	50,752,431	47,379,995
		2017	36,543,482	32,546,471	23,503,486
		2018	41,049,634	42,680,226	42,112,616
		2019	43,386,472	48,009,036	46,882,178
		2020	-	40,863,363	39,154,390
		2021	-	-	62,134,578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208,213,587	263,222,423	257,939,510
		사회서비스제공형	16,190,335	19,043,612	33,708,355
		혼합형	23,663,388	23,437,041	38,017,499
		기타(창의·혁신)형	68,136,217	40,239,293	50,146,453
		지역사회공헌형	22,931,642	30,584,261	29,184,317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63,846,357	48,804,231	56,403,180
		비영리민간단체	21,041,925	6,822,544	6,932,108
		사회복지법인	35,231,927	46,153,681	39,779,523
		상법상회사	159,173,159	193,517,373	206,478,25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14,115	1,143,344	1,493,923
		영농조합법인	8,147,403	13,678,492	11,525,403
		일반/사회적협동조합	50,880,283	66,406,964	86,176,080
		기타	-	-	207,658
정부지원금	전체총액		259,575,212	254,705,799	287,653,643
	인증연도	2007	5,460,948	3,906,118	4,398,182
		2008	13,510,114	15,508,145	14,851,973

	항목	2019	2020	2021
정부지원금	인증연도	2009	6,432,465	5,583,137
		2010	12,318,610	12,007,077
		2011	13,414,243	13,126,062
		2012	14,133,786	10,973,022
		2013	14,123,940	17,198,581
		2014	17,597,284	15,479,279
		2015	34,951,487	14,791,983
		2016	31,717,751	23,922,584
		2017	28,910,566	26,709,208
		2018	34,800,902	32,604,275
		2019	32,203,116	32,138,785
		2020	-	30,757,536
		2021	-	48,311,038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67,811,223	172,660,384
		사회서비스제공형	12,845,240	12,256,183
		혼합형	18,242,591	18,881,505
		기타(창의·혁신)형	45,022,481	28,242,750
		지역사회공헌형	15,653,677	22,664,974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34,759,747	33,723,706
		비영리민간단체	16,833,676	5,453,688
		사회복지법인	29,476,163	32,621,930
		상법상회사	133,360,819	125,750,15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04,476	718,312
		영농조합법인	7,786,511	11,695,586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6,853,820	44,742,421
		기타	-	-
민간지원금	전체총액		79,559,957	121,820,833
	인증연도	2007	11,456,823	3,534,762
		2008	7,918,920	9,392,704
		2009	1,658,882	3,055,443
		2010	3,940,214	6,085,944
		2011	4,360,740	6,237,221
		2012	2,484,556	3,932,291
		2013	5,442,856	6,807,602
		2014	5,701,815	7,536,586
		2015	4,170,527	6,519,138
		2016	7,359,620	26,829,847
		2017	7,632,916	5,837,263
		2018	6,248,732	10,075,950
		2019	11,183,356	15,870,250
		2020	-	10,105,827
		2021	-	13,823,540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40,402,364	90,562,039
		사회서비스제공형	3,345,095	6,787,428
		혼합형	5,420,797	4,555,536

	항목		2019	2020	2021
민간지원금	인증유형	기타(창의·혁신)형	23,113,736	11,996,543	15,533,172
		지역사회공헌형	7,277,965	7,919,286	9,300,967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29,086,610	15,080,524	18,126,246
		비영리민간단체	4,208,249	1,368,856	1,366,644
		사회복지법인	5,755,764	13,531,750	9,012,503
		상법상회사	25,812,340	67,767,221	64,896,7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09,639	425,031	442,358
		영농조합법인	360,892	1,982,906	4,347,78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4,026,463	21,664,542	23,006,613
		기타	-	-	143,648
지원금 비율	전체비율		0.07	0.16	0.15
	인증연도	2007	0.13	0.10	0.10
		2008	0.12	0.16	0.15
		2009	0.08	0.14	0.14
		2010	0.06	0.16	0.15
		2011	0.05	0.15	0.17
		2012	0.08	0.12	0.11
		2013	0.01	0.14	0.13
		2014	0.06	0.13	0.12
		2015	0.09	0.13	0.10
		2016	0.08	0.14	0.13
		2017	0.11	0.18	0.13
		2018	0.09	0.17	0.16
		2019	0.10	0.19	0.18
		2020	-	0.19	0.14
		2021	-	-	0.20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0.07	0.14	0.12
		사회서비스제공형	0.10	0.23	0.20
		혼합형	0.12	0.18	0.19
		기타(창의·혁신)형	0.05	0.22	0.21
		지역사회공헌형	0.12	0.22	0.20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0.10	0.18	0.17
		비영리민간단체	0.20	0.29	0.25
		사회복지법인	0.23	0.32	0.27
		상법상회사	0.04	0.13	0.1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0.05	0.11	0.07
		영농조합법인	0.06	0.17	0.14
		일반/사회적협동조합	0.12	0.22	0.20
		기타	-	-	0.07

주: 지원금 비율=전체지원금총액/(전체지원금총액+매출액총액).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표 부가분석 2-2> 지원금 총액 분석

■ 지역별, 표준산업분류별 분석(2021)

(단위: 천 원,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지원금	지역	88,744,408	15,397,380	12,348,915	34,017,691	14,476,574	11,884,336	11,214,969	5,538,674	65,332,842	17,806,673	16,070,712	13,810,355	23,700,849	16,439,929	30,241,845	15,315,940	16,654,050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운수업(H)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정부 지원금	지역	10,881,071	52,754,354	7,904,992	40,439,259	46,199,104	21,799,069	9,918,915	29,387,591	711,626	8,373,359	154,796,017	10,630,979	5,985,863	147,515	1,529,822	1,486,927	5,047,742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운수업(H)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민간 지원금	지역	58,896,348	11,167,489	10,546,926	29,562,046	10,197,684	9,265,564	8,373,362	4,189,962	38,045,239	13,432,099	9,251,397	9,307,853	16,266,375	11,423,720	22,329,914	11,987,627	13,409,979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운수업(H)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비율	지역	6,983,006	42,647,799	6,429,741	24,897,858	34,210,233	14,311,196	7,312,342	22,328,094	268,237	5,131,430	105,622,703	8,194,257	5,106,899	77,001	818,030	881,641	1,767,432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운수업(H)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비율	지역	29,848,060	4,229,891	1,801,989	4,455,645	4,278,890	2,618,772	2,841,597	1,348,712	27,287,543	4,374,574	6,819,315	4,502,502	7,434,474	5,016,209	7,911,931	3,328,313	3,244,071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운수업(H)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비율	지역	0.15	0.17	0.19	0.13	0.14	0.20	0.17	0.20	0.11	0.16	0.15	0.14	0.15	0.16	0.17	0.15	0.21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운수업(H)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비율	지역	0.08	0.24	0.16	0.11	0.12	0.10	0.20	0.26	0.21	0.13	0.13	0.14	0.19	0.14	0.18	0.09	0.04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운수업(H)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제3장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 분석

제3장에서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사회적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해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사회적 투자확충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사회통합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편익)창출의 성과는 경제적성과 만큼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취약계층의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1절 취약계층의 고용

사회적기업은 복합적인 정책목표를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왔다. 취업곤란을 겪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을 지역사회에 통합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성과이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2010년부터는 목적 유형별로 취약계층 의무고용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취약계층은 ① 저소득자²⁾, ② 고령자, ③ 장애인, ④ 성매매피해자, ⑤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⑥ 북한이탈주민, ⑦ 가정폭력피해자, ⑧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⑨ 결혼이민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범죄구조피해자, ⑫ 그 밖의 취약계층 등 12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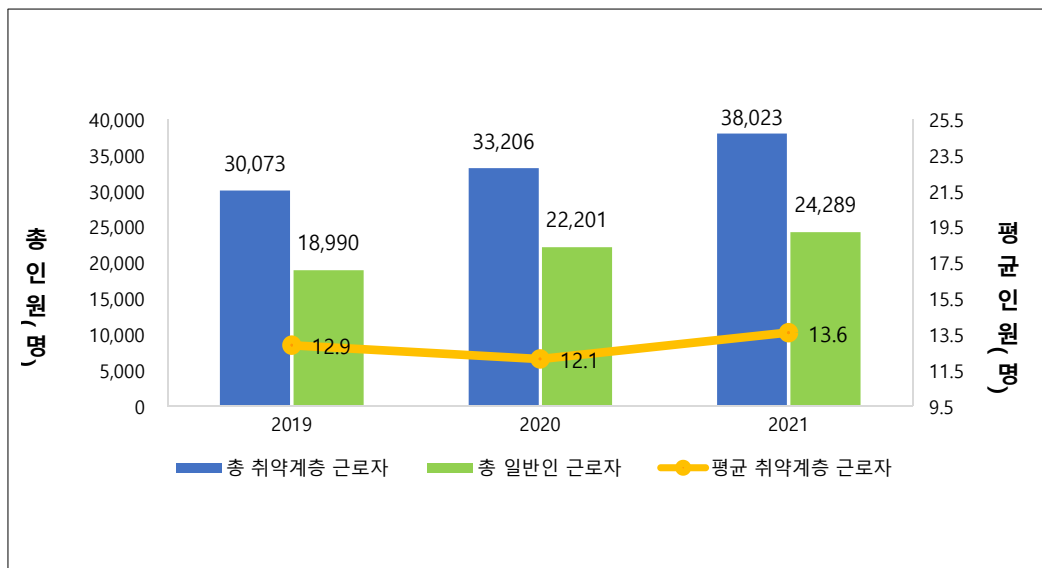
2)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1.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전체 유급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림 3-1]은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에 취업한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 수와 평균 취약계층 근로자 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19~2021년 취약계층 근로자 및 일반인 근로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취약계층 근로자는 38,023명으로 전체 유급근로자 수 62,312명의 6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총 취약계층 근로자는 2020년의 33,206명에 비하여 약 14.5% 증가하였고 총 일반근로자는 24,289명으로 2020년에 비하여 9.4% 증가하였으며 기업당 평균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13.6명으로 2020년 12.1명에 비하여 약 12.4% 증가하였다

[그림 3-1] 연도별 취약계층, 일반인 유급근로자 수 및 평균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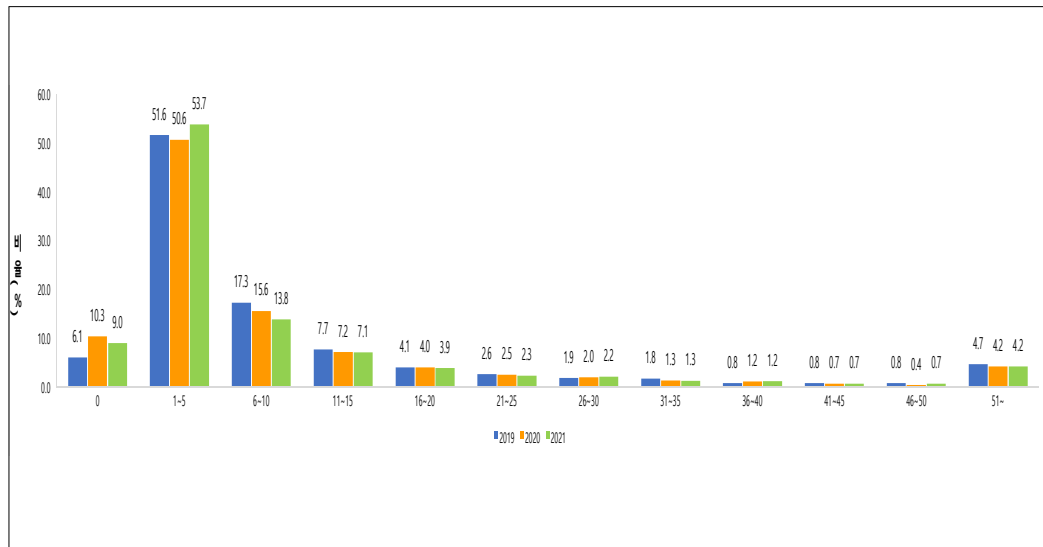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규모별 취약계층 근로자 수를 살펴보면, [그림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취약계층 근로자 10인 이하 채용 기업의 비중이 약 76.5%에 달해 소규모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가 5인 이하인 사회적기업이 약 62.7%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취약계층 근로자를 50인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약 4.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별 사회적기업 비율

(단위: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표 3-1>은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근로자 수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결과이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21년 취약계층 근로자 중 약 41.2%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편중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지역의 경우 사회문제 수요도 크지만, 동시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 또한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근로자 수가 많은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은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역시 약 41.7%로 높게 나타나 사회적기업 내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해당 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지역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및 기초생활 수급자 수

(단위: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수		기초생활 수급자 수	
서울	9,108	17.3	402,632	17.1
부산	1,425	4.6	217,335	9.2
대구	753	3.8	144,092	6.1
인천	2,219	6.3	159,186	6.7
광주	972	4.2	91,548	3.9
대전	991	2.7	72,908	3.1
울산	938	3.3	38,575	1.6
세종	817	0.8	7,880	0.3
경기	10,138	17.6	422,615	17.9
강원	1,930	5.6	84,114	3.6
충북	1,174	4.2	76,619	3.2
충남	1,030	4.0	84,802	3.6
전북	1,521	5.9	125,438	5.3
전남	916	5.2	101,475	4.3
경북	1,716	6.9	141,175	6.0
경남	1,648	5.0	156,832	6.6
제주	727	2.6	32,446	1.4
전체	380,23	100.0	2,359,672	100.0

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재구성.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보건복지부(2021b).

<표 3-2>와 [그림 3-3]은 사회적기업 인증연도별로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취약계층 고용규모의 경우 전체 고용 규모는 매년 증가하였고, 고용 평균은 2020년 소폭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2021년 기준으로 살펴볼 때, 2009년 인증기업의 평균 취약계층 고용인원이 37.4명으로 가장 높았고 2007년 30.5명, 2008년 26.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인증연도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총유급 근로자	평균 유급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 유급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 유급근로자
2007	1,314	38.6	967	27.6	975	30.5
2008	1,959	19.0	2,074	20.5	2,187	26.3
2009	1,747	32.4	1,591	30.6	1,496	37.4
2010	2,270	17.1	2,315	17.5	2,257	21.7
2011	1,992	19.3	1,632	15.8	1,607	18.7
2012	1,329	11.7	1,183	10.6	1,330	14.3
2013	2,709	13.8	2,585	13.1	2,816	16.6
2014	2,920	14.5	2,894	14.4	2,847	16.0
2015	3,324	14.3	3,266	14.2	3,183	16.1
2016	2,436	10.3	2,364	10.3	2,348	12.4
2017	1,900	7.8	1,827	7.7	1,678	8.3
2018	3,154	10.6	3,554	12.1	3,837	15.7
2019	3,019	7.8	3,341	8.6	3,392	10.3
2020	-	-	3,613	8.5	4,386	11.5
2021					3,684	8.1
계	30,073	12.9	33,206	12.1	38,023	13.6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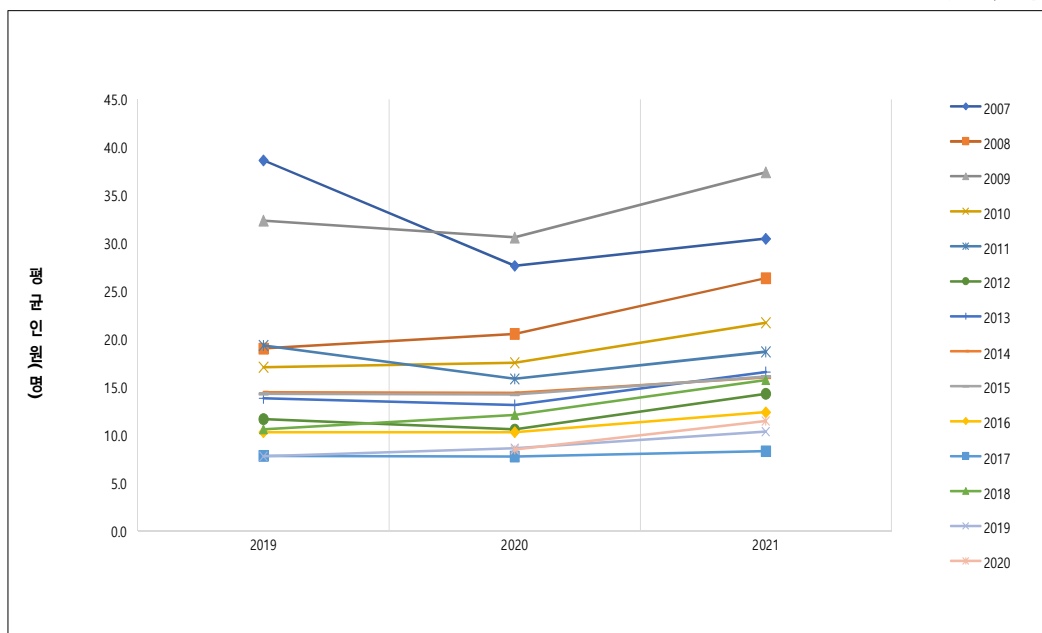
인증연도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인원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의 평균이 급격하게 변화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인증연도가 오래된 기업이 최근 인증 받은 기업에 비해 취약계층 고용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에서 취약계층고용경험이 누적될수록 취약계층 고용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최근 인

증받는 기업의 경우 소규모 기업의 인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인증연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년도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7년, 2008년, 2009년도의 경우 약 6.0%p 증가한 수치가 제시되었으며, 2021년의 전반적인 증가추세는 코로나19의 완화로 인해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3-3] 인증연도별 평균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추이

(단위: 명)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다음으로 <표 3-3>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고용현황을 제시한 결과이다.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수를 보면,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사회서비스제공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2021년 기준으로는 일자리제공형이 평균 15.6명으로 가장 많았고, 혼합형이 평균 15.5명, 사회서비스제공형이 평균 14.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총수를 기준으로 보면, 일자리제공형이 31,03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는 사회서비스제공형과 일자리제공형이 혼합

된 혼합형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유형에 취약계층 고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 고용비율이 각각 30%, 20%로 의무화되어 있고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경우, 고용한 절대적 수는 적지만 매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지역사회공헌형은 취약계층 평균 유급근로자 수가 2021년 3.6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기타(창의·혁신)형은 취약계층 평균 근로자 수가 2021년 4.1명으로 인증유형들 중 두번째로 적고, 총 취약계층 근로자 수도 948명으로 많지 않으나 고용인원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회적기업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공정무역 및 공정여행 사회적기업, 혁신적 문화컨텐츠를 생산하는 기업, 청년 등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을 통한 소셜벤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취약계층 고용에 기여하는 바는 적지만,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발굴,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증진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혁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3-3>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일자리제공형	23,288	14.9	27,114	15.0	31,033	15.6
사회서비스제공형	1,857	13.0	1,946	11.1	2,422	14.7
혼합형	3,493	18.4	2,532	12.9	2,831	15.5
기타(창의·혁신)형	908	3.1	939	2.7	948	4.1
지역사회공헌형	527	3.5	675	3.2	789	3.6
전체	30,073	12.9	33,206	12.1	38,023	13.6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표 3-4>는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고용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먼저 취약계층 평균 유급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이 평균 약 31.0명으로 가장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23.8명), 소비자생활 협동조합(16.5명), 일반/사회적협동조합(15.8명) 순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유급근로자를 가

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조직형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상법상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현재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의 약 62.0%인 23,573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취약계층 근로자 수를 2020년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증가한 형태로 확인된다.

<표 3-4>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민법상법인	4,442	14.5	3,991	14.3	4,615	15.0
비영리민간단체	956	8.5	256	3.6	355	6.6
사회복지법인	1,908	30.3	2,180	28.7	2,230	31.0
상법상회사	18,230	12.5	21,258	11.8	23,573	12.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7	9.7	130	13.0	182	16.5
영농조합법인	388	5.3	404	4.1	416	4.6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062	12.9	4,987	12.7	6,557	15.8
기타	-	-	-	-	95	23.8
전체	30,073	12.9	33,206	12.1	38,023	13.6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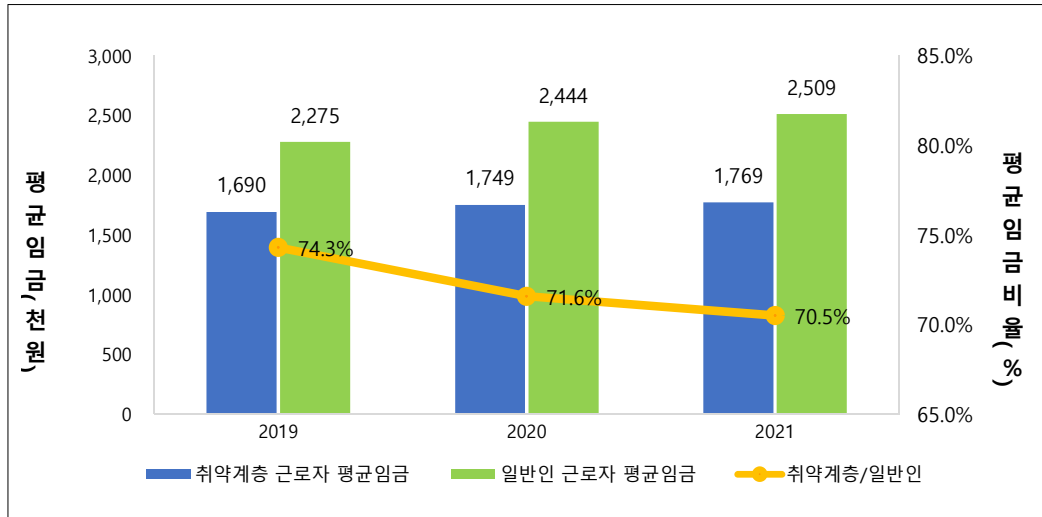
2.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임금 및 근로시간

앞서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성과를 양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임금수준 및 근로시간과 같은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한다면, 이는 개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통합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림 3-4]는 사회적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취약계층과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연도별로 제시한 결과이다. 먼저 2019~2021년 취약계층과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약 251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2.7% 증가한 것에 비해, 2021년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약 177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1% 증가하여 일반인 근로자의 임금상승률보다 소폭 낮은 증가 수준을 보였다.

[그림 3-4] 연도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단위: 천 원,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다음의 <표 3-5>는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평균임금과 임금격차 및 순위를 나타낸 표이다. 취약계층 평균임금은 강원이 228만 3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225만 7천 원), 경기(193만 3천 원), 대전(187만 7천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이 150만 6천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의 경우 경북이 318만 2천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 271만 7천 원, 강원 266만 원, 제주 259만 5천 원 순으로 나타났고 대구가 가장 낮은 200만 4천 원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역에서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취약계층의 평균임금을 상회하고 있으며, 일반인과 취약계층 임금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광주(95만 5천 원)였으며, 그 다음으로 격차가 큰 지역은 경북, 서울, 제주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격차는 2020년 69만 5천 원에서 2021년 74만원으로 악화되었으나, 2019년에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컸었던 제주(2020년 임금격차 86만 1천원)의 경우 2021년 임금격차는 81만 4천원으로 개선된 경우도 있었다.

<표 3-5>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평균임금

(단위: 천 원)

구분	취약계층 평균임금		일반인 평균임금		일반인-취약계층 임금격차	
	금액	순위	금액	순위	금액	순위
서울	1,506	17	2,417	9	911	3
부산	1,552	14	2,125	16	573	11
대구	1,567	13	2,004	17	437	14
인천	1,543	16	2,144	14	601	9
광주	1,548	15	2,504	7	955	1
대전	1,870	4	2,519	6	650	8
울산	1,687	11	2,159	13	472	13
세종	1,571	12	2,162	12	591	10
경기	1,933	3	2,717	2	784	5
강원	2,283	1	2,660	3	376	16
충북	1,797	7	2,538	5	741	6
충남	1,787	8	2,206	11	418	15
전북	1,813	6	2,473	8	660	7
전남	1,838	5	2,394	10	555	12
경북	2,257	2	3,182	1	925	2
경남	1,783	9	2,138	15	355	17
제주	1,781	10	2,595	4	814	4
전체	1,769		2,509		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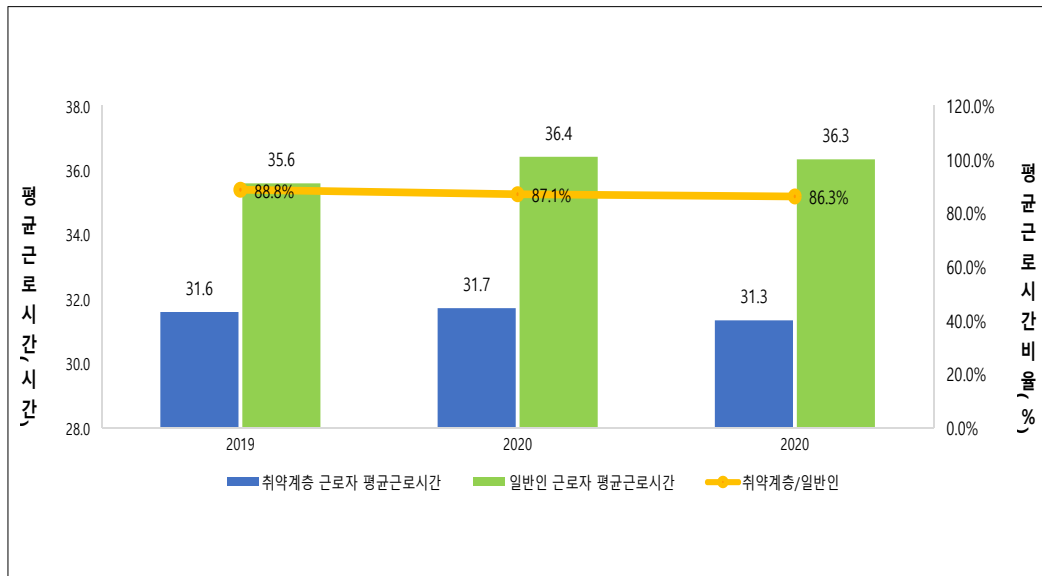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그림 3-5]와 같다. 2021년 취약계층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31.3시간이었으며, 주당 평균 36.3시간을 일하는 일반인 근로자보다 5.0시간가량 적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3년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인 근로자는 2019년 35.6시간에서 2020

년 36.4시간으로 증가하였다가 2021년 36.3시간으로 다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시간 역시 2019년 31.6시간에서 2019년 31.7시간으로 소폭 증가하였다가 2021년 31.3시간으로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살펴보면, 일반인 근로자 대비 취약계층 근로자 근로시간의 비율은 2019년 88.8%, 2020년에는 87.1%, 2021년 86.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5]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자 평균근로시간

(단위: 시간,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다음으로 지역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의 <표 3-6>은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시간 및 순위를 나타낸 표이다. 먼저 취약계층 평균근로시간은 강원에서 36.0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지역이 28.1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평균근로시간은 경북에서 40.1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울산에서 35.1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역에서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인과 취약계층 근로시간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광주(7.5시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격차가 큰 지역은 서울, 제주, 부산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시간

(단위: 시간)

구분	취약계층 평균근로시간		일반인 평균근로시간		일반인-취약계층 근로시간격차	
	시간	순위	시간	순위	시간	순위
서울	28.1	17	35.3	15	7.1	2
부산	30.5	14	36.1	10	5.6	4
대구	30.4	15	35.8	11	5.3	8
인천	31.6	11	36.9	8	5.4	7
광주	29.5	16	37.1	6	7.5	1
대전	35.9	2	37.6	5	1.8	17
울산	32.5	5	35.1	17	2.6	15
세종	32.2	6	35.3	14	3.1	14
경기	32.0	7	35.6	12	3.6	11
강원	36.0	1	38.5	2	2.5	16
충북	31.7	10	36.6	9	5.0	9
충남	32.0	8	35.4	13	3.4	12
전북	31.6	12	37.0	7	5.4	6
전남	34.3	4	38.0	4	3.8	10
경북	34.6	3	40.1	1	5.5	5
경남	31.9	9	35.2	16	3.3	13
제주	31.3	13	38.1	3	6.8	3
전체	31.3		36.3		5.0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다음으로 취약계층의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살펴본다. 먼저, 취약계층의 평균임금과 평균근로시간을 인증연도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다음의 <표 3-7>과 같다. 2021년의 경우 2015년 인증 기업의 취약계층 평균임금이 약 230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2013년 인증기업의 경우 약 150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평균근로시간의 경우 2015년 인증기업의 취약계층 평균 근로시간이 34.9시간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08년과 2014년 인증기업의 경우 28.7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2021년의 최근 3년 동안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의 평균임금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평균근로시간은 2021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인증연도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단위: 천 원, 시간)

구분	2019		2020		2021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2007	1,753	32.8	1,669	32.3	1,701	31.3
2008	1,476	28.8	1,445	28.9	1,500	28.7
2009	1,494	28.8	1,481	26.9	1,604	29.2
2010	1,882	32.7	1,845	32.9	2,027	33.6
2011	1,709	33.8	1,636	33.4	1,626	32.3
2012	1,605	30.8	1,678	30.9	1,726	30.8
2013	1,400	28.7	1,430	28.9	1,496	28.8
2014	1,528	29.8	1,533	30.0	1,577	28.7
2015	2,176	35.1	2,338	35.3	2,297	34.9
2016	1,692	33.2	1,716	32.5	1,726	32.0
2017	1,805	33.8	1,887	34.0	1,897	32.5
2018	1,684	31.3	1,713	31.3	1,712	30.5
2019	1,613	30.2	1,649	30.6	1,673	29.9
2020	-	-	2,028	33.9	1,956	33.1
2021					1,728	32.3
계	1,690	31.6	1,749	31.7	1,769	31.3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다음으로 인증유형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 3-8>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평균근로시간을 인증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지역사회공헌형에서 207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창의·혁신)형(193만 7천 원), 일자리제공형(180만 원), 사회서비스제공형(152만 5천 원), 혼합형(149만 9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근로시간은 지역사회공헌형(36.2시간), 기타(창의·혁신)형(32.7시간), 일자리제공형(31.9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2021년의 최근 3년 동안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의 평균임금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평균근로시간은 2021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단위: 천 원, 시간)

구분	2019		2020		2021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일자리제공형	1,732	32.3	1,789	32.2	1,800	31.9
사회서비스제공형	1,496	26.5	1,471	28.0	1,525	27.6
혼합형	1,448	28.1	1,419	27.2	1,499	27.0
기타(창의·혁신)형	1,857	33.6	1,869	32.8	1,937	32.7
지역사회공헌형	1,868	36.1	2,008	36.8	2,070	36.2
전체	1,690	31.6	1,749	31.7	1,769	31.3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마지막으로 <표 3-9>의 조직형태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의 연도별 평균임금과 평균근로시간을 살펴본다. 2021년 기준으로는 영농조합법인의 평균임금이 210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법상회사(192만 9천 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158만 7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근로시간의 경우 2020년 36.7시간으로 가장 길었던 영농조합법인이 2021년에도 37.3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20.9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2021년의 최근 3년 동안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의 평균임금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평균근로시간은 2021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단위: 천 원, 시간)

구분	2019		2020		2021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민법상법인	1,546	30.6	1,454	29.4	1,472	29.0
비영리민간단체	1,318	28.6	1,374	26.7	1,367	25.6
사회복지법인	1,256	30.3	1,208	29.9	1,369	30.4
상법상회사	1,826	32.5	1,916	32.8	1,929	32.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368	29.6	1,621	33.2	1,587	31.8
영농조합법인	1,863	37.2	1,948	36.7	2,100	37.3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522	29.0	1,520	29.7	1,553	29.2
기타	-	-	-	-	1,202	20.9
전체	1,690	31.6	1,749	31.7	1,769	31.3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제2절 사회서비스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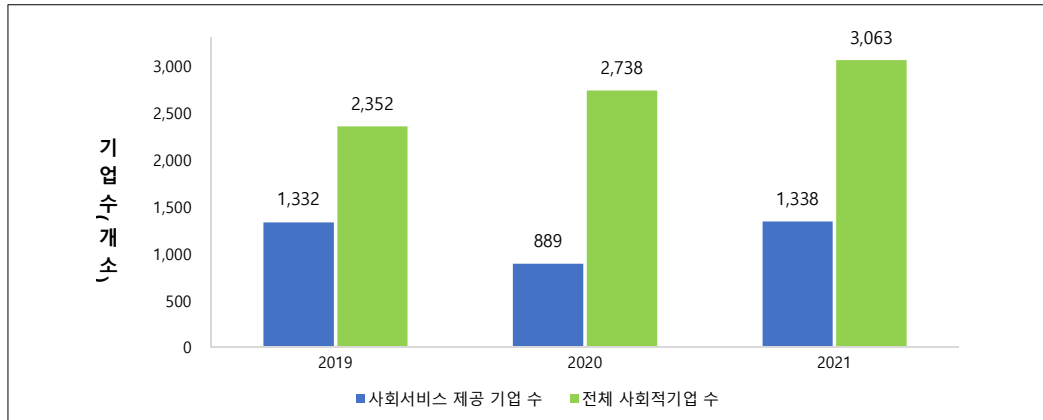
제2절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명 역시 갖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3조에서 정의하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보육, 예술·관광 및 운동, 산림 보전, 간병·가사, 문화재보존,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서비스, 고용서비스 등을 말한다. 사업보고서의 사회서비스제공은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 사회서비스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지고 있어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본 절에서는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주요 사회적기업에 초점을 맞추기 전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볼 것이다. 다음 [그림 3-6]에는 최근 3년간의 전체 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를 제시하였다. 2021년의 사회서비스제공 사회적기업은 1,338개소로, 2020년 889개소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1년에 전체 사회적 기업 대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비율은 2019년 56.6%에서 2020년 32.5% 감소하였으나, 2021년 43.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밝힌 것처럼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외에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의 작성 의무가 없어서 보고 실적에서 누락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추정된다.

[그림 3-6] 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및 사회적기업의 수 : 전체 사회적기업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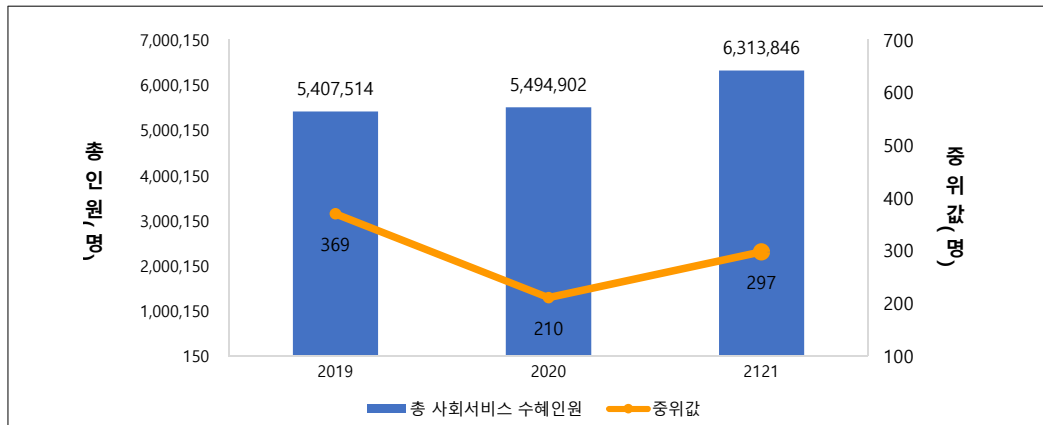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다음 [그림 3-7]은 최근 3년간의 전체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총 수혜인원 수 및 중위값을 제시한 것이다. 2021년의 사회서비스 총 수혜인원은 약 631만 명으로 2019~2020년의 약 541만~약 549만 명 수준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의 중위값은 2019년 369명에서 2020년 210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297명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총 수혜인원의 기업 간 격차가 커진다고 보다는, 앞서 설명한대로 실적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많은 상위 몇 개 기업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되는 결과로 추정된다.

[그림 3-7] 연도별 사회서비스 총 수혜인원 및 중위값 : 전체 사회적기업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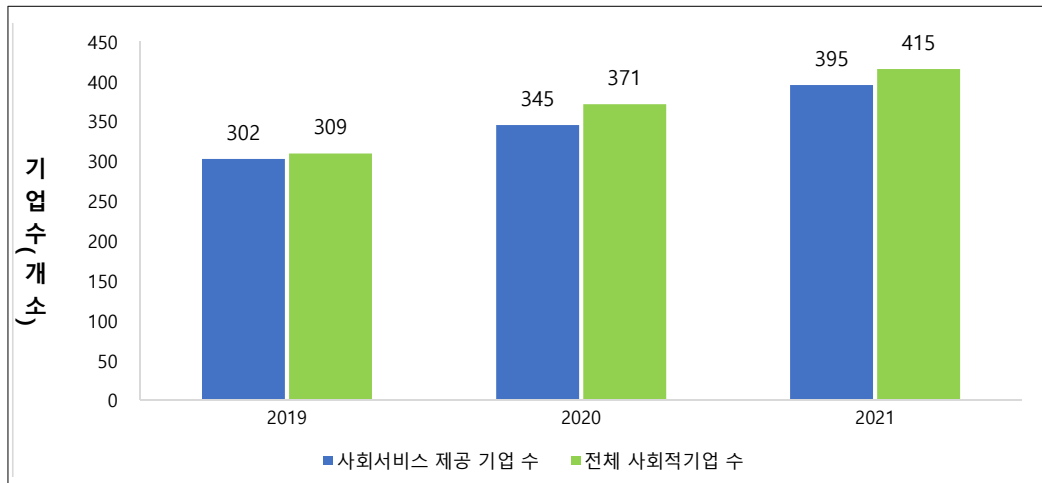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 전체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이하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에 대한 작성 의무가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3-8]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2019년 302개소에서 2020년 345개소, 2021년 395개소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사회서비스 실적 제공 의무가 있는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사회적기업의 약 90.0% 이상(2019년 97.7%, 2020년 93.0%, 2021년 95.2%)의 대부분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8] 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주: 전체 사회적기업의 수는 사회서비스제공보고가 의무화된 사회서비스형, 혼합형만 포함.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다음의 <표 3-10>은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 및 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서울의 경우 총 395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17.7%인 70개의 기업이, 경기에서는 16.2%인 64개 기업이, 인천은 5.1%인 20개 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합하면 395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중 39.0%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세종의 경우 0.3%인 1개의 기업만이, 제주의 경우 2.0%인 8개 기업에서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구와 충남의 경우는 각 2.5%, 2.8%인 10개, 11개 기업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는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표 3-10>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 및 비율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

구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비율	
	기업 수	비율	순위	비율	순위
서울	70	17.7	1	13.2	9
부산	28	7.1	4	19.7	1
대구	10	2.5	15	8.7	15
인천	20	5.1	8	10.3	11
광주	21	5.3	7	16.3	5
대전	14	3.5	13	16.7	4
울산	18	4.6	10	17.8	2
세종	1	0.3	17	4.3	17
경기	64	16.2	2	11.9	10
강원	24	6.1	5	14.0	8
충북	20	5.1	8	15.5	6
충남	11	2.8	14	9.0	14
전북	31	7.8	3	17.2	3
전남	24	6.1	5	15.1	7
경북	16	4.1	11	7.6	16
경남	15	3.8	12	9.8	13
제주	8	2.0	16	10.0	12
전체	395	100.0	-	12.9	-

주: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비율은 전체 지역별 사회적기업 대비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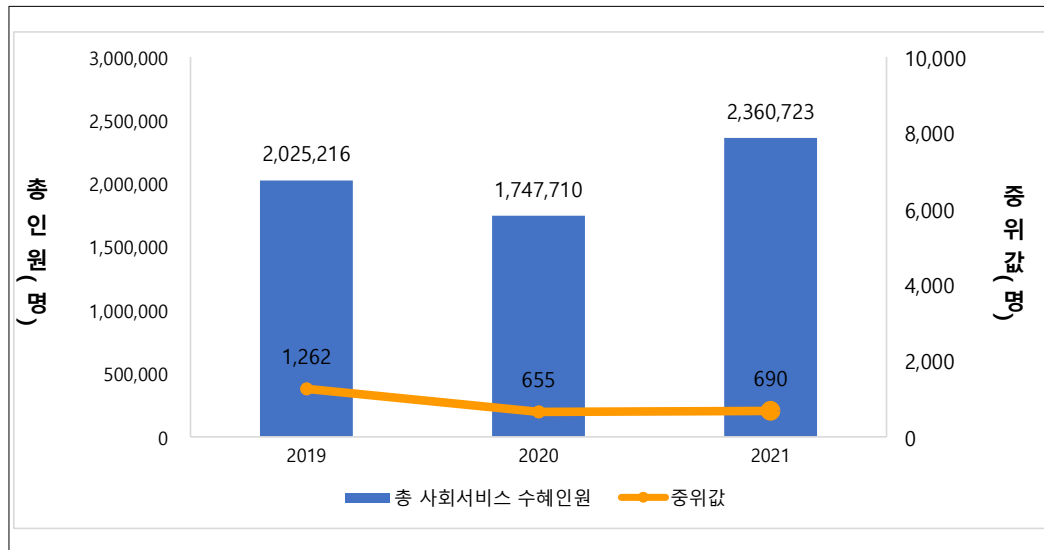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또한 전체 지역별 사회적기업 대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비율 순위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부산, 울산, 전북의 경우 지역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의 수 대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의 비율이 각각 19.7%, 17.8%, 17.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의 수가 양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나 이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향후 전체 사회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 현황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에 대하여 알아본다. 먼저 사회서비스 [그림 3-9]는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추이를 보여준다. 사회서비스 총 수혜인원은 2019년 약 202만 5천 명에서 2020년 약 174만 8천 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약 236만 명으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중위값 또한 2019년 1,262명에서 2020년 655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가 2021년 690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견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의 큰 변동이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의 변동에 대한 해석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많은 사회적기업에서 수혜자를 중복 계산하거나, 일반 대중을 위한 공연 등과 같이 수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어 개략적인 인원수를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 과다 또는 과소보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자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향후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3-9] 연도별 사회서비스 총 수혜인원 및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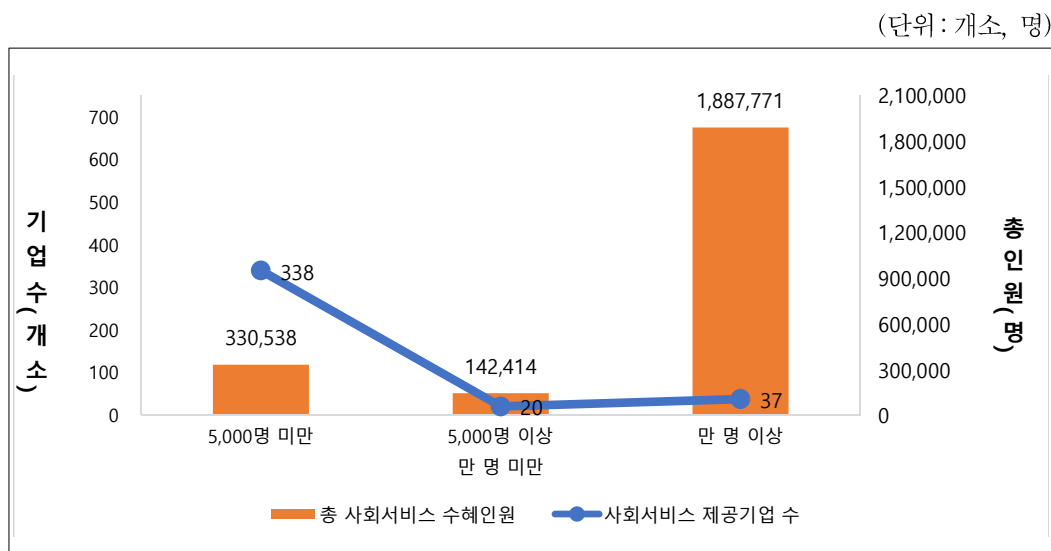
(단위: 명)



주: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다음은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규모별 서비스제공기업과 수혜인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림 3-10]은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규모별 사회적기업의 수와 총 수혜인원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2021년 5천 명 미만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338개소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85.6%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혜인원은 전체 수혜인원의 1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 명 이상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37개소로 9.4%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혜인원의 약 80.0% 정도가 만 명 이상 제공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일반 대중을 위한 공연 등과 같이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수의 사회적기업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추정된다.

[그림 3-10]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규모별 제공기업 수 및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주: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사회적기업이 제공한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을 지역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표 3-11>과 같다.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은 전체 수혜인원의 20.8%가 속한 경기도가 약 49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서울 지역으로 전체 수혜인원의 18.2%인 약 43만 명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은 전체 수혜인원의 0.1%인 약 1천4백 명으로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이 나타났으며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이 적은 지역은 제주(약 6천8백 명)와 경남(약

1만 명), 충북(약 2만 7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의 총인구가 사회서비스 수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 중 일부이기 때문에 지역별 인구수와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수를 비교해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많은 지역에서 지역별 인구수 비율보다 사회서비스 수혜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지역의 경우 지역별 인구수 비율 대비 사회서비스 수혜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및 지역인구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명, %)

구분	사회서비스 수혜자			2022 인구주택총조사		
	인원	비율	순위	인원	비율	순위
서울	428,952	18.2	2	9,472,127	18.3	2
부산	78,983	3.3	11	3,324,335	6.4	3
대구	212,443	9.0	4	2,387,911	4.6	7
인천	42,385	1.8	12	2,957,044	5.7	5
광주	160,304	6.8	6	1,475,262	2.9	14
대전	109,864	4.7	8	1,479,740	2.9	13
울산	279,634	11.8	3	1,120,753	2.2	15
세종	1,448	0.1	17	366,227	0.7	17
경기	491,564	20.8	1	13,652,529	26.4	1
강원	115,868	4.9	7	1,521,890	2.9	12
충북	26,613	1.1	14	1,624,764	3.1	11
충남	93,770	4.0	10	2,175,960	4.2	8
전북	103,984	4.4	9	1,787,053	3.5	9
전남	170,121	7.2	5	1,778,124	3.4	10
경북	28,003	1.2	13	2,635,314	5.1	6
경남	9,995	0.4	15	3,305,931	6.4	4
제주	6,792	0.3	16	673,107	1.3	16
전체	2,360,723	100.0	-	51,738,071	100.0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통계청(2022) 2021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과 수혜인원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살펴본다. 먼저 <표 3-12>는 사회서비스 제공기업과 수혜인원의 중위값을 사회적기업

인증연도별로 구분한 결과이다. 2021년의 경우, 사회서비스를 가장 많이 제공한 기업은 2021년 인증기업이 61개소, 2020년 인증기업이 43개소, 2008년 인증기업이 41개소로 가장 많았고, 2019년(37개소)과 2016년(34개소), 2015년(30개소) 인증기업도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으나, 수혜인원 중위값은 2008년이 1,764명으로 가장 높았고, 2007년(1,704명), 2011년(1,616명), 2015년(1,150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대체로 최근에 인증 받은 기업들이 소규모이거나 수혜인원이 적은 형태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2019~2021년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공기업 수는 완만하게 증가 혹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혜인원 중위값은 증감하는 추세로 보인다.

<표 3-12> 인증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명)

구분	2019		2020		2021	
	제공기업	수혜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인원 중위값
2007	13	1,786	13	2,600	14	1,704
2008	44	1,629	41	1,536	41	1,764
2009	17	1,193	16	839	14	995
2010	16	435	15	250	15	288
2011	14	1,272	12	952	10	1,616
2012	16	634	15	270	14	450
2013	25	2,104	21	1,134	22	985
2014	9	1,300	9	339	8	465
2015	34	1,455	31	487	30	1,150
2016	42	1,469	38	539	34	573
2017	27	999	24	795	26	999
2018	28	1,956	27	655	26	720
2019	41	595	40	346	37	570
2020	-	-	43	498	43	540
2021	-	-	-	-	61	601
전체	326	1,262	345	655	395	690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표 3-13>은 사회서비스 제공기업과 수혜인원의 중위값을 사회적기업 인증유형별로 구분해 제시한 것이다. 2021년 기준 사회서비스제공형은 212개소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수혜인원 중위값은 880명으로 전체 중위값 690명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혼합형의 경우 183개소의 기업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수혜인원 중위값은 487명으로 전체 중위값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2019~2021년 동안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는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모두 완만하게 증가 혹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혜인원 중위값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3-13> 인증유형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명)

구분	2019		2020		2021	
	제공기업	수혜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인원 중위값
일자리제공형	-	-	-	-	-	-
사회서비스제공형	142	1,692	164	747	212	880
혼합형	184	803	181	556	183	487
기타(창의·혁신)형	-	-	-	-	-	-
지역사회공헌형	-	-	-	-	-	-
전체	326	1,262	345	655	395	690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표 3-14>는 조직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업과 수혜인원을 정리한 것이다. 2021년 기준 상법상회사가 228개소로 가장 많았고, 일반/사회적협동조합(76개), 민법상법인(63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혜인원 중위값은 제공기업이 1개소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제외하면, 사회복지법인이 1,333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사회적협동조합(976명), 민법상법인(935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9~2021년 동안에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인원 중위값은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민법상법인, 일반/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수혜인원 중위값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고, 그 외 비영리민간단체, 상법상회사, 영농/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2020년까지 감소하였다가 2021년 소폭 증가하였다.

<표 3-14>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명)

구분	2019		2020		2021	
	제공기업	수혜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인원 중위값
민법상법인	56	1,982	55	1,526	63	935
비영리민간단체	30	1,039	19	342	20	740
사회복지법인	3	276	6	1,067	4	1,333
상법상회사	182	1,039	200	528	228	53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	6,584	1	6,815	1	6,902
영농조합법인	2	1,145	3	464	3	65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52	1,372	61	1,097	76	976
기타	-	-	-	-	-	-
전체	326	1,262	345	655	395	690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마지막으로 <표 3-15>에는 2019~2021년 기간 동안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와 수혜인원 중위값의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의 기초분석은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각 연도의 모든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분석 연도별로 분석 대상이 달라지며, 사회적기업의 성과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9~2021년 3개년의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자료를 결합하여 시계열 데이터를 구성하고, 3개년 자료에 모두 포함된 2,154개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와 수혜인원 중위값의 추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의 경우 객관적 기준보다는 기업 나름의 임의적 기준으로 성과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의 신뢰성이 다소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3개년 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표 3-1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인원 중위값 추이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명)

구분		2019		2020		2021	
		기업 수	중위값	기업 수	중위값	기업 수	중위값
인증 연도	2007	13	1,786	13	2,600	14	1,704
	2008	43	1,710	41	1,536	41	1,764
	2009	14	1,286	13	528	14	995
	2010	15	478	14	312	15	288
	2011	10	1,272	11	903	10	1,616
	2012	14	356	14	422	14	450
	2013	23	1,901	20	1,126	22	985
	2014	8	1,039	8	370	8	465
	2015	30	1,346	30	487	30	1,150
	2016	38	1,469	36	615	34	573
	2017	25	999	24	795	26	999
	2018	28	1,956	27	655	26	720
	2019	-	-	-	-	37	570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104	1,817	100	989	126	1,286
	혼합형	157	907	151	648	165	500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49	1,920	47	1,572	47	1,353
	비영리민간단체	19	2,160	19	354	20	740
	사회복지법인	4	885	4	932	4	1,333
	상법상회사	149	1,193	141	564	166	51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	-	-	6,902
	영농조합법인	2	1,145	2	494	2	763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8	1,507	38	1,722	51	1,486
	기타	-	-	-	-	-	-
전체		261	1,402	251	728	291	814

주: 2019-2021 세 개 년도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한 2,154개 사회적기업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보고가 의무화된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만 포함함. 중위값은 사회서비스 제공기업만을 대상으로 계산함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는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는

2019년 261개에서 2020년 251개로 감소하였다가, 2021년 291개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수혜인원 중위값 또한 2019년 1,402명에서 2020년 728명으로 감소했고 2021년에는 814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인증연도별로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중위값의 추이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2020~2021년 사이에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중위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을 제외한 모든 인증연도에서 2020~2021년 기간 동안 수혜인원 중위값의 증가가 나타났다. 조직형태별로도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중위값 추이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중위값은 2020년 크게 감소했다가 2021년 소폭 증가한 반면,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의 중위값은 2020년 증가했다가 2021년 다시 감소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은 2020년 증가했다가 2021년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 외 민법상법인, 상법상회사는 2019~2021년 기간 동안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사회서비스가 어떤 대상층에게 주로 제공되었는지 분석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인증유형별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을 규정해두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혼합형은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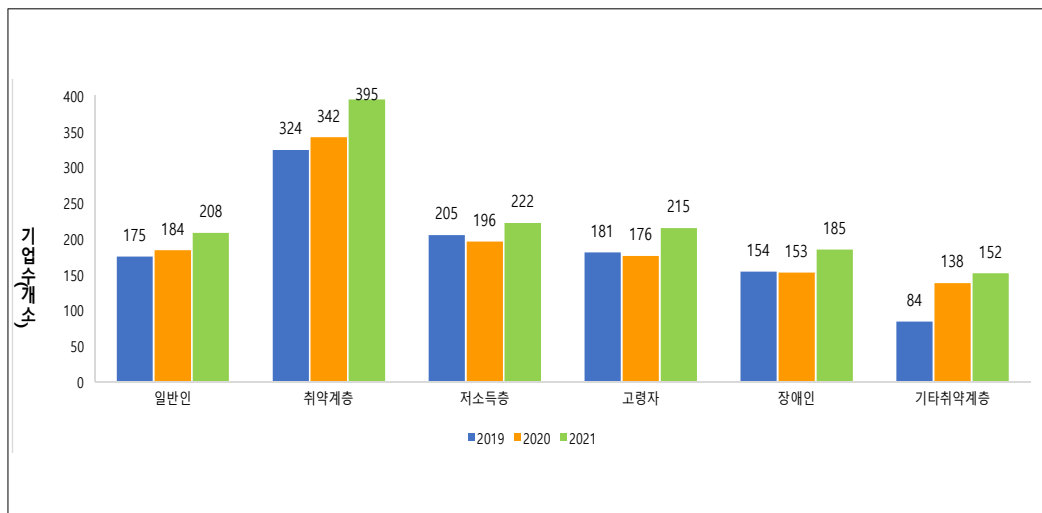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need)가 취약계층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국민, 지역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아닌 이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역시 이들의 욕구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국민들의 복지욕구 및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게 되면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방향으로 갈 것이다.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need)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향후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그림 3-11]은 최근 3년간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로 사회적기업의 수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일반인과 취약계층으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2021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395개소였고, 일반인이 수혜대상인 기업은 208개소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약 2배 정도로 많았다.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 시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수혜비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

반적인 사회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하고,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려는 한국의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우선대상은 그 수요(need)가 더 큰 취약계층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의 수가 2019~2020년에는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는 각각 2020년에는 전년대비 5.1%(9개소)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전년대비 13.0%(24개소) 증가하였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수는 2020년에 전년대비 5.6%(18개소) 증가하였고 2021년에도 15.5%(53개소) 증가하여 기업 수 기준으로는 일반인 대상 제공기업보다 더 큰 증가폭을 보였다.

취약계층은 다시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기타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기타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수가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취약계층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차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으로 저소득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이 222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령자 대상 215개소, 장애인 대상이 185개소, 기타 취약계층 대상이 152개소 순이었다.

[그림 3-11] 연도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표 3-16>은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모든 지역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수가 같거나 더 많아 서비스제공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나타나고 있었다. 2021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의 수는 서울 지역이 각 70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기 지역이 64개소, 전북 지역이 31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역시 경기와 서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서울에 35개소, 경기 지역에 24개소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지역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적기업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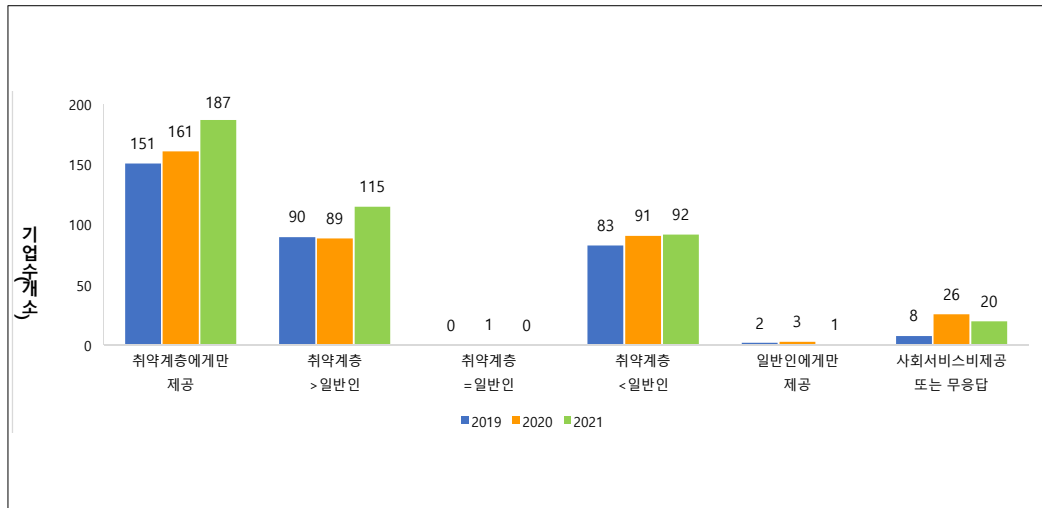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사회적기업의 수	일반인 서비스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사회적	
		기업 수	순위	기업 수	순위
서울	70	35	1	70	1
부산	28	22	3	28	4
대구	10	6	13	10	15
인천	20	5	15	20	8
광주	21	18	4	21	7
대전	14	8	10	14	12
울산	18	18	4	18	10
세종	1	0	17	1	17
경기	64	24	2	64	2
강원	24	11	8	24	5
충북	20	9	9	20	8
충남	11	8	10	11	14
전북	31	14	7	31	3
전남	24	15	6	24	5
경북	16	6	13	16	11
경남	15	2	16	14	12
제주	8	7	12	8	16
전체	395	208	-	394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그림 3-12]는 일반인과 취약계층 중 누구를 대상으로 더 많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취약계층에게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187개소), 취약계층에게 주로 제공하는 곳(115개소)이 최근 3년간 증가 또는 유지하는 추세로 나타나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187개소)은 일반인에게만 제공하는 곳(1개소)보다 월등히 많게 나타났고, 또한 일반인에게 주로 제공하는 곳(92개소)이 전년대비 1.1%(1개소) 증가한 것으로 보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추세임이 나타났다.

[그림 3-12] 연도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표 3-17>은 일반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기업과 취약계층에게 중심으로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지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나타낸 것이다. 앞에서 제시된 결과들과 유사하게 부산,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일반인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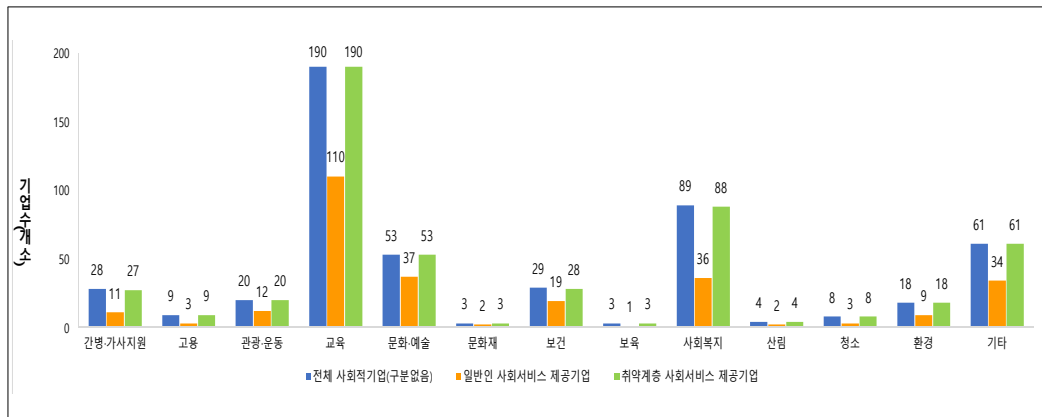
<표 3-17> 지역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구분	취약계층에 더 많이 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만 제공 포함)	일반인에 더 많이 사회서비스 제공(일반인만 제공 포함)
서울	55	15
부산	10	18
대구	8	2
인천	17	3
광주	17	4
대전	11	3
울산	8	10
세종	1	0
경기	59	5
강원	18	6
충북	17	3
충남	6	5
전북	26	5
전남	19	5
경북	12	4
경남	13	2
제주	5	3
전체	302	93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그림 3-13]과 [그림 3-14]는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일반인에게(혹은 위주로), 취약계층에게(혹은 위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치를 분류·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유형은 교육(190개소), 사회복지(89개소) 기타(61개소), 문화·예술(53개소), 보건(29개소), 간병·가사지원(28개소) 순이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 역시 전체적 분포와 거의 동일하게 교육(190개소), 사회복지(88개소), 기타(61개소), 문화·예술(53개소), 간병·가사지원(27개소), 보건(28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는 교육(110개소), 문화·예술(37개소), 사회복지(36개소), 기타(34개소), 보건(19개소), 문화(3개소), 환경(9개소), 산림(2개소), 청소(3개소), 관광·운동(12개소), 고용(3개소)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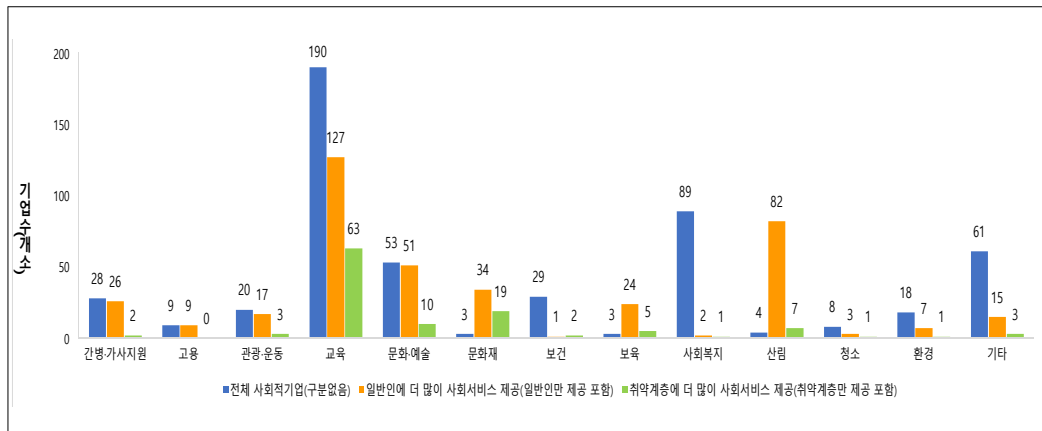
[그림 3-13] 사회서비스 유형 및 수혜대상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그림 3-14]를 보면,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로는 교육이 63개소로 가장 많았고, 문화재가 19개소, 문화·예술이 10개소, 산림이 7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는 교육이 127개소로 가장 많았고, 산림이 82개소, 문화·예술이 51개소로 그 뒤를 이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유형 모두에서 교육이나 문화·예술과 같은 대인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기업의 비중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재, 보육 분야도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그림 3-14] 사회서비스 유형 및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마지막으로 <표 3-18>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에 따른 사회 서비스 수혜대상별 사회적기업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각 셀의 값은 '일반인 대상 서비스 제공기업 수/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기업 수'의 비율(%)이므로 100%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100%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일반인 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먼저, 인증연도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100.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인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의 경우 전년대비 비율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혹은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증유형별로 살펴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이 일반인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인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비율이 각각 약 50%와 약 30% 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나 큰 차이가 없었다. 조직형태별로 살펴보면, 제공기업 수가 1개 기업뿐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제외하면 조직형태와 상관없이 대체로 모든 유형에서 100% 미만의 비율이 나타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8>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일반인/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기업 비율 :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일반인제공/ 취약계층제공	일반인에 더 많이 제공/ 취약계층에 더 많이 제공	일반인제공/ 취약계층제공	일반인에 더 많이 제공/ 취약계층에 더 많이 제공	일반인제공/ 취약계층제공	일반인에 더 많이 제공/ 취약계층에 더 많이 제공
인증 연도	2007	30.8	8.3	38.5	8.3	42.9	7.7
	2008	30.2	7.3	24.4	2.5	34.1	5.1
	2009	47.1	6.3	37.5	0.0	50.0	7.7
	2010	56.3	45.5	53.3	15.4	60.0	25.0
	2011	69.2	55.6	58.3	71.4	60.0	11.1
	2012	62.5	33.3	73.3	66.7	57.1	40.0
	2013	72.0	78.6	65.0	75.0	61.9	83.3
	2014	55.6	50.0	33.3	33.3	50.0	60.0
	2015	67.6	88.9	61.3	63.2	53.3	50.0
	2016	47.6	40.0	55.3	26.7	38.2	21.4
	2017	51.9	42.1	62.5	100.0	57.7	52.9
	2018	60.7	21.7	61.5	68.8	65.4	62.5
	2019	61.0	36.7	57.5	37.9	59.5	37.0
	2020	-	-	64.3	48.3	48.8	26.5
	2021	-	-	-	-	60.7	29.8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57.7	35.2	57.7	34.4	53.3	30.1
	혼합형	51.1	35.3	50.3	40.6	52.2	31.7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53.6	40.0	56.4	48.6	65.1	53.7
	비영리민간단체	56.7	42.9	52.6	26.7	55.0	25.0
	사회복지법인	0.0	0.0	0.0	0.0	0.0	0.0
	상법상회사	50.0	34.8	50.0	36.3	49.8	3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0.0	0.0	100.0	0.0	100.0	0.0
	영농조합법인	50.0	0.0	150.0	50.0	33.3	50.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69.2	33.3	65.6	41.9	53.9	18.8
	기타	-	-	-	-	-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표 부가분석 3-1>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사회서비스 수혜자의 총 인원을 함께 정리하여 보고한 것이다.

<표 부가분석 3-2>는 지역과 표준산업분류별로 사회서비스 수혜자의 총 인원을 살펴본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2,360,723명 중, 교육 서비스업 분야의 수혜자 비중이 33.4%(789,22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5%, 720,392명), 제조업(15.6%, 368,403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6%, 226,315명)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중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 1,716,054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3.4%(573,940명)로 가장 높았고, 교육 서비스업이 (22.8%, 391,972명) 제조업(19.5%, 334,019명), 순서로 높았다.

반면 일반인 수혜자 644,669명의 분포 비중은 교육 서비스업(61.6%, 397,251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2.7%, 146,452명), 제조업(5.3%, 34,384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4.3%, 27,729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산업분류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교육 서비스업 분야 수혜자 비중이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2021년의 코로나19의 완화로 인하여 교육 서비스업 분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서비스 수혜자 총 인원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19, 2020, 2021)

<표 부가분석 3-1> 사회서비스 수혜자 총 인원(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단위: 명)

항목		2019	2020	2021	
전체 서비스 수혜자	전체인원		2,025,216	1,747,710	2,360,723
	인증 연도	2007	122,591	132,778	177,057
		2008	638,622	804,372	678,036
		2009	97,747	91,994	80,643
		2010	30,322	16,227	18,453
		2011	44,818	23,730	84,886
		2012	254,787	160,219	224,775
		2013	208,173	88,447	113,904
		2014	62,263	40,841	66,555
		2015	153,649	57,492	114,533
		2016	133,161	61,672	117,630
		2017	86,784	66,523	256,694
		2018	129,212	91,798	149,220
		2019	63,087	52,692	43,470
		2020	-	58,925	96,344
		2021	-	-	138,523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	-	-
		사회서비스제공형	1,097,214	826,405	1,359,707
		혼합형	928,002	921,305	1,001,016
		기타(창의·혁신)형	-	-	-
		지역사회공헌형	-	-	-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604,246	313,815	657,786
		비영리민간단체	80,660	26,819	66,183
		사회복지법인	1,873	12,805	5,610
		상법상회사	919,775	912,224	908,67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584	6,815	6,902
		영농조합법인	2,289	1,452	2,175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09,789	473,780	713,396
		기타	-	-	-

항목			2019	2020	2021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	전체인원		1,420,540	1,363,474	1,716,054
	인증 연도	2007	78,724	105,530	137,734
		2008	538,091	730,256	546,282
		2009	92,474	87,111	76,135
		2010	23,548	14,670	14,120
		2011	18,998	13,722	73,909
		2012	197,210	129,976	157,915
		2013	91,917	37,235	45,327
		2014	19,653	11,837	18,350
		2015	55,084	29,876	66,689
		2016	111,112	49,021	105,010
		2017	49,364	22,155	200,270
		2018	104,895	62,015	76,628
		2019	39,470	29,725	31,016
		2020	-	40,345	63,424
		2021	-	-	103,245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	-	-
		사회서비스제공형	747,810	625,228	968,701
		혼합형	672,730	738,246	747,353
		기타(창의·혁신)형	-	-	-
		지역사회공헌형	-	-	-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300,987	175,693	335,595
		비영리민간단체	49,643	21,433	45,846
		사회복지법인	1,873	12,805	5,610
		상법상회사	809,016	810,795	796,98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418	3,612	3,582
		영농조합법인	1,938	690	1,273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53,665	338,446	527,161
		기타	-	-	-
일반인 서비스 수혜자	전체인원		604,676	384,236	644,669
	인증 연도	2007	43,867	27,248	39,323
		2008	100,531	74,116	131,754
		2009	5,273	4,883	4,508
		2010	6,774	1,557	4,333
		2011	25,820	10,008	10,977
		2012	57,577	30,243	66,860
		2013	116,256	51,212	68,577

항목			2019	2020	2021
일반인 서비스 수혜자	인증 연도	2014	42,610	29,004	48,205
		2015	98,565	27,616	47,844
		2016	22,049	12,651	12,620
		2017	37,420	44,368	56,424
		2018	24,317	29,783	72,592
		2019	23,617	22,967	12,454
		2020	-	18,580	32,920
		2021	-	-	35,278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	-	-
		사회서비스제공형	349,404	201,177	391,006
		혼합형	255,272	183,059	253,663
		기타(창의·혁신)형	-	-	-
		지역사회공헌형	-	-	-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303,259	138,122	322,191
		비영리민간단체	31,017	5,386	20,337
		사회복지법인	-	-	-
		상법상회사	110,759	101,429	111,68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166	3,203	3,320
		영농조합법인	351	762	90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56,124	135,334	186,235
		기타	-	-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 지역 및 표준산업분류별 분석(2021)

<표 부가분석 3-2> 사회서비스 수혜자 총 인원(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지역, 표준산업분류별)

(단위: 명)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28,952	78,983	212,443	42,385	160,304	109,864	279,634	1,448	491,564	115,868	26,613	93,770	103,984	170,121	28,003	9,995	6,792
전체 서비스 수혜자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운수업(H)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4,135	789,223	10,504	130,409	720,392	23,699	1	226,315	5,323	8,370	368,403	72,683	1,266	-	-	-	-
		365,973	41,589	100,167	39,104	157,369	70,781	149,599	1,448	363,288	94,868	23,276	29,641	89,996	160,962	17,142	8,348	2,503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운수업(H)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3,586	391,972	6,115	121,591	573,940	7,700	1	198,586	4,722	4,548	334,019	68,022	1,252	-	-	-	-
		62,979	37,394	112,276	3,281	2,935	39,083	130,035		128,276	21,000	3,337	64,129	13,988	9,159	10,861	1,647	4,289
일반인 서비스 수혜자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운수업(H)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549	397,251	4,389	8,818	146,452	15,999		27,729	601	3,822	34,384	4,661	14	-	-	-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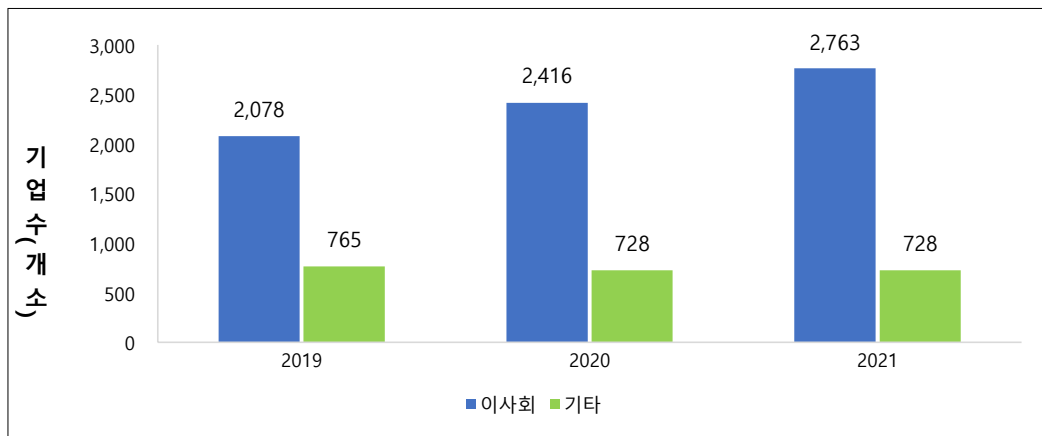
제3절 사회적기업 의사결정구조

다음으로 인증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구조를 확인해 보았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확인해 보면, 인증 요건 중 하나가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이에 사업보고서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와 추가적인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고 있다.

먼저 [그림 3-15]는 2019~2021년 사회적기업이 활용한 의사결정구조의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의사결정과 관련한 회의체에는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이 있으나, 2019~2021년 공통적으로 절반 이상 이사회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그 이유로는 이사회 운영이 가능한 법인 형태의 경우 이사회만을 인정하는 등의 제도적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사회와 기타(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로 분류하여 최근 3년간 의사결정기구 활용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다음 [그림 3-15]와 같다. 이사회를 활용한 기업은 2019년 2,078개소, 2020년 2,416개소, 2021년 2,763개소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외 기타 회의체는 2019년 765개소, 2020년 728개소, 2021년 728개소로 감소 후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5] 연도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 수

(단위: 개소)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표 3-19> 지역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 수와 평균 개최 건수

(단위: 회, 개소)

지역	구분	이사회	기타
서울	평균	2.9	2.5
	기업 수	473	146
부산	평균	3.0	3.2
	기업 수	123	20
대구	평균	3.2	3.0
	기업 수	97	18
인천	평균	2.8	2.4
	기업 수	173	54
광주	평균	2.7	2.2
	기업 수	124	34
대전	평균	3.5	3.5
	기업 수	76	47
울산	평균	2.6	3.1
	기업 수	83	11
세종	평균	3.0	1.5
	기업 수	22	6
경기	평균	3.3	3.3
	기업 수	496	98
강원	평균	3.0	2.3
	기업 수	144	46
충북	평균	2.7	3.4
	기업 수	120	12
충남	평균	2.9	2.0
	기업 수	114	69
전북	평균	3.2	2.3
	기업 수	172	74
전남	평균	3.1	2.3
	기업 수	149	29
경북	평균	2.9	3.1
	기업 수	192	31
경남	평균	2.9	3.8
	기업 수	137	16
제주	평균	3.0	2.4
	기업 수	68	17
계	평균	3.0	2.7
	기업 수	2,763	728

주: 항목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오기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표 3-19>는 의사결정기구 활용 평균 개최 건수를 지역별로 구분해 본 표이다. 먼저, 전체적으로 볼 때 이사회 개최 건수의 평균은 연간 3.0회 정도로 나타났으며, 기타 회의체(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 개최 건수 평균도 연간 2.7회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사회 개최는 지역별로는 대전 지역이 평균 3.5회로 가장 많았고, 울산 지역이 평균 2.6회로 가장 적어 지역별 편차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기타 회의체 개최 건수는 경남이 평균 3.8회로 가장 많고 세종이 평균 1.5회로 가장 적어 상대적으로 지역별 편차가 다소 나타났다.

<표 3-20>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의사결정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단위: 개소, 회)

구분		이사회		기타	
		기업 수	평균 개최	기업 수	평균 개최
인증 연도	2007	23	3.8	19	4.1
	2008	72	3.6	44	3.1
	2009	36	3.0	22	2.5
	2010	89	2.7	54	2.9
	2011	67	3.0	47	3.1
	2012	88	3.5	40	3.0
	2013	155	3.0	59	2.4
	2014	157	3.2	58	2.2
	2015	205	3.0	48	2.1
	2016	207	3.2	49	2.2
	2017	209	3.1	47	2.4
	2018	262	3.2	40	2.4
	2019	339	3.0	56	2.0
	2020	389	2.8	66	2.8
	2021	465	2.7	79	3.4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844	2.9	438	2.6
	사회서비스제공형	203	3.2	48	3.5
	혼합형	167	3.1	68	2.7
	기타(창의·혁신)형	327	3.0	101	2.2
	지역사회공헌형	222	3.3	73	2.9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292	2.8	113	2.4
	비영리민간단체	37	2.5	47	3.0
	사회복지법인	21	3.4	67	3.7
	상법상회사	1,906	2.9	236	2.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	5.1	8	2.6
	영농조합법인	92	3.6	17	1.8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01	3.6	240	2.8
	기타	4	2.8	-	-
계		2,763	3.0	728	2.7

주: 항목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오기응답 기업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마지막으로 이사회와 기타 회의체의 평균 개최 건수를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위의 <표 3-2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인증연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사회의 경우 인증연도별로 큰 차이 없이 평균 3.0회 내외에서 개최하고 있으나, 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의 기타 회의체는 2019년 인증기업 2.0회부터 2007년 인증기업 약 4.1회로 편차가 다소 나타났다.

인증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사회는 지역사회공헌형에서 평균 3.3회로 상대적으로 많이 개최하고 있으며, 기타 회의체는 사회서비스제공형에서 3.5회로 가장 많이 개최하였다. 조직형태를 기준으로 기업 수가 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제외하면 대체로 이사회 평균 개최 건수의 편차가 적었고, 기타 회의체의 경우에도 평균 개최 건수의 편차는 크지 않았다.

<표 3-21>과 <표 3-22>에는 2019~2021년 기간 동안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이사회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기타 회의체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의 추이가 각각 제시되어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응답 역시 기업별로 임의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19~2021년 세 개 년도 사업보고서 원자료에 모두 포함된 동일한 기업군을 대상으로 변화 추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표 3-21>에 따르면, 2019~2021년 3개년 자료에 모두 포함된 2,154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이사회를 활용하는 기업의 수는 2019년 1,575개, 2020년 1,561개, 2021년 1,909개로 2021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회의 개최 건수는 2019년 3.3회에서 2020년 3.2회로 감소하였고, 2021년 3.1회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도 대체로 전체 추이와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

기타 회의체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를 제시한 <표 3-22>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627개의 기업이 기타 회의체를 활용하였는데 2020년에는 561개로 감소하였고, 2021년의 경우도 583개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균 개최 건수 역시 2019년 2.8회에서 2020년 2.7회로 감소하였고, 2021년의 경우에도 2.5회로 감소하였다.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역시 대체로 전체 추이와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데, 조직형태 중 영농조합법인에서 기타 회의체를 활용하는 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다.

<표 3-2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이사회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추이

(단위: 개소, 회)

구분		2019		2020		2021	
		기업 수	평균 개최	기업 수	평균 개최	기업 수	평균 개최
인증연도	2007	26	3.7	23	3.6	23	3.8
	2008	74	3.6	72	3.4	72	3.6
	2009	34	3.1	37	2.8	36	3.0
	2010	95	3.0	95	2.8	89	2.7
	2011	67	3.2	67	2.9	67	3.0
	2012	87	3.4	88	3.6	88	3.5
	2013	150	3.2	152	3.1	155	3.0
	2014	155	3.0	149	3.1	157	3.2
	2015	208	3.2	204	3.2	205	3.0
	2016	209	3.5	207	3.3	207	3.2
	2017	204	3.3	205	3.2	209	3.1
	2018	266	3.6	262	3.3	262	3.2
	2019	-	-	-	-	339	3.0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052	3.2	1,035	3.1	1,268	3.0
	사회서비스제공형	98	3.8	99	3.5	121	3.4
	혼합형	145	3.5	142	3.3	151	3.2
	기타(창의·혁신)형	183	3.1	191	3.1	243	3.1
	지역사회공헌형	97	4.0	94	3.7	126	3.6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172	3.1	173	2.9	189	2.9
	비영리민간단체	34	2.5	33	2.4	32	2.6
	사회복지법인	21	3.5	20	3.4	20	3.5
	상법상회사	1,091	3.2	1,082	3.1	1,331	3.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4	6.0	4	3.8	8	4.6
	영농조합법인	66	4.0	63	4.1	72	3.9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187	4.2	186	4.1	257	3.8
	기타	-	-	-	-	-	-
전체		1,575	3.3	1,561	3.2	1,909	3.1

주: 평균 개최 건수는 이사회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계산.

2018, 2019, 2020 세 개 년도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한 2,154개 사회적기업 대상.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표 3-22>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기타 형태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시계열 추이
(단위: 개소, 회)

구분		2019		2020		2021	
		기업 수	평균 개최	기업 수	평균 개최	기업 수	평균 개최
인증연도	2007	19	4.5	18	3.5	19	4.1
	2008	48	2.8	42	3.0	44	3.1
	2009	28	2.5	20	2.6	22	2.5
	2010	61	3.2	58	3.2	54	2.9
	2011	54	3.1	50	3.1	47	3.1
	2012	49	3.7	44	3.5	40	3.0
	2013	74	2.4	67	2.3	59	2.4
	2014	77	2.5	65	2.5	58	2.2
	2015	59	2.1	47	2.0	48	2.1
	2016	60	2.4	56	2.3	49	2.2
	2017	52	2.7	49	2.5	47	2.4
	2018	46	2.6	45	2.2	40	2.4
	2019	-	-	-	-	56	2.0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406	2.8	372	2.6	358	2.6
	사회서비스제공형	39	3.2	30	3.1	35	2.8
	혼합형	68	2.4	52	2.6	62	2.8
	기타(창의·혁신)형	76	2.3	69	2.2	86	2.1
	지역사회공헌형	38	4.1	38	3.4	42	2.6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110	2.7	95	2.7	97	2.5
	비영리민간단체	36	2.9	39	2.5	44	2.9
	사회복지법인	67	3.9	68	3.8	67	3.7
	상법상회사	270	2.3	222	2.4	201	2.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	1.5	1	2.0	5	2.2
	영농조합법인	24	3.3	16	3.4	11	2.1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118	3.0	120	2.5	158	2.2
	기타	-	-	-	-	-	-
전체		627	2.8	561	2.7	583	2.5

주: 평균 개최 건수는 기타 회의체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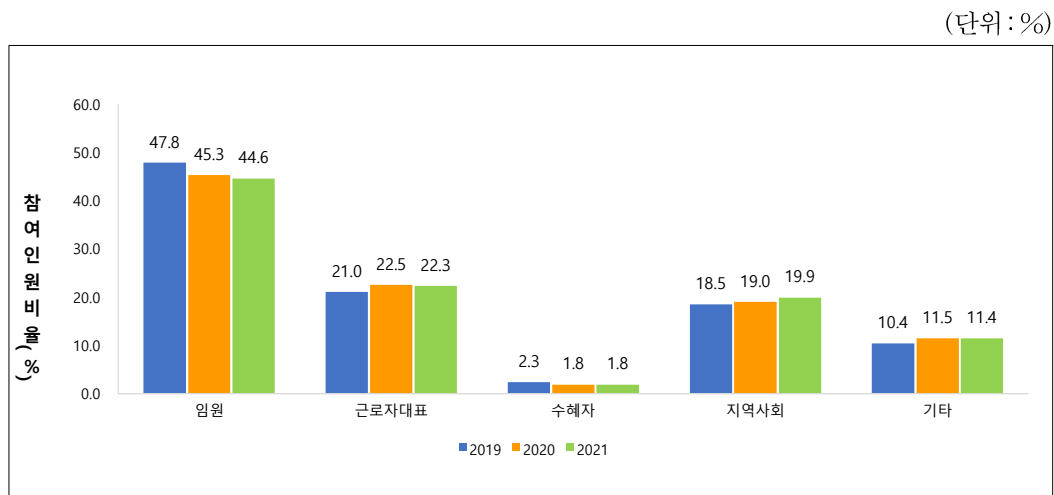
2018, 2019, 2020 세 개 년도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한 2,154개 사회적기업 대상.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한편, 아래 [그림 3-16]과 [그림 3-17]에서는 각 사회적기업 이사회 참여인원 비율을 평균하여 전년도와 비교한 것이다. 이사회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사내 이해관계자로 임원, 근로자대표가 있고, 사외 이해관계자로는 수혜자, 지역사회참여자, 기타 참여인원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임원이 이사회의 약 40% 이상을 구성하고 있으며, 임원 다음으로는 근로자대표와 지역사회참여자가 각각 약 20% 내외로 이사회에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최근 3년 동안 임원 및 수혜자와 지역사회 참여자, 기타 이사회 참여자의 비율은 대체로 큰 변동 없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안정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의 기타 회의체 참여인원 비율은 다음 [그림 3-17]과 같다.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임원이 참여하는 비율이 약 27.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근로자대표와 지역사회 참여자, 기타 참여자가 사회적기업의 기타 회의체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원의 기타 회의체 참여비율은 전년대비 약 1.6%p 감소한 반면, 근로자 대표의 참여비율은 3.4%p로 크게 증가하였고, 지역사회, 기타 참여자의 기타 회의체 참여비율은 근소하게나마 증가, 수혜자는 전년대비 2.9%p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의 기타 회의체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사회적기업들에서 근로자, 지역사회 및 서비스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이행하는 모습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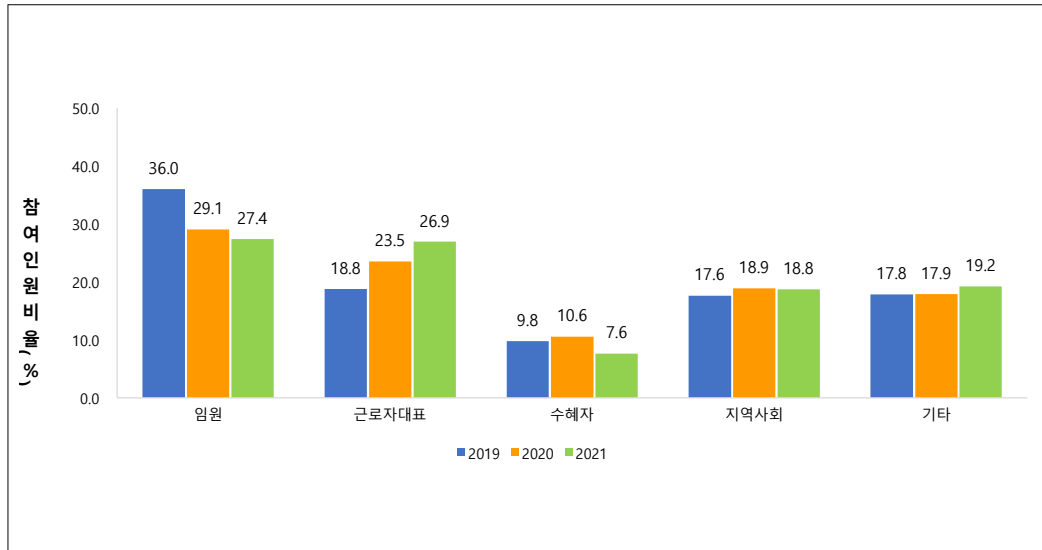
[그림 3-16] 연도별 이사회 참여인원 비율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그림 3-17] 연도별 기타 의사결정기구 참여인원 비율

(단위: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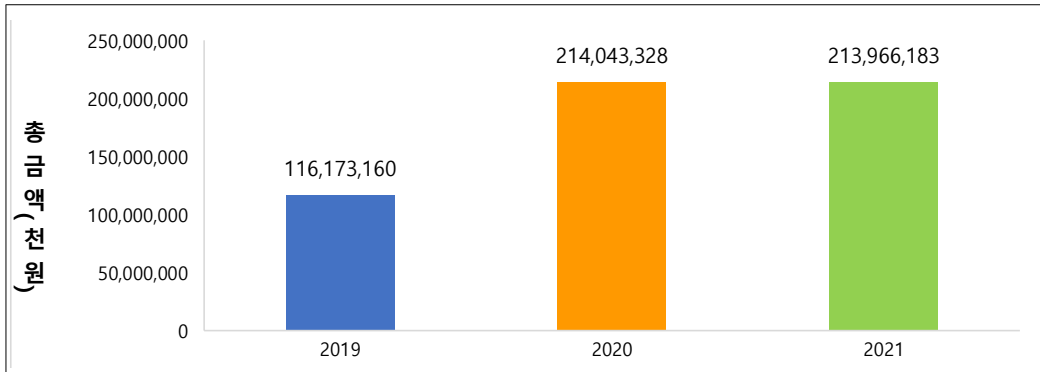
제4절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제4절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창출된 이익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 3항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 따른 회사 및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동법 제8조 7항)이라고 규정하였다.

최근 3년간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금액의 변화 추세는 다음 [그림 3-18]과 같다. 2019년 약 1천 161억 2천만 원에서 2020년 약 2천 140억 4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84.2% 대폭 증가했고, 2021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 하여 약 2천 139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3-18] 연도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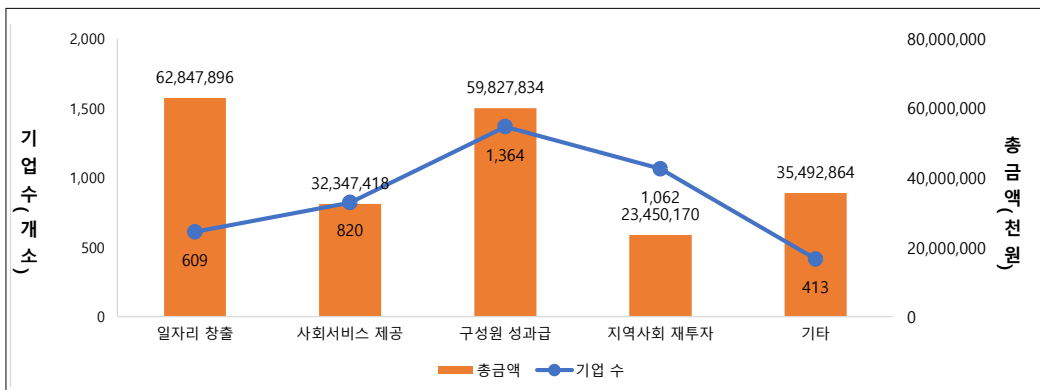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그림 3-19]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사회서비스 재투자 총액

(단위: 개소, 천 원)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그림 3-19]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를 한 사회적기업의 수와 재투자 총금액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재투자유형은 크게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구성원 성과급, 지역사회 재투자, 기타의 다섯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20년 재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한 기업은 609개소, 약 628억 원으로 가장 액수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364개 사회적기업이 약 598억 원을 구성원 성과급으로 재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제공의 경우 820개 기업이 약 323억 원을 재투자하여 상대적으로 재투자 금액이 컸던 반면, 지역사회 재투자에는 1,062개 기업이 약 235억 원을 재투자하여 기업 수는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재투자 금액은 가장 적었다.

<표 3-23>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 사회적기업의 수와 재투자 총액을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2021년에는 총 2,124개의 사회적기업이 약 2,140억 원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여, 전년도에 총 1,720개 기업의 약 1,814억 원에 비해 재투자를 한 기업 수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지역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재투자 총액

(단위: 개소, 천 원)

지역	사회적 목적 재투자			총 재투자 금액		
	기업 수	총수 대비 %	순위	금액	총금액 대비 %	순위
서울	308	14.5	3	64,933,119	30.3	2
부산	44	2.1	15	713,205	0.3	16
대구	71	3.3	12	5,313,553	2.5	12
인천	171	8.1	5	9,299,991	4.3	7
광주	120	5.6	8	11,287,095	5.3	5
대전	43	2.0	16	2,724,216	1.3	14
울산	34	1.6	17	465,940	0.2	17
세종	10	0.5	18	353,806	0.2	18
경기	439	20.7	2	56,963,927	26.6	3
강원	141	6.6	6	19,702,522	9.2	4
충북	94	4.4	11	5,937,863	2.8	10
충남	67	3.2	13	5,256,268	2.5	13
전북	107	5.0	9	7,657,608	3.6	8
전남	100	4.7	10	6,486,693	3.0	9
경북	192	9.0	4	9,864,899	4.6	6
경남	129	6.1	7	5,447,473	2.5	11
제주	54	2.5	14	1,558,004	0.7	15
계	2,124	100	-	213,966,183	100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경기와 서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기업이 많은 금액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를 하였다. 경기는 439개 사회적기업이 약 570억 원을, 서울 지역은 308개 사회적기업이 약 649억 원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였다. 강원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141개 기업이 약 197억 원을 재투자하여 기업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재투자 금액은 많았다.

한편, 아래 <표 3-24>는 사회적 목적의 재투자 기업 수와 평균금액을 사회적기업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에 따라 구분해 제시한 것이다.

<표 3-24> 인증연도, 인증유형 및 조직형태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평균금액

(단위: 개소, 천 원)

구분		전체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구성원 성과급		지역사회 재투자		기타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인증 연도	2007	17	246,336	8	46,104	3	57,215	11	70,298	6	10,154	3	423,849
	2008	50	117,199	12	39,754	14	148,684	36	68,027	31	17,638	8	38,197
	2009	28	158,685	5	54,349	10	80,340	19	26,478	12	17,029	6	33,434
	2010	65	105,611	13	222,946	24	13,507	45	67,943	29	13,626	13	14,587
	2011	55	320,984	13	159,947	17	262,540	30	187,368	27	24,202	13	372,087
	2012	57	101,097	13	78,074	16	109,474	41	42,580	26	9,063	15	67,637
	2013	105	224,478	29	78,770	38	22,367	71	38,535	41	92,839	12	1,157,436
	2014	121	115,001	24	104,714	37	60,702	71	43,336	56	54,524	21	144,086
	2015	151	138,054	33	231,328	47	22,428	96	99,591	76	20,158	26	40,981
	2016	155	54,505	39	71,502	55	18,914	102	30,186	79	14,647	35	10,953
	2017	153	63,674	43	73,688	58	35,426	91	37,088	82	6,177	30	21,419
	2018	202	82,832	55	125,000	73	25,613	118	40,405	106	12,377	47	40,588
	2019	284	80,562	72	90,403	130	31,534	195	40,538	140	16,855	48	41,534
	2020	307	73,336	108	87,957	123	25,755	205	28,344	159	10,402	53	44,953
	2021	374	81,673	142	84,554	175	27,588	233	22,987	192	31,102	83	28,717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476	94,304	432	112,730	489	23,609	982	51,422	760	15,289	292	57,643
	사회서비스제공형	136	89,780	30	131,928	93	57,538	81	25,185	51	13,748	20	7,748
	혼합형	116	110,247	28	76,782	67	128,025	69	22,432	54	8,045	13	6,072
	기타(창의·혁신)형	216	166,922	66	86,888	95	40,365	130	26,594	96	53,681	54	331,010
	지역사회공헌형	180	76,220	53	43,504	76	39,919	102	22,413	101	54,864	34	16,252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3	127,543	3	37,467	1	14,972	3	76,486	2	2,083	3	7,211
	비영리민간단체	167	151,762	60	136,589	66	136,013	96	27,988	69	16,154	29	150,694
	사회복지법인	27	49,145	3	8,231	11	25,228	16	12,478	6	4,465	6	133,048
	상법상회사	37	115,476	12	36,172	8	45,562	24	76,143	6	45,630	8	171,60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475	98,550	408	98,983	568	26,487	968	49,989	769	19,780	298	90,187
	영농조합법인	7	839,439	2	121,027	2	137,840	6	29,716	6	806,415	2	170,775
	일반/사회적협동조합	81	68,977	24	79,383	23	21,741	39	30,758	49	20,287	16	61,769
	기타형	327	78,944	102	118,078	141	48,888	212	24,365	155	6,373	51	14,202
	계	2,124	100,737	609	108,199	820	39,448	1,364	43,862	1,062	22,081	413	85,989

주: 항목별 지역사회 재투자자를 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먼저 인증연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1년 인증기업의 전체 재투자 금액이 약 3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7년과 2013년 인증기업이 각각 약 2억 5천만 원, 약 2억 2천만 원으로 많았다. 사회적 목적 재투자 항목별로는 일자리 창출의 경우

2009년 인증기업은 5개 기업이 평균 약 5억 5천만 원을 재투자하여 가장 많았고, 구형 원성과급은 2011년 인증받은 30개 기업이 약 1억 9천만 원을 배분하여 가장 많았다. 사회서비스 제공의 경우 2007년 인증받은 3개 기업이 약 5억 7천만원을 배분하여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 재투자는 2013년 인증받은 41개 기업이 약 9천만 원을 재투자하여 가장 많았다. 그 외 기타 재투자 금액으로는 2013년 인증받은 12개 기업이 약 11억 6천만 원을 배분하여 기업의 인증연도에 따라 재투자 하는 항목이 다소 상이한 경향이 도출되었다.

인증유형별로 보면 일자리제공형이 1,476개소로 기업 수가 가장 많아서 사회적기업 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평균 재투자 금액은 약 9천만 원으로 인증유형들 중에서는 중간으로 나타났다. 평균 재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기타(창의·혁신)형이 약 1억 7천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역사회공헌형은 약 8천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조직형태별로 보면 영농조합법인이 약 8억 4천만 원으로 재투자 금액이 가장 많은 반면, 사회복지법인의 재투자 금액은 약 5천만 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표 3-25>는 2019~2021년 기간 동안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와 평균금액 추이를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사회적 목적 재투자의 경우도 기업이 나름의 기준으로 임의적인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어,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019~2021년 기간 동안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자료에 모두 포함된 2,154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목적의 재투자를 실시한 사회적기업의 수는 2019년 927개에서 2020년 1,112개로 증가하였고, 2021년 1,443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사회적 목적 재투자 평균금액은 2019년 약 1억 원에서 2020년 약 1억 2천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약 1억 1천만 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전체 추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 수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2019년에서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평균금액의 경우, 각 기업 구분별로 연도별 추이는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유형에서 2019년 대비 2021년 평균금액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2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평균금액 추이

(단위: 개소, 천 원)

구분		2019		2020		2021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인증연도	2007	12	216,097	14	144,776	17	246,366
	2008	37	103,070	50	105,214	50	117,199
	2009	19	82,773	23	63,606	28	158,685
	2010	51	122,742	69	114,788	65	105,611
	2011	30	217,680	50	651,334	55	320,984
	2012	51	58,350	59	79,024	57	101,097
	2013	76	264,257	98	199,035	105	224,478
	2014	84	97,525	113	76,229	121	115,001
	2015	115	121,260	131	129,721	151	138,054
	2016	124	68,668	150	72,414	155	54,505
	2017	148	60,761	154	45,505	153	63,674
	2018	180	57,917	201	104,404	202	82,832
	2019	-	-	-	0	284	80,562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651	81,177	776	124,092	1,017	102,904
	사회서비스제공형	53	157,394	58	97,518	79	117,946
	혼합형	66	62,596	96	113,188	103	113,041
	기타(창의·혁신)형	95	253,817	112	182,754	149	198,396
	지역사회공헌형	62	72,040	70	65,451	95	60,329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63	111,628	89	182,360	99	207,502
	비영리민간단체	14	36,209	23	32,188	20	21,976
	사회복지법인	13	59,279	27	80,142	36	115,205
	상법상회사	682	109,752	790	133,482	1,014	113,35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0	0	2	12,847	4	39,119
	영농조합법인	45	73,628	51	57,473	62	75,455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110	67,494	130	79,429	208	76,938
	기타	-	-	-	0	-	-
전체		927	101,293	1,112	123,982	1,443	111,508

주: 평균금액은 사회적 목적 재투자를 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

2019, 2020, 2021 세 개 년도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한 2,154개 사회적기업 대상.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제4장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본 장에서는 재정성과, 지출 구조, 그리고 노동생산성 및 일반인 고용현황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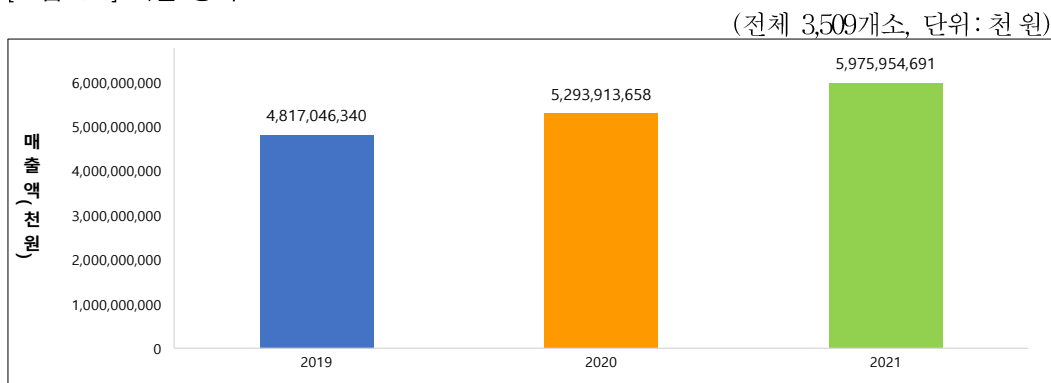
제1절 재정성과 : 수입구조 분석

사회적기업의 재정성과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위해 사업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한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1. 매출액

먼저 사회적기업 최근 3년간 매출 총액은 다음 [그림 4-1]과 같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2021년의 사회적기업은 약 5조 9천7백억 원의 매출 총액을 보고하여, 전년도에 비해 약 6천8백2십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9~2020년 사이의 약 4천7백7십억 원의 매출 총액 증가폭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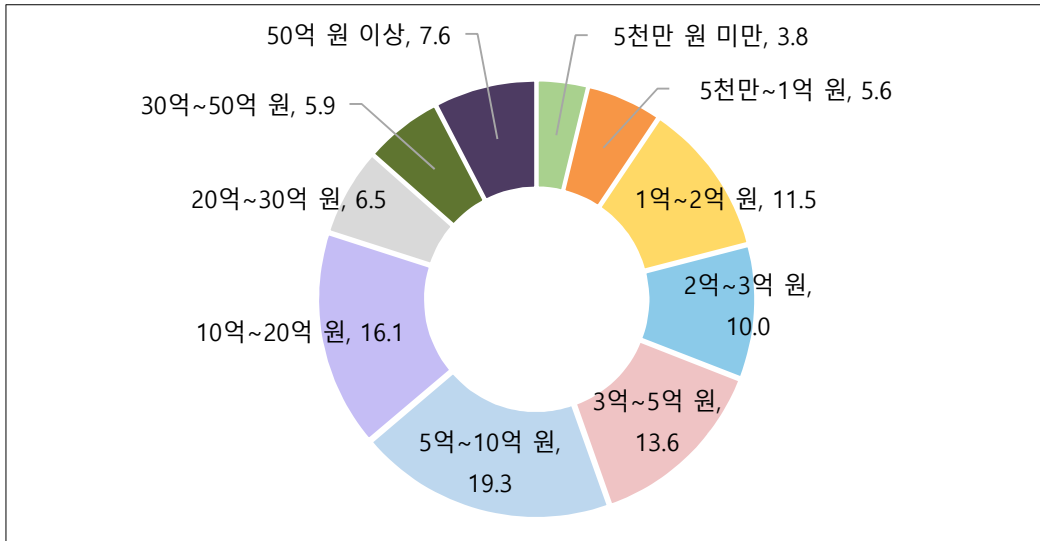
[그림 4-1] 매출 총액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그림 4-2] 매출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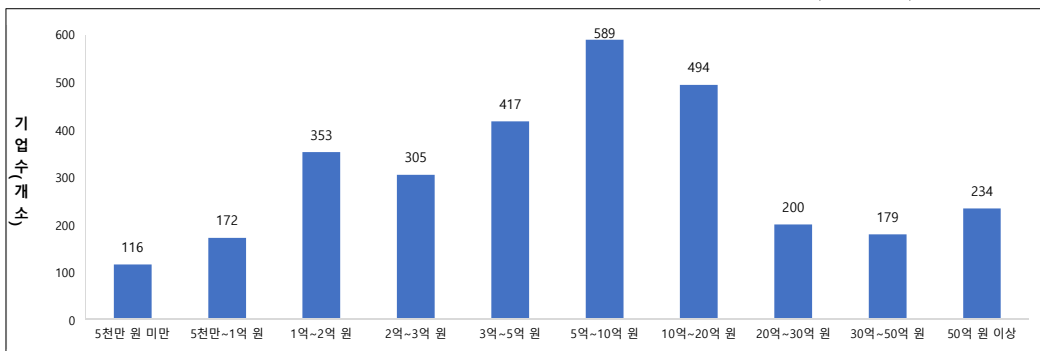
(전체 3,509개소, 단위: %)



주 :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그림 4-3] 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전체 3,509개소,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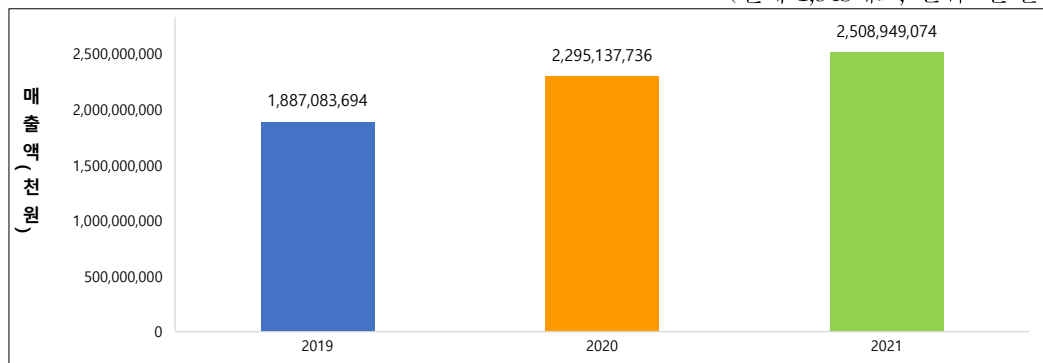
주 :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그림 4-2]와 [그림 4-3]은 2021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분포 및 매출액에 따른 기업 수이다. 전체 3,509개의 매출액이 있는 사회적기업 중 5억~10억 원 사이의 매출액을 달성한 곳이 589개소(19.3%)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10억~20억 원 사이가 494개소(16.1%), 3억~5억 원 사이가 417개소(13.6%)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림 4-4]~[그림 4-9]은 앞서 보고된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을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그림 4-4]와 같이, 공공시장을 통한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은 총 1,948개소이며 공공시장을 통한 매출 규모는 약 2조 5천 8십억 원으로 2019년과 2020년에 비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 매출액 분포를 [그림 4-5]와 [그림 4-6]을 통해 살펴보면, 5억~1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296개소(15.2%)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5천만 원 미만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264개소(13.6%), 10억~2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244개소(12.5%)로 다음으로 많았다.

[그림 4-4] 공공매출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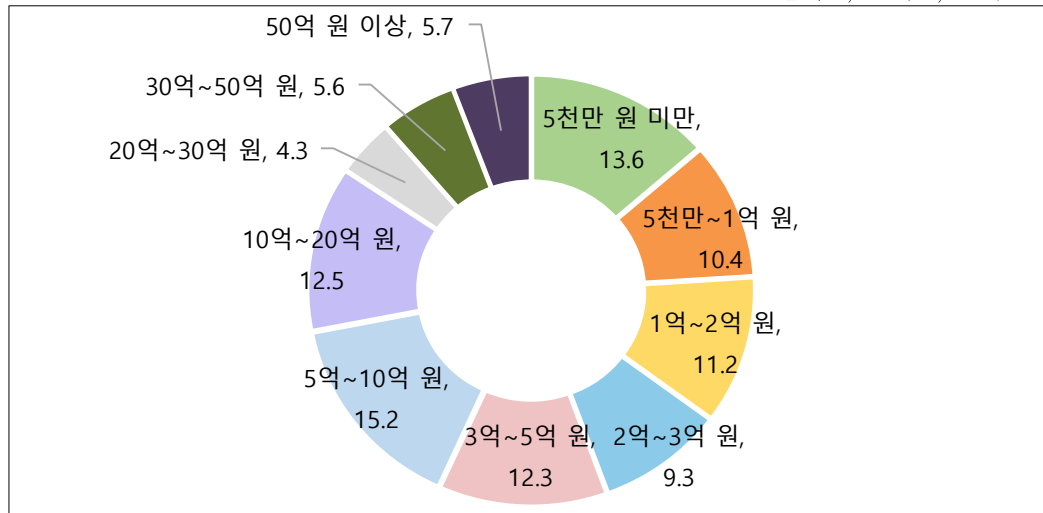
(전체 1,948개소, 단위: 천 원)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그림 4-5] 공공시장 매출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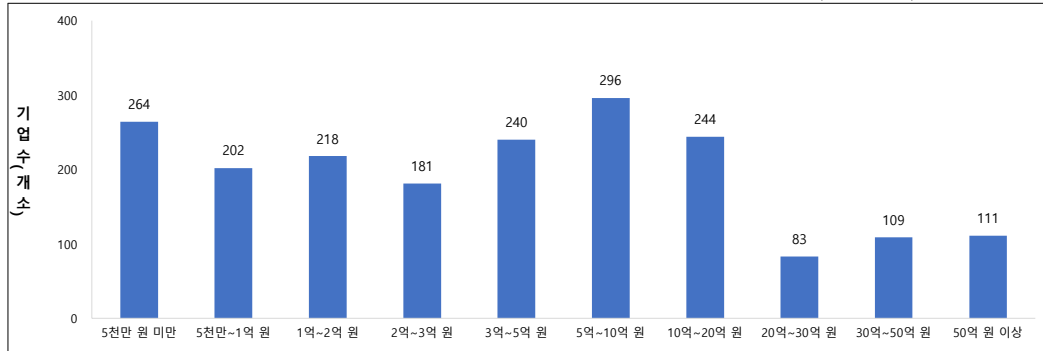
(전체 1,948개소, 단위: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그림 4-6] 공공시장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전체 1,948개소,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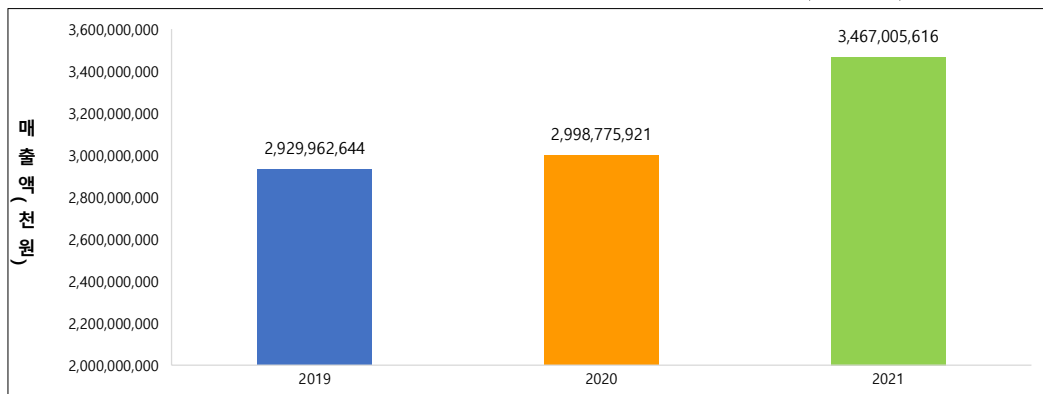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그림 4-7]과 같이, 민간시장을 통한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은 총 2,648개소이며 민간매출 총액의 평균은 약 3조 4천6백7십억 원으로 공공매출에 비해 매출 규모가 더 컸고, 민간매출 역시 공공매출과 마찬가지로 2019년과 2020년에 비해 매출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민간시장 매출액 분포를 [그림 4-8]과 [그림 4-9]를 통해 살펴보면, 매출액 규모는 1억~2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기업이 439개소(1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억~1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402개소(15.2%), 5천만 원 미만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345개소(13.6%)로 다음으로 많았다.

[그림 4-7] 민간매출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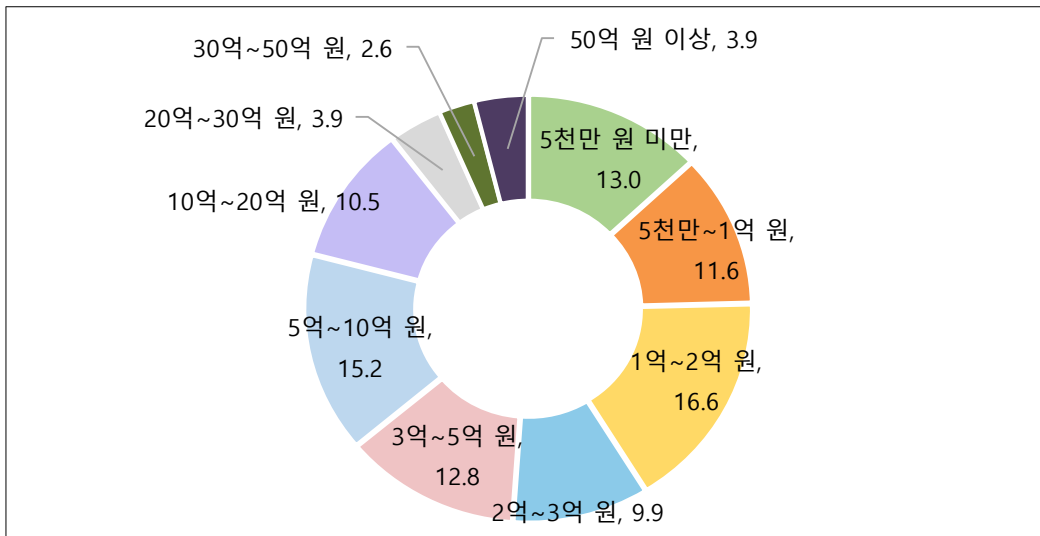
(전체 2,648개소, 단위: 천 원)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그림 4-8] 민간시장 매출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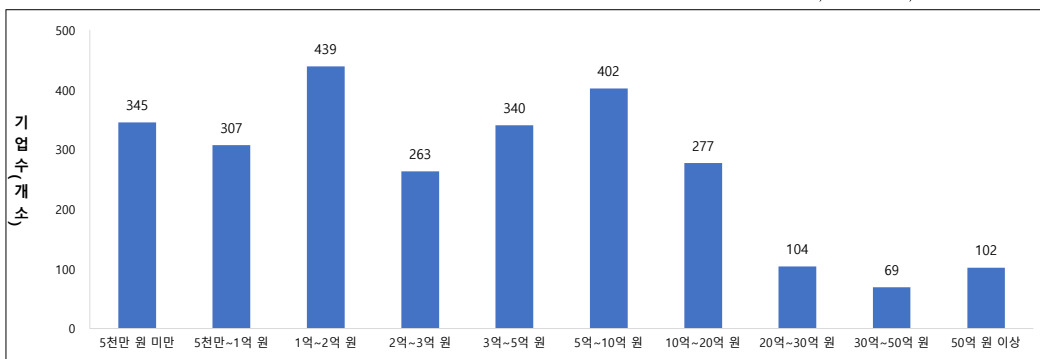
(전체 2,648개소, 단위: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그림 4-9] 민간시장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전체 2,648개소, 단위: 개소)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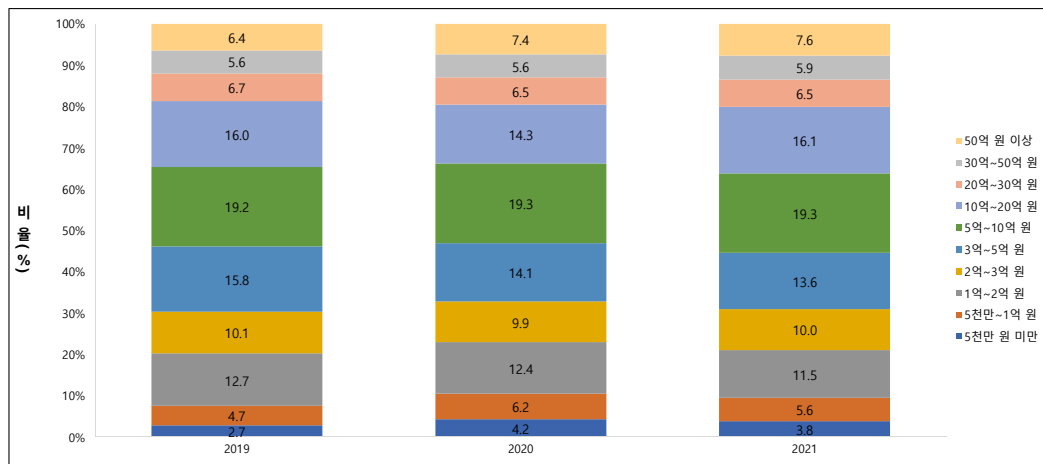
한편, 다음의 [그림 4-10]~[그림 4-18]은 2019~2021년도에 걸쳐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분포와 기업의 수가 연도별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분석한 내용이다.

먼저 [그림 4-10]과 [그림 4-11]의 연도별 매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2019년

과 2020년에 비해 매출액 구간별로 기업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매출액 분포의 비율은 큰 변화 없이 대체로 일정하게 나타난다. 5~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의 비율이 19.2%에서 19.3%, 19.3%로 점차 근소하게 증가하는 반면, 1~2억 원 사이와 3억~5억 원 사이 매출 규모의 사회적기업의 비율은 점차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4-10] 연도별 매출액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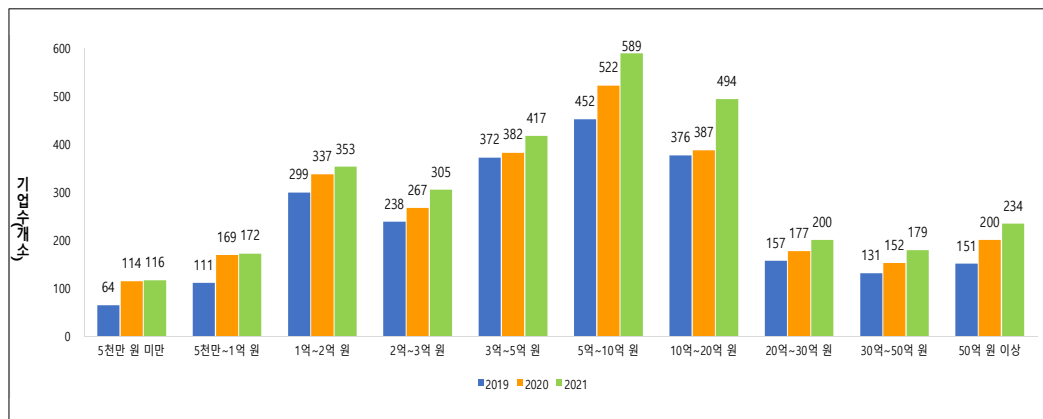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그림 4-11] 연도별 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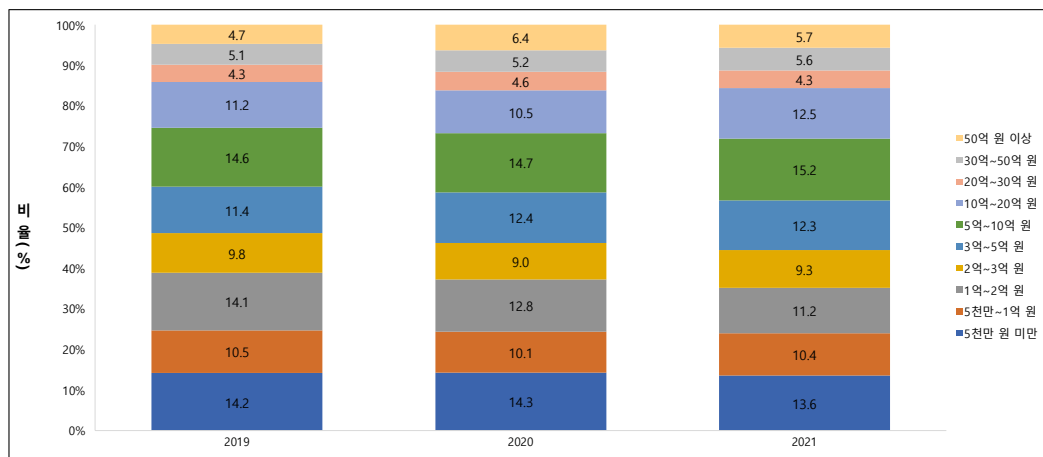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그리고 [그림 4-12]와 [그림 4-13]의 연도별 공공 매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의 추이와 유사하게 큰 변동은 없으나, 대체로 2019년과 2020년에 비해 매출액 구간별로 기업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다만, [그림 4-12] 연도별 공공매출액 분포에서 5천만원 미만, 1억~2억원, 3~5억원, 20억~30억원, 50억원 이상의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4-12] 연도별 공공매출액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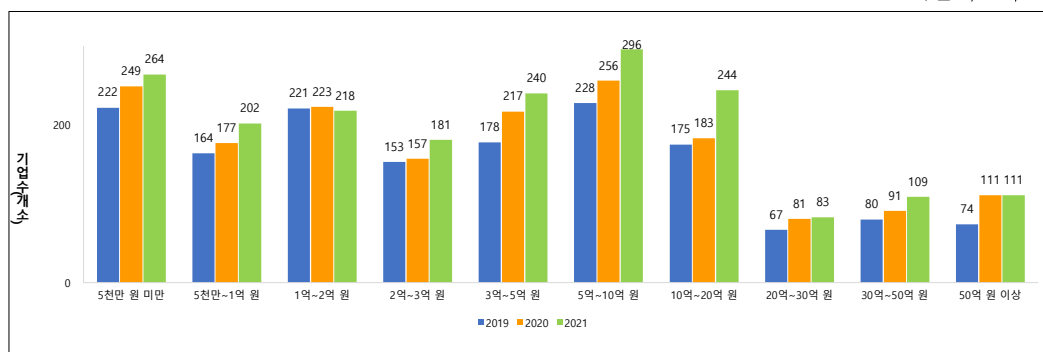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그림 4-13] 연도 및 공공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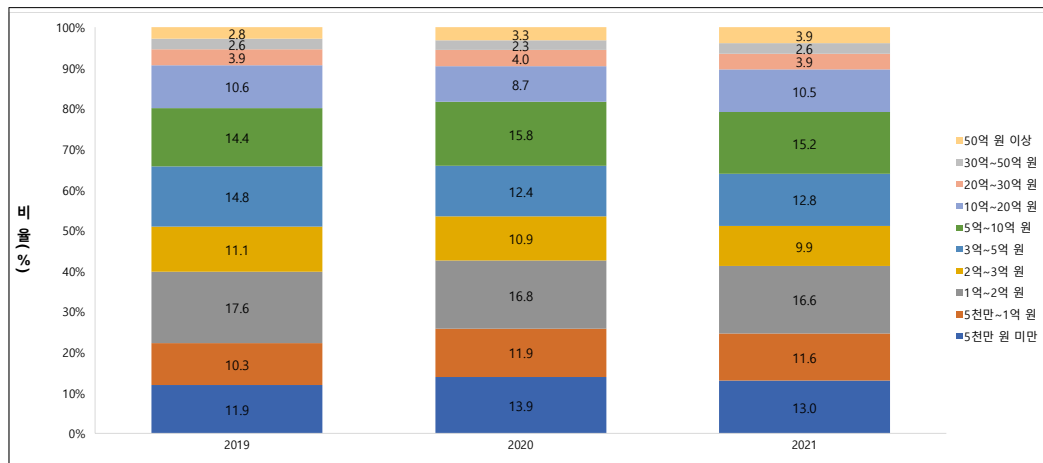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한편, [그림 4-14]와 [그림 4-15]의 연도별 민간 매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2019년과 2020년에 비해 매출액 구간별로 기업 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며, 그 비율은 대체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5천만원 미만, 5천만~1억원, 1억~2억원, 2억~3억원, 3억~5억원, 5억~10억원, 20억~30억원의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4-14] 연도별 민간매출액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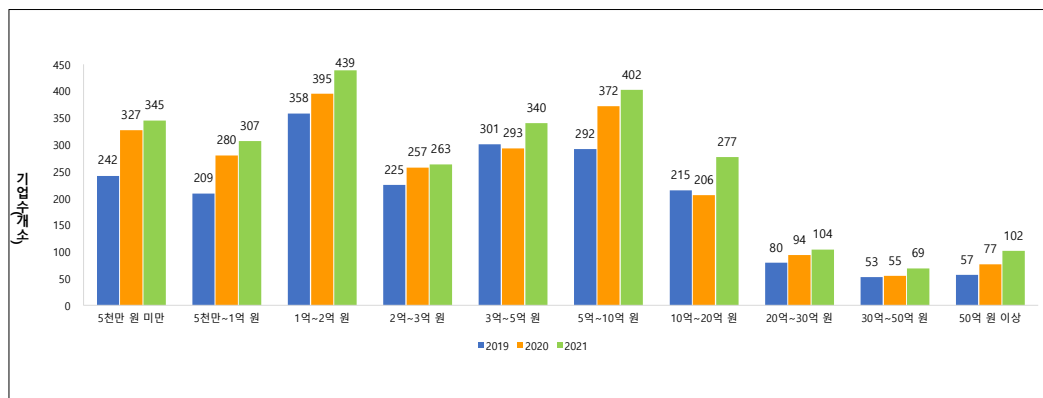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그림 4-15] 연도 및 민간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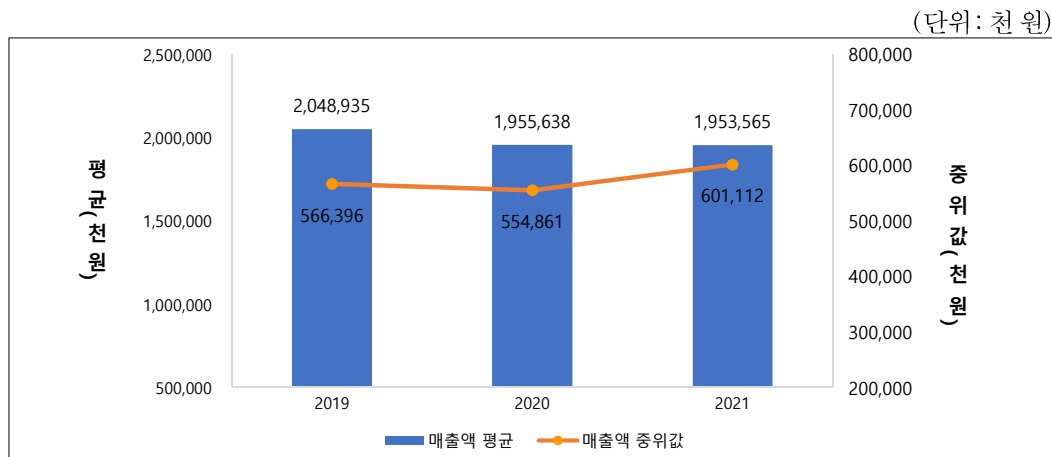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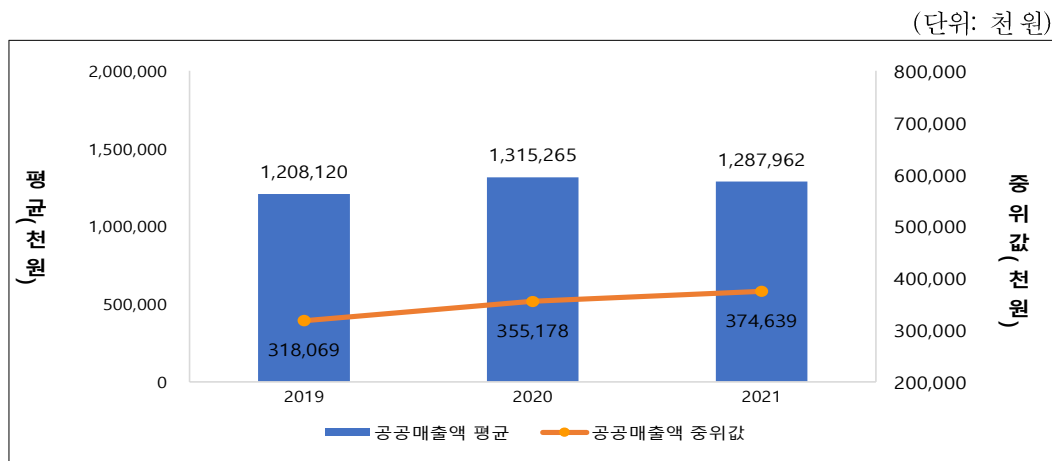
[그림 4-16]은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평균값과 중위값을 나타낸 것이다. 기업 매출액 평균은 근소하게 하락하고 있었으며, 2019년(약 20억 4천만 원)에 비해 2020년(약 19억 5천5백만 원)의 매출액 평균은 약4.6%의 하락률을 보였으며, 2021년(약 19억 5천3백만 원)의 매출액 평균은 전년 대비 약 0.1%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반적인 기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매출액 평균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중위값은 하락 후 상승하여 2020년은 약 2.0% 하락 후, 2021년 약 8.3%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6] 연도별 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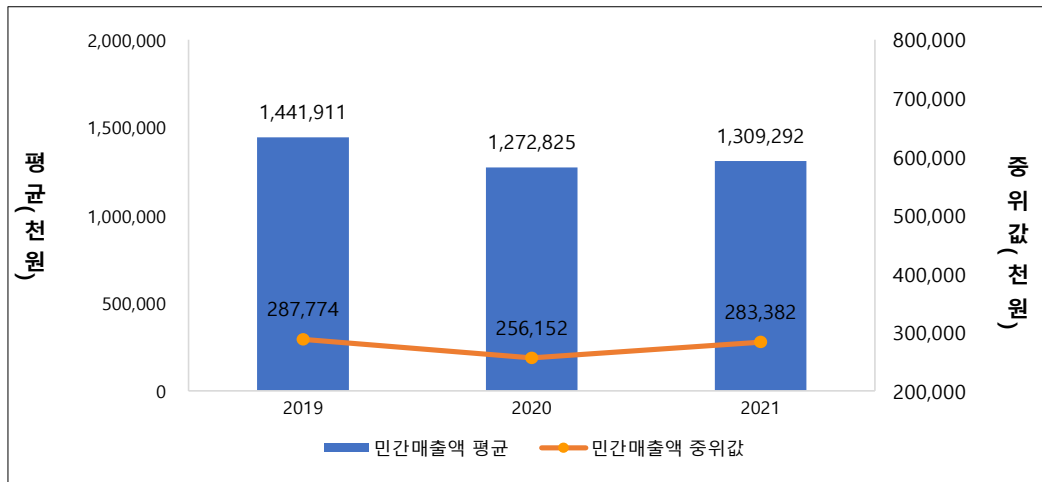
[그림 4-17] 연도별 공공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그림 4-18] 연도별 민간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그림 4-17]과 [그림 4-18]은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을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균값과 중위값을 나타낸 것이다. 공공 매출액의 평균은 2019년 약 12억 8백만 원에서 2020년 약 13억 2천만 원(전년 대비 8.9% 증가)으로 늘었다가, 2021년 약 12억 8천만 원(전년 대비 -2.1% 감소)으로 줄었으며, 중위값은 2019년 약 3억 2천만 원에서 2020년 약 3억 6천만 원(전년 대비 11.7% 증가), 2021년 약 3억 7천만 원(전년 대비 5.5% 증가)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반면, 민간 매출액의 평균은 2019년 약 14억 4천만 원에서 2020년 12억 7천만 원(전년 대비 11.7% 감소)으로 줄었다가, 2021년 약 13억 1천만 원(전년 대비 2.9% 증가)으로 소폭 늘었다. 민간 매출액의 중위값은 2019년 약 2억 9천만 원에서 2020년 약 2억 6천만 원(전년 대비 11.0% 감소)으로 줄었고, 2021년 약 2억 8천만 원(전년 대비 1.6% 증가)으로 늘었다.

다음으로 아래 <표 4-1>에서는 지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총 매출액 평균과 중위값을 총매출액과 공공/민간시장매출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기업 수가 적은 세종을 제외하고 총 매출액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년과 같이 서울(약 38억 8천만 원, 529개소)이었고, 다음으로 경기(약 23억 5천만 원, 539개소), 경북(약 18억 7천만 원, 210개소), 충북(약 18억 4천만 원, 129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중위값이 높은 지역은 경기(약 10억 1천만 원), 전북(약 6억 7천만 원), 광주(약 6억 4천만 원), 충북

(약 6억 3천만 원) 순이었다. 세종을 제외하면 공공시장매출액 평균은 서울(약 19억 3천만 원, 36개소)이었고, 경기(약 18억 9천만 원, 369개소), 강원(약 13억 7천만 원, 101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시장매출액 평균은 서울(약 30억 원, 461개소)이었고, 경북(약 15억 6천만 원, 192개소), 경기(약 13억 1천만 원, 434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공시장매출 평균이 민간시장매출 평균보다 많은 지역은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이었으며, 반대로 민간시장매출 평균이 공공시장매출 평균보다 더 큰 지역은 서울, 대구, 대전, 세종, 전북, 경북, 경남, 제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기업의 분포 및 특성, 사회적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 공공기관들의 입지 등 여러 요인의 지역 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 지역별 매출액

(단위: 천 원, 개소)

지역	항목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매출	3,877,121	529	618,232
	공공시장매출	1,929,660	361	374,798
	민간시장매출	2,937,939	461	303,826
부산	매출	942,948	142	375,365
	공공시장매출	776,852	94	269,077
	민간시장매출	486,996	125	202,453
대구	매출	827,581	115	352,439
	공공시장매출	539,501	71	233,496
	민간시장매출	563,041	101	229,555
인천	매출	1,370,670	194	553,878
	공공시장매출	1,079,059	124	306,593
	민간시장매출	777,098	170	270,264
광주	매출	1,263,084	129	644,475
	공공시장매출	1,173,115	72	326,458
	민간시장매출	682,379	115	452,794
대전	매출	1,426,810	84	497,683
	공공시장매출	657,653	48	447,004
	민간시장매출	1,193,037	74	245,463
울산	매출	983,873	101	582,630
	공공시장매출	676,403	59	313,317
	민간시장매출	632,590	94	280,176
세종	매출	1,816,694	23	692,591
	공공시장매출	985,402	16	474,879
	민간시장매출	1,530,443	17	286,946

<표 4-1>의 계속

지역	항목	평균	기업 수	중위값
경기	매출	2,346,765	539	1,013,965
	공공시장매출	1,886,555	369	700,000
	민간시장매출	1,310,525	434	360,115
강원	매출	1,348,000	170	403,857
	공공시장매출	1,371,465	101	282,454
	민간시장매출	612,446	148	201,446
충북	매출	1,844,347	129	634,285
	공공시장매출	1,182,860	92	497,113
	민간시장매출	1,163,042	111	301,642
충남	매출	1,325,699	122	519,452
	공공시장매출	932,453	89	411,233
	민간시장매출	722,449	109	254,377
전북	매출	1,382,044	180	673,672
	공공시장매출	848,667	124	439,616
	민간시장매출	920,085	156	245,089
전남	매출	1,225,984	159	468,610
	공공시장매출	957,824	78	271,961
	민간시장매출	883,980	136	299,186
경북	매출	1,873,017	210	608,110
	공공시장매출	788,299	119	288,408
	민간시장매출	1,560,031	192	324,346
경남	매출	1,227,266	153	506,193
	공공시장매출	850,789	84	368,999
	민간시장매출	874,477	133	256,741
제주	매출	1,093,810	80	557,258
	공공시장매출	506,749	47	269,491
	민간시장매출	884,549	72	285,429
전체	매출	1,953,565	3,059	601,112
	공공시장매출	1,287,962	1,948	374,639
	민간시장매출	1,309,292	2,648	283,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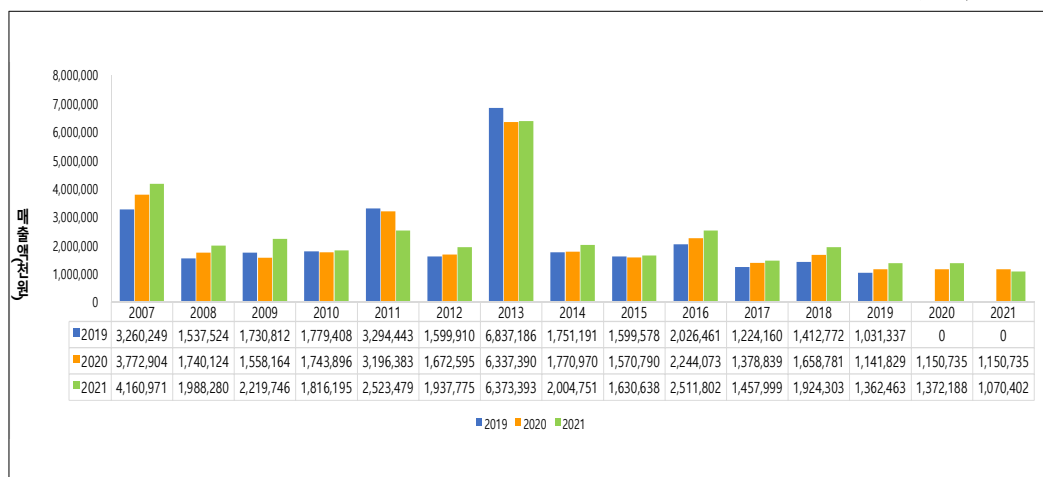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다음 [그림 4-19]는 최근 3년간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설명하고 있다. 2013년 인증기업은 2019~2021년 동안 가장 높은 평균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평균값은 극단값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즉, 2013년 인증기업이 모두 고르게 높은 매출액을 보고한다기보다는 2013년에 인증받은

특정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다른 사회적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크기 때문에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2013년 인증기업을 제외하면, 2007년 인증기업이 2019~2021년에 걸쳐 가장 높은 평균 매출액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이후 인증 사회적기업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 평균 매출액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약 63억 원), 2007년(약 42억 원), 2011년(약 25억 원)에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다른 인증연도의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그림 4-19] 인증연도별 평균 매출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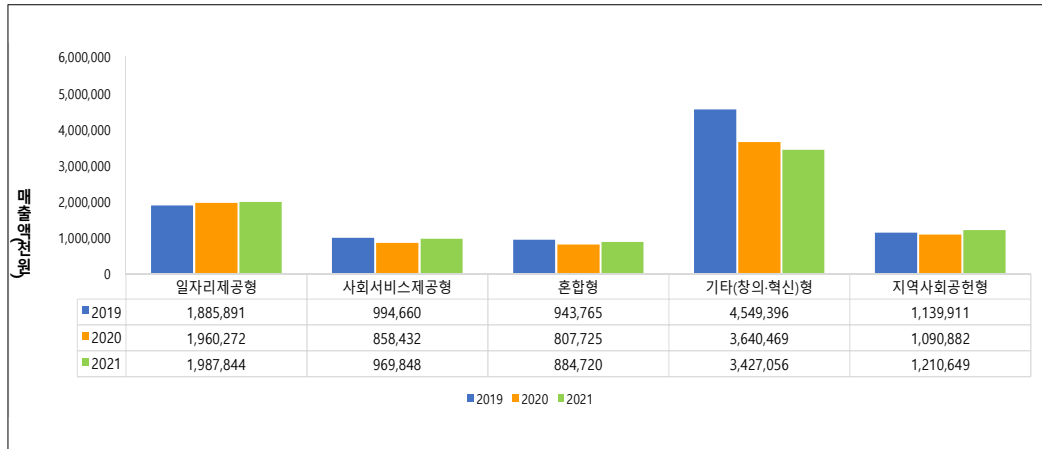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최근 3년간의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인증유형별로 살펴본 분석 내용은 [그림 4-20]과 같다. 기타(창의·혁신)형이 다른 인증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의 평균 매출액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부터 최근 3년간은 평균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반면, 혼합형은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평균 매출액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3년간 일자리제공형의 평균 매출액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나,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및 지역사회공헌형의 평균 매출액은 약 10억 원 내외에서 거의 변화가 없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4-20] 인증유형별 평균 매출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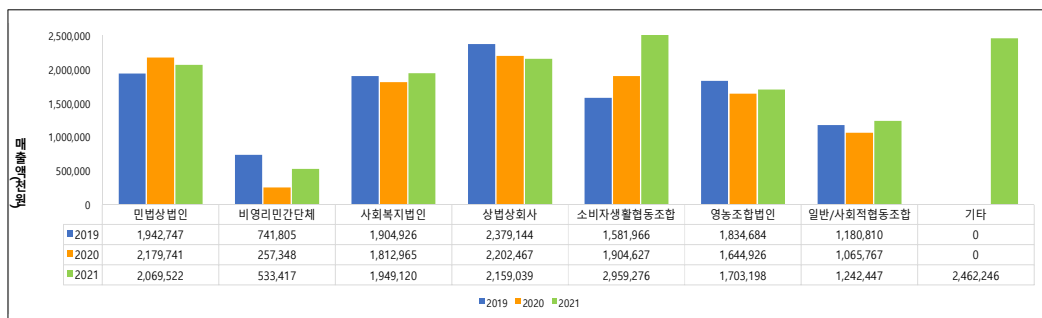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에 따른 평균 매출액을 연도별로 세분화시켜 분석한 내용을 아래 [그림 4-21]에서 제시하였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연도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나, 상법상회사의 경우 연도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민법상법인의 경우 2020년에 증가하였다가 2021년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영농조합법인,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2020년까지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4-21] 조직형태별 평균 매출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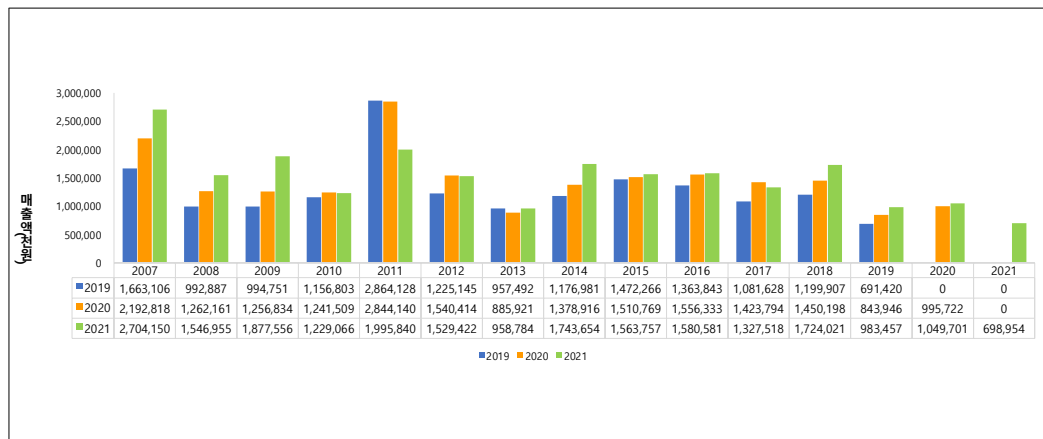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그리고 [그림 4-22]는 최근 3년간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공공매출액을 나타낸 결과이다. 2007년과 2011년의 인증기업이 2019~2021년에 걸쳐 대체로 높은 평균 매출액을 보이고 있다. 2010~2012년과 2017년 인증기업들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 공공매출액 평균을 기준으로, 2007년(약 27억 원)과 2011년(약 20억 원)에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공공매출액 평균이 다른 인증연도의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2013년(약 9억 6천만 원)과, 2019년(9억 8천만 원), 2021년(약 6억 9천만 원)에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공공매출액 평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4-22] 인증연도별 평균 공공매출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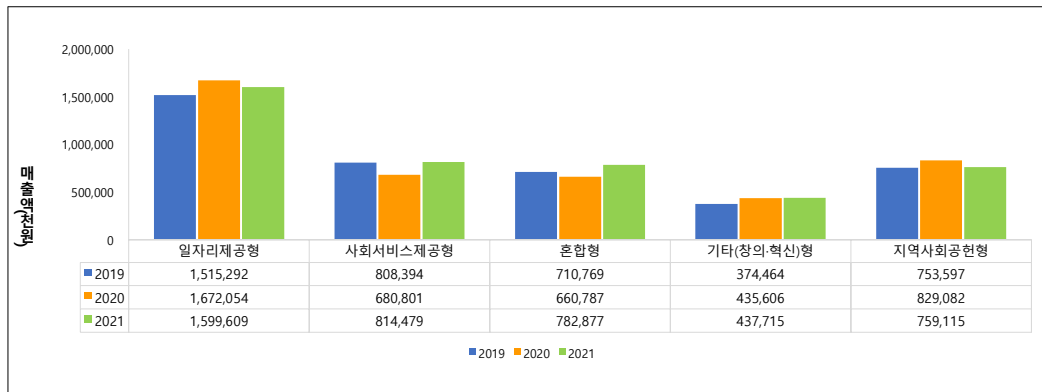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인증유형별로 평균 공공매출액 변화를 아래 [그림 4-23]을 통해 살펴보면, 일자리 제공형이 다른 인증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 매출액이 높았고,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 공공매출액 평균이 가장 낮았다. 3년간 대부분의 유형에서 평균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고, 그 중 평균 매출액 수준은 일자리제공형이 가장 높았으며, 공공매출액 상승 추세는 기타(창의·혁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4-23] 인증유형별 평균 공공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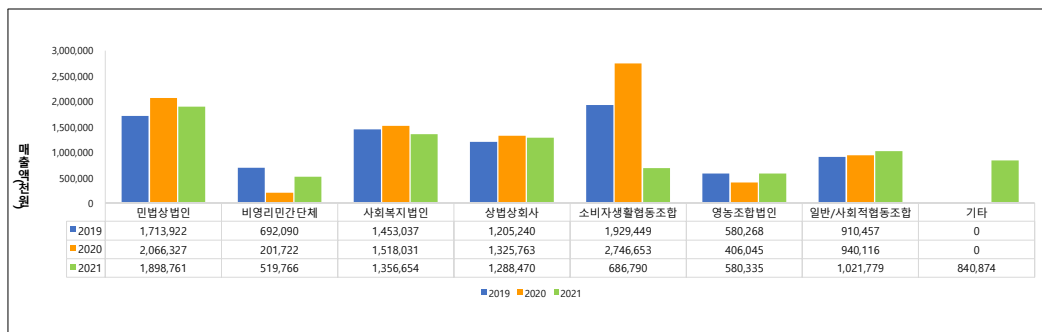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그림 4-24] 조직형태별 평균 공공매출액

(단위: 천 원)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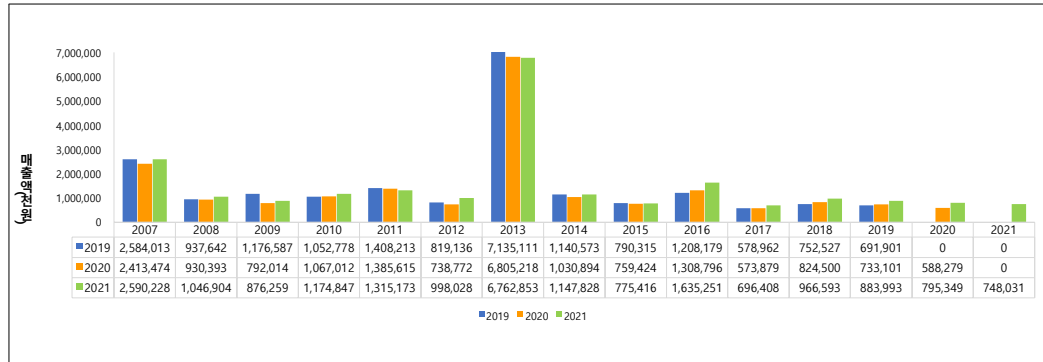
그리고 조직형태별 평균 공공매출액 변화는 [그림 4-24]에 제시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제외하면 모든 조직형태에서 최근 3년간 공공매출액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민간매출액을 살펴본다. 아래 [그림 4-25]에서는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민간매출액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2013년 인증기업을 제외하면, 2007년 인증기업이 대체로 높은 평균 매출액을 보이고 있다. 2013년 인증기업의 민간매출액

평균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대로 민간매출액이 월등히 큰 특정기업의 영향으로 평균값이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외 인증연도의 사회적기업의 민간매출액은 대체로 유사한 수준이다.

[그림 4-25] 인증연도별 평균 민간매출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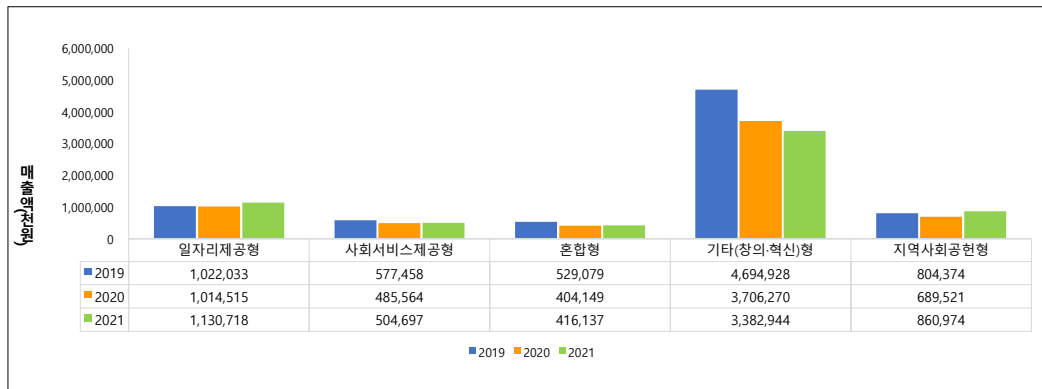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인증유형별로 최근 3년간의 사회적기업의 평균 민간매출액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4-26]과 같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기타(창의·혁신)형이 다른 인증유형에 비해 평균 민간매출액이 월등히 높고, 3년간 매출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민간매출액 규모가 월등히 큰 특정 사회적기업이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인증되어 있어 극단값이 유형별 평균값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혼합형이 다른 인증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평균 매출액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민간매출액 평균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일자리제공형의 평균 민간매출액은 최근 3년간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지역사회 공헌형은 소폭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그외 평균 민간매출액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26] 인증유형별 평균 민간매출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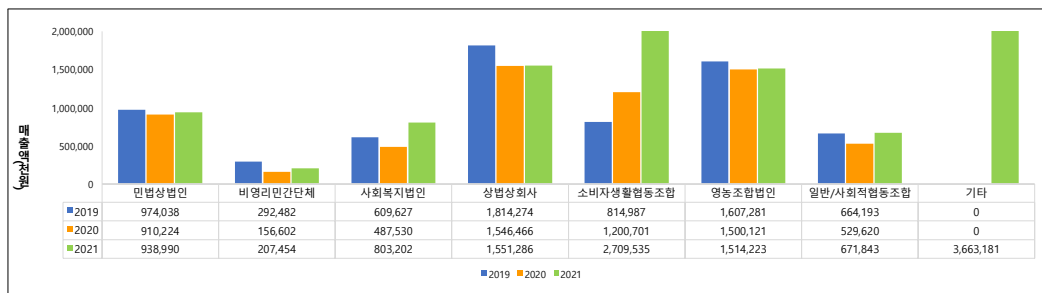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마지막으로 조직형태별 평균 민간매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4-27]과 같이, 상법상회사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의 민간매출액이 다른 조직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상법상회사와 영농조합법인은 2020년 소폭 감소 이후 2021년 소폭 상승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급속도의 증가를 보였다. 그 외 민법상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일반사회적협동조합 역시 2020년까지 감소하다 2021년 소폭 상승을 이루었다.

[그림 4-27] 조직형태별 평균 민간매출액

(단위: 천 원)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2. 영업이익(손실)

다음으로 2021년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은 2016년 회계처리기준 변화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이 변경되었다. 즉, 2016년 이전 인증 사회적기업의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은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어 영업이익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2016년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변경되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의 제17장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특정의 비용과 상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핵심 지원 항목인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해당 비용과 상계 처리하도록 회계처리 방식이 변경되었다.

〈참고〉 일반기업 회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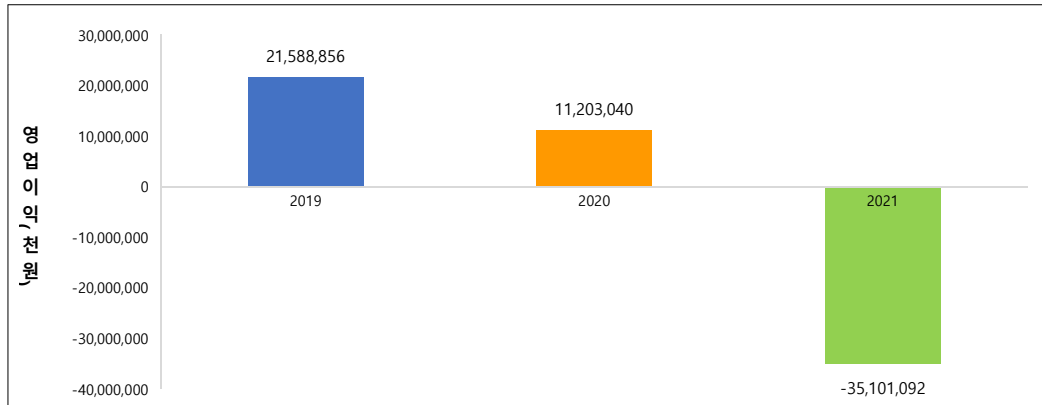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수익관련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반면 수익관련 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 한다.

다음의 [그림 4-28]은 2019~2021년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 총액을 나타낸 그림이다.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은 2019년 약 216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202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 104억 원이 감소하여 약 112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 2021년에는 약 351억 원의 영업손실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전체 영업이익 규모의 손실 및 하락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 침체로 가계 경제 악화, 해외 수출 제한 등의 영향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증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 연도별 변동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외부 경영환경을 염두에 두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추후 사업보고서 제출 및 집계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이 정확하게 적용되었는지 세심하게 파악하고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4-28] 연도별 영업이익 총액

(전체 3,062개소, 단위: 천 원)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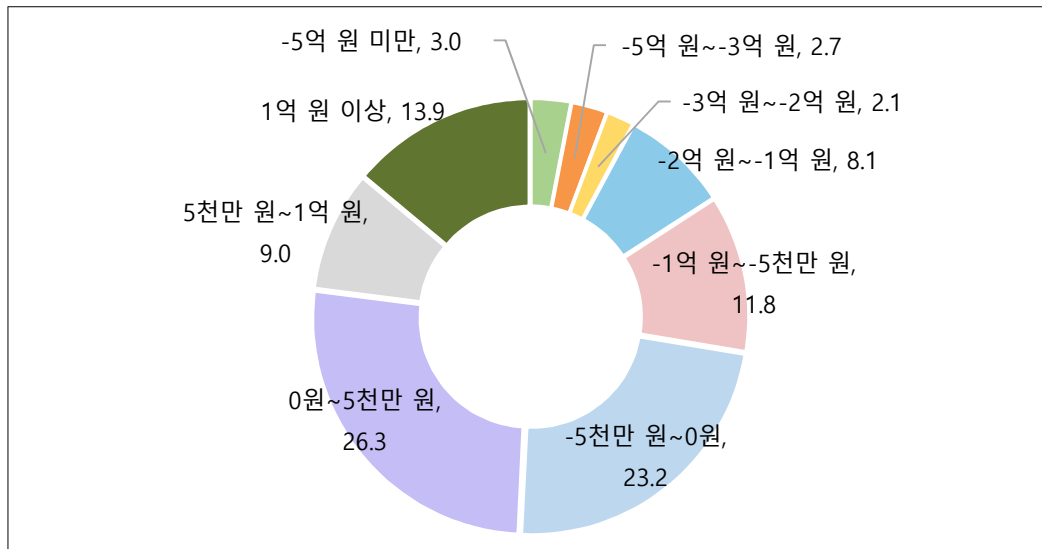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그림 4-29]와 [그림 4-30]은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2020년도에는 전체 3,062개의 사회적기업 중 49.2%인 1,507개소가 영업이익을 보고하고, 50.8%인 1,555개소가 영업손실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49.5%(1,342개소)가 영업이익을 보고하고, 50.5%(1,368개소)가 영업손실을 보고한 것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을 보고한 비율이 0.3%p 감소한 것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도 영업이익이 0~5천만 원이라고 응답한 사회적기업이 26.3%(804개소)로 가장 많았고, -5천만~0원 사이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이 23.2%(709개소)로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5천만 원~1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고한 기업은 9.0%(277개소), 1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기업이 13.9%(426개소)로 나타났다. 반면에 -1억~-5천만 원의 영업손실을 보고한 경우는 11.8%(360개소)로 나타났고, -5억 원 미만의 영업손실을 보고한 경우도 3.0%(92개소)에 달했다. 이러한 분포는 사회적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는 대체로 5천만 원 정도의 영업이익과 영업손실을 보고하는 소규모인 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영업활동을 통해 손해를 내고 있는 비율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1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과 1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도 각각 426개소(13.9%), 486개소(15.9%)로 나타나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 준다.

[그림 4-29] 영업이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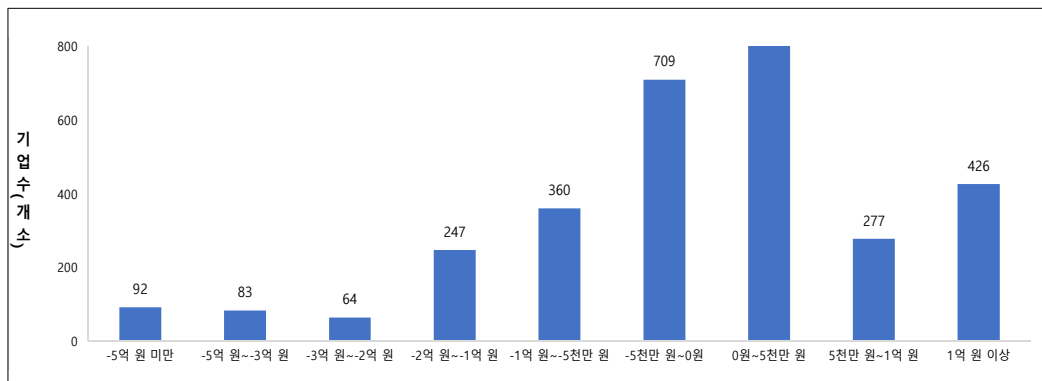
(전체 3,062개소, 단위: %)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그림 4-30] 영업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전체 3,062개소, 단위: 개소)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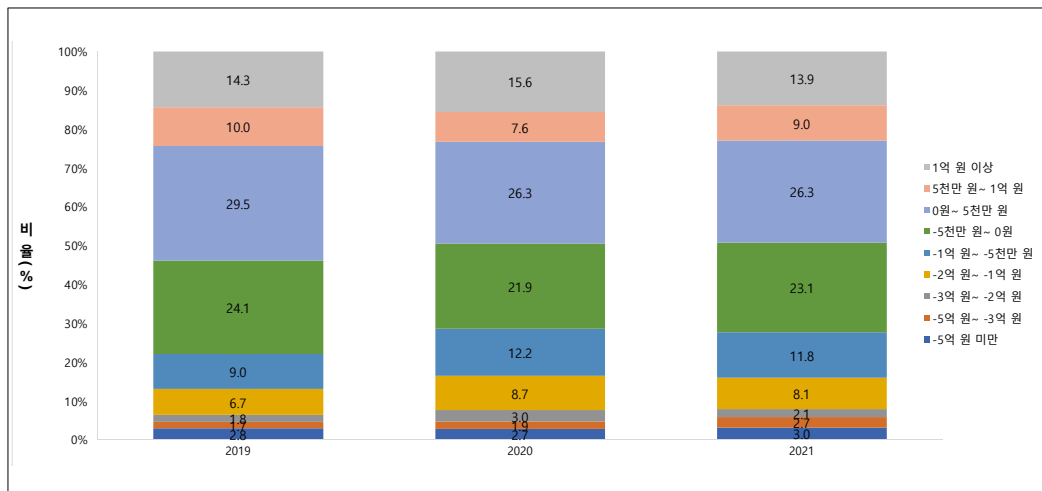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4-31]과 [그림 4-32]는 사회적기업의 연도별 영업이익(손실)의 분포와 분포별 기업 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인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의 규모는 최근 3년간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림 4-32]를 보면 영업이익을 보고한 기업의 수는 -3억 원 ~ -2억 원 구간에서는 2020년에 증가하였다가 다시

2021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5천만 원~1억 원 구간에서는 2020년에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 증가하며, 그 외 구간에서는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기업의 분포 비율을 [그림 4-31]을 통해 살펴보면, 1억 원 이상 구간은 2019~2020년 약 15.6%수준에서, 2021년에는 약 13.9%로 감소하고, 5천만 원~1억 원 구간은 2019~2020년 약 7.6%수준에서, 2021년에는 약 9.0%로 증가하였다. 2021년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보고한 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0~5천만 원 구간의 경우 2019년 29.5%에서 2020년 26.3%로 3.2%p 감소하고, 2021년에 동일하게 26.3%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5천만 원~0원 사이의 영업손실을 보고하는 기업의 비율은 2019년 24.1%에서 2020년에 21.9%로 2.2%p 감소하였고, 2021년에 다시 23.1%로 약 1.2%p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에 -1억~-5천만 원의 영업손실을 보고하는 기업의 비율은 2019년 9.0%에서 2020년 12.2%로 3.2%p 증가하였지만 2021년 11.8%로 약 0.4%p 소폭 감소하였다. 나머지 구간의 사회적기업 비율은 큰 변동은 없지만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31] 연도별 영업이익(손실) 분포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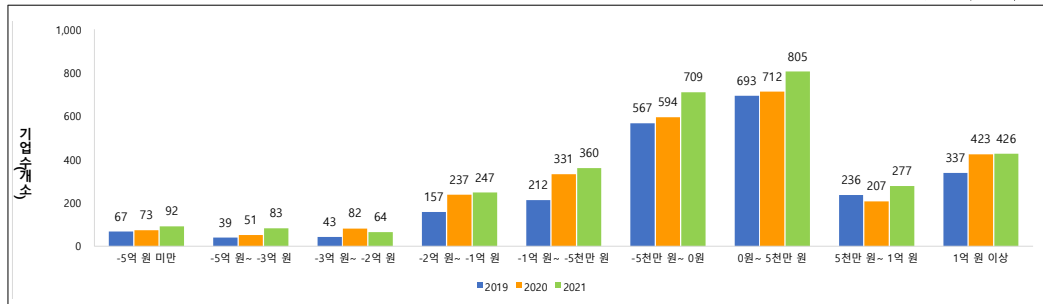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그림 4-32] 연도 및 영업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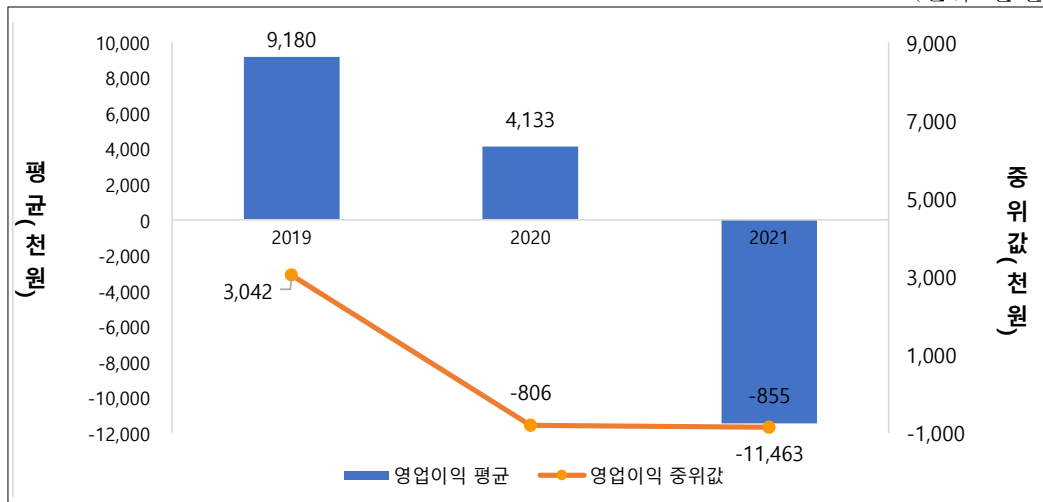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앞서 영업이익 총액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최근 3년 동안 사회적기업의 영업손실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영업이익 평균과 중위값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 4-33]과 같이, 평균 영업이익은 2019년 약 9백2십만 원에서 2020년 약 4백1십만 원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에 약 마이너스 1천1백5십만 원으로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영업이익(손실)의 중위값 또한 2019년에 약 3백만 원, 2020년에 약 마이너스 8십만 원으로 급감하였다가, 2021년 약 마이너스 8백6십만 원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4-33] 영업이익(손실)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한편, <표 4-2>는 영업이익(손실)의 평균과 중위값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했는데, 지역별로 영업이익(손실)의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다. 16개소의 사회적기업이 분포된 세종을 제외하면, 평균 영업이익이 0원보다 높게 나타난 지역은 전년도보다 2개 지역이 줄어 인천(약 200만 원, 194개소), 광주(약 1천만 원, 129개소), 대전(약 1천 6백만 원, 84개소), 경기(약 1천만 원, 540개소), 충남(약 2천7백만 원, 122개소), 경북(약 1천1백만 원, 210개소), 경남(약 1천1백만 원, 153개소)의 7개 지역만이 0보다 큰 평균 영업이익을 보고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평균 영업손실이 나타난 지역은 제주(약 -7천3백만 원, 80개소), 서울(약 -5천7백만 원, 531개소), 울산(약 -3천4백만 원, 101개소), 충북(약 -2천4백만 원, 129개소), 대구(약 -1천8백만 원, 115개소), 강원(약 -1천6백만 원, 171개소), 전북(약 -6백6십만 원, 180개소), 부산(약 -2백8십만 원, 142개소), 전남(약 -6십6만 원, 158개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손실)의 중위값은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이 0원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나타냈고, 그 외 지역은 영업손실의 중위값을 보고하였다.

<표 4-2> 지역별 영업이익(손실)

(단위: 천 원, 개소)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57,274	531	-12,164
부산	-2,765	142	-10,640
대구	-17,781	115	-3,984
인천	2,035	194	1,985
광주	10,048	129	5,656
대전	16,411	84	-4,474
울산	-35,008	101	-11,887
세종	-66,060	23	-62,791
경기	10,091	540	2,442
강원	-16,210	171	-3,762
충북	-24,041	129	1,622
충남	26,858	122	995
전북	-6,606	180	4,130
전남	-656	158	3,457
경북	10,990	210	1,801
경남	11,405	153	3,364
제주	-73,478	80	-13,503
전체	-11,463	3,062	-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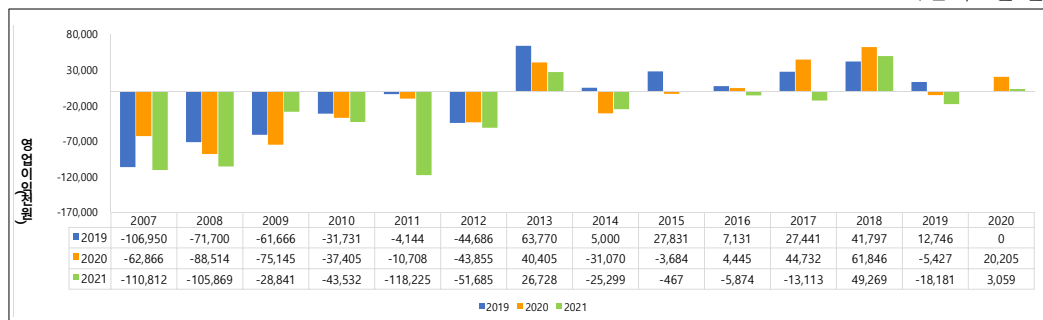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그림 4-34]는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손실)이다. 전반적으로 2007~2012년과 같이 초창기에 인증 받은 기업들은 최근 3년간 모두 영업손실을 보고하고 있고, 2013년, 2018년, 2020년과 같이 비교적 최근에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들은 모두 영업이익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2013과 2018년에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들은 2019~2021년 최근 3년간 약 2천만 원~6천만 원 내외의 영업이익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2013년에 인증을 받은 특정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그림 4-34] 인증연도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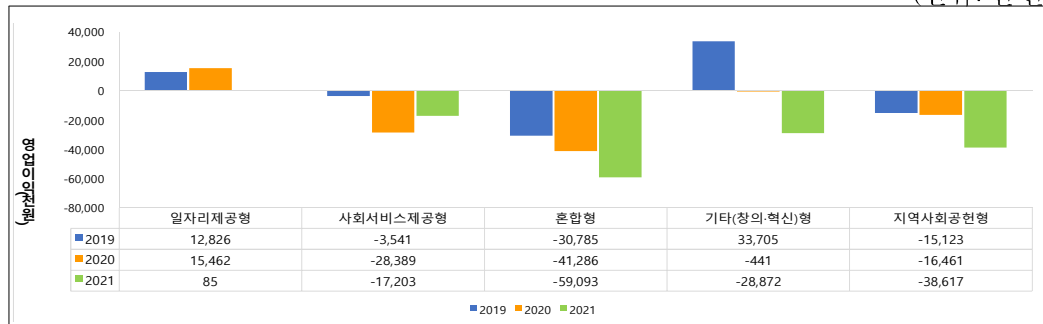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그림 4-35]는 인증유형별 평균 영업이익(손실)을 정리한 것으로, 사회서비스제공형을 제외한 모든 인증유형에서 전년 대비 평균 영업이익이 감소하였다. 일자리제공형의 평균 영업이익은 2020년 전년도대비 증가한 반면, 2021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경우 평균 영업손실이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지역사회공헌형의 경우 평균 영업손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림 4-35] 인증유형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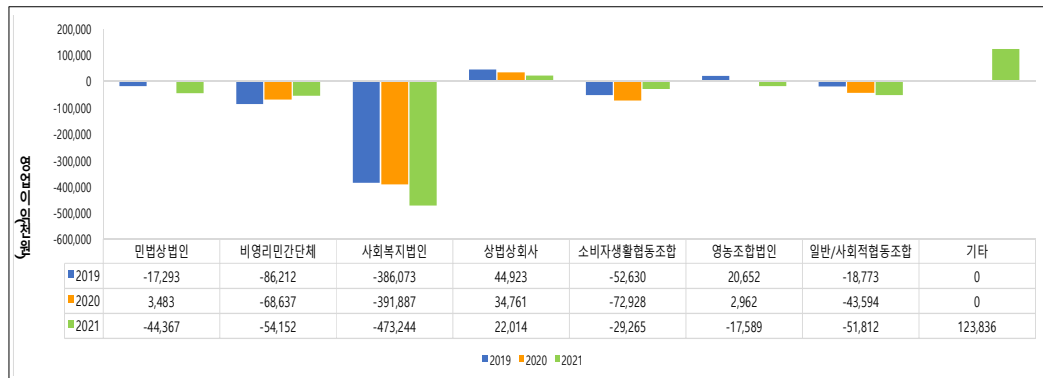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그림 4-36]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단위: 천 원)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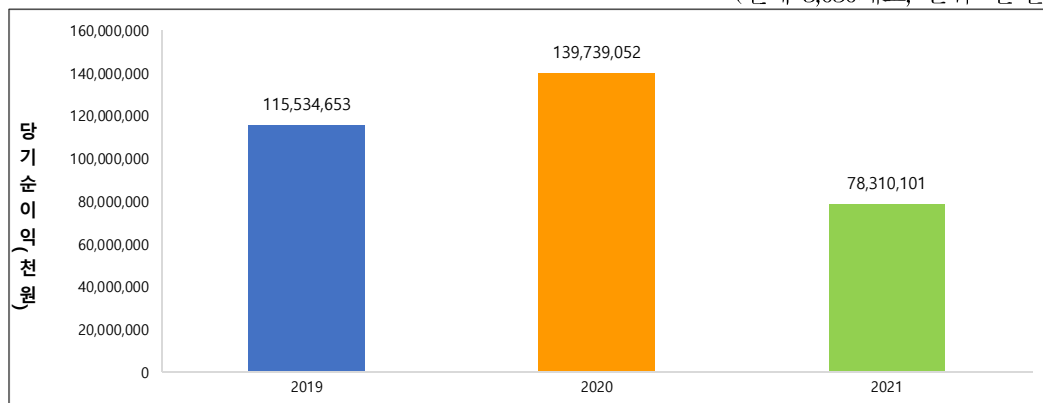
[그림 4-36]은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이익(손실)을 나타낸 것으로, 상법상회사,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적기업은 모두 영업손실을 보고하고 있고 영업손실은 대체로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상법상회사의 경우 영업이익이 2019년 약 4천5백만 원에서 2020년 약 3천5백만 원, 2021년 약 2천2백만 원으로 점차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영업이익 또한 2019년 약 2천7십만 원, 2020년 약 3백만 원으로 감소하고, 2021년에는 약 -1천8백만 원으로 손실로 전환 되었다. 사회복지법인, 일반/사회적 협동조합은 최근 3년간 영업손실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비영리 민간단체는 영업손실이 2019년 약 -8천6백만 원에서 2019년 약 -6천9백만 원, 2021년 약 -5천 4백만 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020년 큰폭으로 손실이 늘었으나, 2021년 약 -2천9백만 원으로 손실 규모가 줄었고, 민법상법인은 2020년 이익으로 전환되었다가 2021년 약 -4천4백만 원으로 다시 손실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당기순이익(손실)

다음으로는 사회적기업들의 당기순이익(손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음의 [그림 4-37]은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총액을 나타낸 그림이다. 2021년 사회적기업은 전년에 비하여 약 44.0% 감소한 78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2020년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으나 2021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그림 4-37]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총액

(전체 3,050개소,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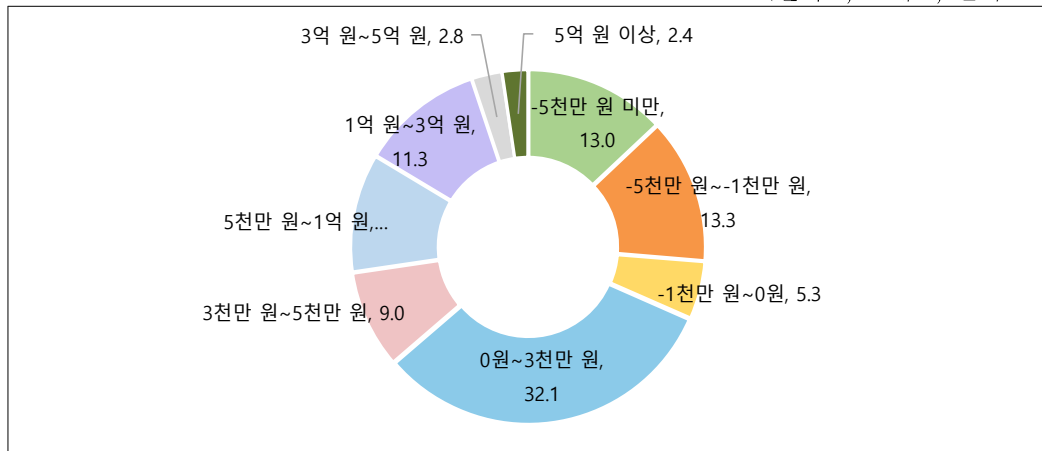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그림 4-38]과 [그림 4-39]는 당기순이익(손실)의 분포와 분포별 기업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3,050개소 중 0~3천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이 32.1%(979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5천만 원~-1천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보고한 기업이 13.3%(407개소), -5천만 원 미만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도 13.0%(395개소)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이 68.4%(2,086개소)인 반면에 당기순손실을 보고한 기업의 비율은 31.6%(964개소)로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전년도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1,798개소, 65.5%)보다 비율 및 수가 증가하였다.

[그림 4-38] 당기순이익(손실)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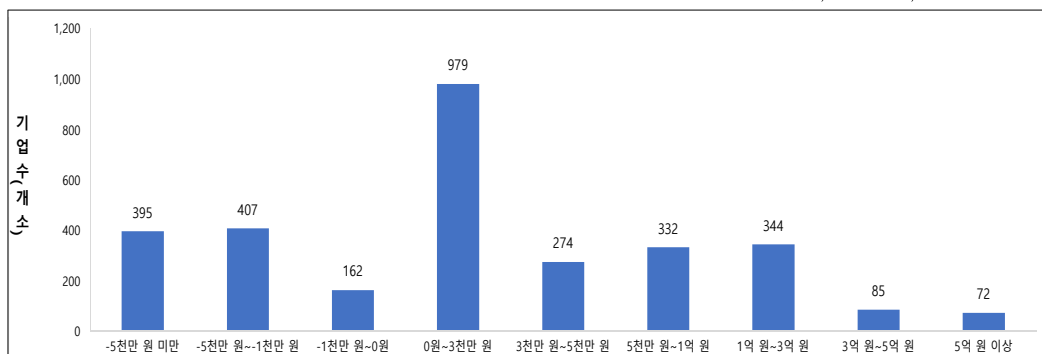
(전체 3,050개소, 단위: %)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그림 4-39] 당기순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전체 3,050개소,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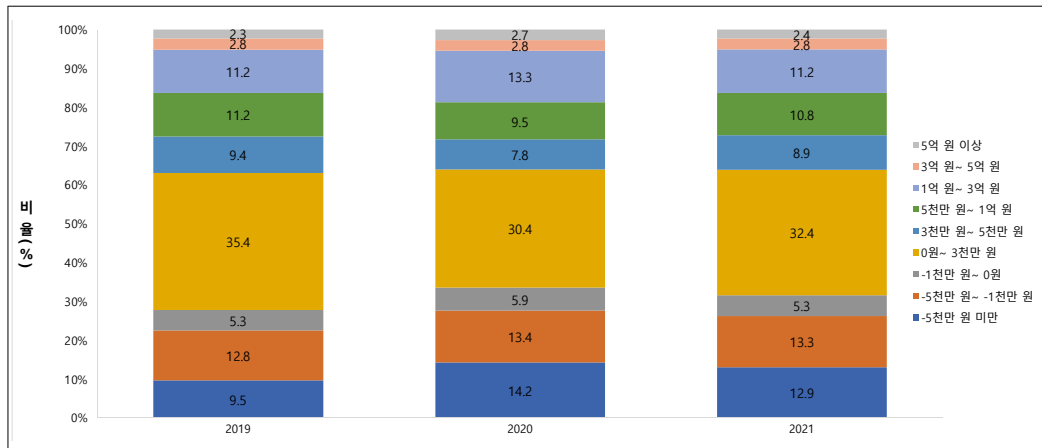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연도별로 당기순이익(손실)의 기업별 분포의 변화를 다음 [그림 4-40]과 [그림 4-41]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손실)의 분포는 유사한 패턴으로 대체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가장 많은 분포구간인 0~3천만 원 구간은 2020년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가, 2021년 다시 증가하였다. 영업이익의 분포별 기업 수 또한 각 구간별로 대체로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어, 영업이익을 보고하는 기업에서 이익의 폭이 증가하여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40]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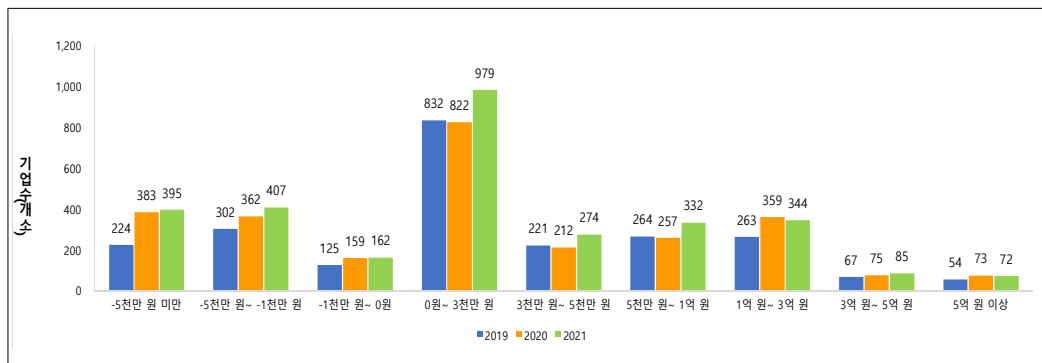
(단위: %)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그림 4-41] 연도 및 당기순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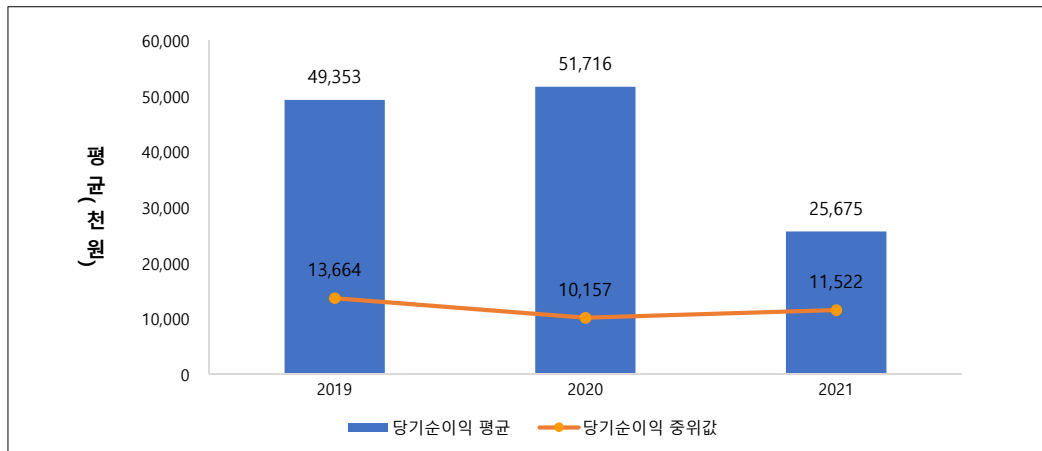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아래 [그림 4-42]는 당기순이익(손실)의 평균 및 중위값을 연도별로 분석한 내용이다. 사회적기업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20년에는 약 5천2백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약 2천6백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당기순이익의 중위값은 2020년 약 1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며, 2021년 약 1천2백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림 4-42] 당기순이익(손실)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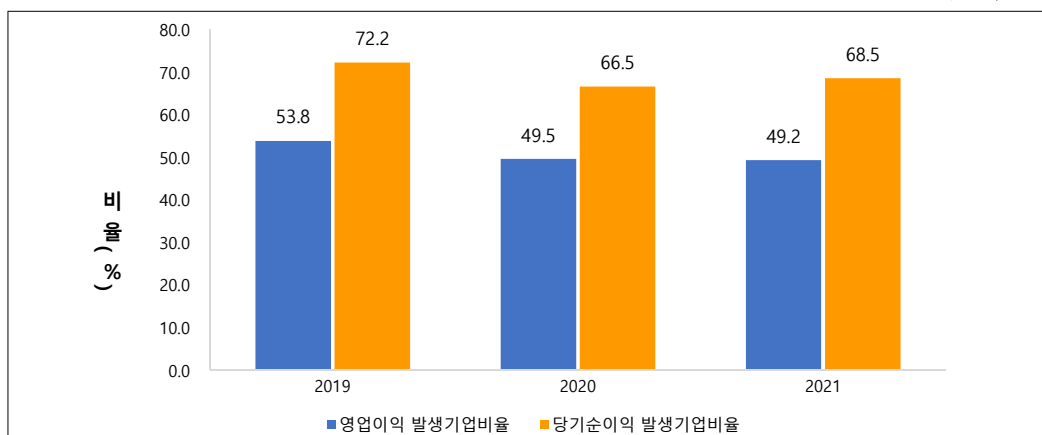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아래 [그림 4-43]은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과 당기순이익(손실)의 발생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의 비율이 2019년 72.2%에 2020년에 66.5%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는 다시 68.5%로 소폭 증가하였다. 영업이익을 보고한 기업의 비율 또한 2019년 53.8%에서 2020년 49.5%로 4.3%p 감소하였다가 다시 2021년 49.2%로 감소하였다. 기업의 경영환경 및 성과의 변화라고 성급하게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4-43] 영업이익(영업손실) 및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발생 비교

(단위: %)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아래 <표 4-3>은 2021년 사회적기업 당기순이익(손실)의 평균과 중위값을 지역에 따라 분류한 결과로,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수가 적은 세종을 제외하면, 대전(약 7천3백만 원), 광주(약 6천5백만 원), 경기(약 5천5백만 원), 제주(약 5천2백만 원) 등이 당기순이익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인천이 약 -1억원으로 가장 낮았다. 중위값으로 살펴보면, 세종을 제외하고 경기(약 2천2백만 원)가 가장 높았고, 광주(약 2천1백만 원), 전남(약 1천4백만 원), 전북(약 1천4백만 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반면에 부산이 약 4백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중위값을 보고하였다.

<표 4-3> 지역별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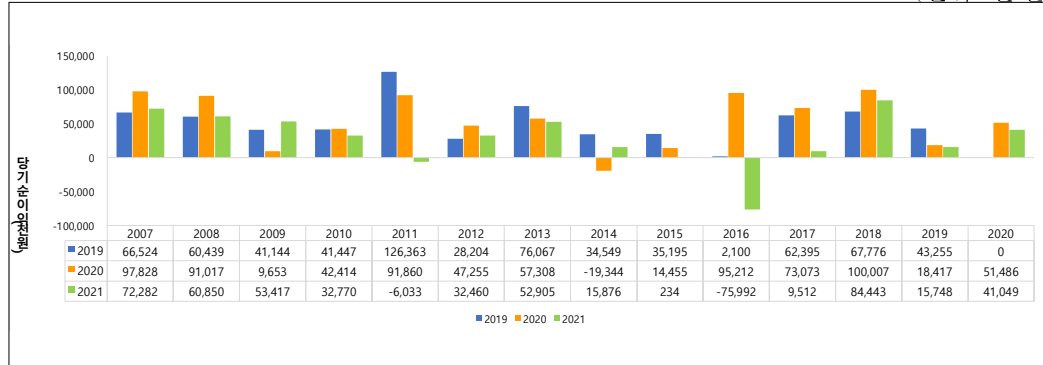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1,324	530	8,541
부산	18,159	141	3,877
대구	1,463	115	6,540
인천	-100,836	192	12,242
광주	65,034	128	21,040
대전	73,157	83	6,724
울산	15,353	101	5,616
세종	63,494	23	10,972
경기	55,353	539	22,155
강원	25,610	170	9,190
충북	40,859	129	11,961
충남	50,467	122	8,491
전북	47,053	178	14,248
전남	31,682	158	14,346
경북	38,776	209	10,623
경남	36,641	152	9,005
제주	52,017	80	9,900
전체	25,675	3,050	11,522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다음 [그림 4-44]는 최근 3년간의 평균 당기순이익(손실)을 인증연도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모든 연도의 인증 기업이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다. 인증연도에 따른 추세는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2011년 인증기업들이 2021년에 당기순이익 평균이 약 -6백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2016년 인증기업들은 2021년에 당기순이익 평균 약 -7천5백만원으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4-44] 인증연도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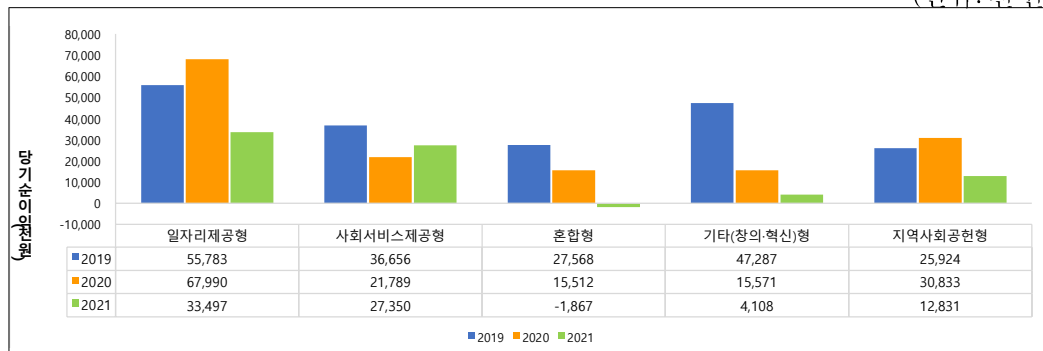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다음의 [그림 4-45]는 최근 3년간의 인증유형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모든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고, 2021년은 일자리제공형의 당기순이익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최근 3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유일하게 2021년 증가추세를 보였고, 일자리제공형과 지역사회공헌형은 2020년까지 증가 추세가 나타났으나 2021년 하락하였으며, 기타(창의·혁신)형과 혼합형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림 4-45] 인증유형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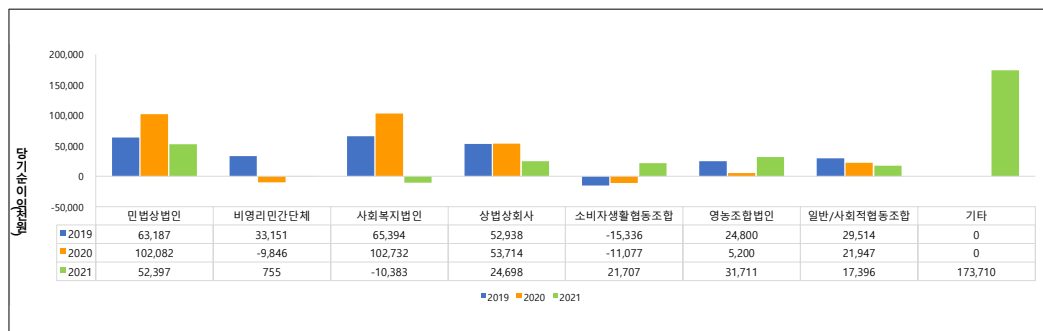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그림 4-46]은 최근 3년간 조직형태에 따른 평균 당기순이익(손실)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민법상법인과 상법상회사, 영농조합법인,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이 최근 3년간 꾸준히 당기순이익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는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 소폭 상승하였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019년에 당기순손실을 작게 보고하였다가 2020년에는 당기순손실 폭을 줄였으며 2021년 흑자로 전환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은 2018년에는 약 7백만 원 수준의 당기순손실을 보고하다가, 2020년에 약 1억 2천7백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으나 2021년 적자로 전환되었다.

마지막으로 <표 부가분석 4-1>과 <표 부가분석 4-2>에서는 앞서 정리한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의 총액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4-46] 조직형태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단위: 천 원)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재정성과분석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19, 2020, 2021)

<표 부가분석 4-1> 재정성과 총액(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단위: 천 원)

항목		2019	2020	2021
매출액	전체총액	4,817,046,340	5,293,913,658	5,975,954,691
	인증연도	2007	114,108,698	132,051,651
		2008	159,902,462	174,012,415
		2009	93,463,823	77,908,226
		2010	240,220,141	230,194,278
		2011	345,916,545	319,638,345
		2012	182,389,752	183,985,493
		2013	1,346,925,629	1,229,453,794
		2014	357,242,918	352,423,126
		2015	374,301,165	354,998,628
		2016	480,271,221	502,672,422
		2017	298,695,098	321,269,610
		2018	422,418,847	484,364,310
		2019	401,190,041	443,029,661
		2020	-	487,911,691
		2021	-	524,497,071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2,955,190,650	3,503,007,761
		사회서비스제공형	141,241,777	148,508,847
		혼합형	180,259,093	155,891,029
		기타형	1,369,368,107	1,259,602,359
		지역사회공헌형	170,986,713	226,903,660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598,366,101	601,608,668
		비영리민간단체	85,307,538	17,757,058
		사회복지법인	120,010,322	137,785,381
		상법상회사	3,492,583,730	3,942,416,6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4,237,696	19,046,277
		영농조합법인	135,766,587	162,847,705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70,774,367	412,451,953
		기타	-	-

항목			2019	2020	2021
공공 매출	전체총액		1,887,083,694	2,295,137,736	2,508,949,074
	인증 연도	2007	36,588,321	54,820,456	62,195,460
		2008	76,452,308	92,137,759	102,099,061
		2009	35,811,046	41,475,542	65,714,467
		2010	119,150,705	104,286,775	95,867,123
		2011	223,402,001	199,089,811	125,737,915
		2012	95,561,322	109,369,460	111,647,770
		2013	119,686,492	113,397,933	123,683,147
		2014	155,361,542	170,985,699	191,801,975
		2015	229,673,487	219,061,558	218,925,936
		2016	227,761,849	247,457,065	221,281,398
		2017	173,060,401	200,755,005	188,507,541
		2018	232,781,925	279,888,251	306,875,758
		2019	161,792,295	191,575,814	208,492,980
		2020	-	270,836,601	285,518,697
		2021	-	-	200,599,847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571,357,841	1,934,567,029	2,079,491,746
		사회서비스제공형	75,989,035	81,015,354	122,986,378
		혼합형	96,664,544	89,206,370	102,556,939
		기타형	78,262,911	95,833,530	100,674,409
		지역사회공헌형	64,809,363	94,515,452	103,239,603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368,493,192	405,000,226	459,500,189
		비영리민간단체	56,059,320	8,674,088	25,988,325
		사회복지법인	82,823,096	101,708,102	84,112,550
		상법상회사	1,163,056,125	1,520,650,395	1,601,568,23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717,797	8,239,960	2,747,159
		영농조합법인	16,827,776	15,835,785	24,954,423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92,106,388	235,029,176	307,555,572
		기타	-	-	2,522,621
민간 매출	전체총액		2,929,962,644	2,998,775,921	3,467,005,616
	인증 연도	2007	77,520,377	77,231,194	75,116,598
		2008	83,450,154	81,874,655	84,799,235
		2009	57,652,777	36,432,684	34,174,090
		2010	121,069,436	125,907,502	125,708,609
		2011	122,514,544	120,548,533	103,898,634
		2012	86,828,430	74,616,032	91,818,595
		2013	1,227,239,137	1,116,055,861	1,061,767,874
		2014	201,881,376	181,437,427	187,095,932

항목			2019	2020	2021
민간 매출	인증 연도	2015	144,627,678	135,937,069	134,922,406
		2016	252,509,371	255,215,357	323,779,624
		2017	125,634,696	120,514,604	133,710,240
		2018	189,636,922	204,476,059	220,383,248
		2019	239,397,745	251,453,847	281,993,805
		2020	-	217,075,090	283,939,503
		2021	-	-	323,897,224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383,832,808	1,568,440,731	1,961,795,782
		사회서비스제공형	65,252,742	67,493,493	91,350,110
		혼합형	83,594,548	66,684,659	69,078,748
		기타형	1,291,105,194	1,163,768,829	1,150,200,894
		지역사회공헌형	106,177,351	132,388,207	194,580,082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229,872,907	196,608,442	244,137,416
		비영리민간단체	29,248,218	9,082,970	13,484,513
		사회복지법인	37,187,226	36,077,278	56,224,115
		상법상회사	2,329,527,606	2,421,766,216	2,699,238,2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519,899	10,806,316	29,804,881
		영농조합법인	118,938,811	147,011,919	145,365,397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78,667,977	177,422,776	271,424,712
		기타	-	-	7,326,362
영업 이익	전체총액		21,588,856	11,203,040	-35,101,092
	인증 연도	2007	-3,743,233	-2,200,311	-3,656,806
		2008	-7,456,782	-8,851,424	-9,845,804
		2009	-3,329,976	-3,757,256	-1,297,855
		2010	-4,283,728	-4,937,550	-5,354,492
		2011	-439,286	-1,081,587	-10,876,717
		2012	-5,094,201	-4,824,093	-5,426,890
		2013	12,562,782	7,879,140	4,971,460
		2014	1,019,930	-6,183,124	-4,781,425
		2015	6,512,398	-828,910	-101,758
		2016	1,690,025	1,000,177	-1,274,697
		2017	6,695,495	10,467,425	-2,911,011
		2018	12,497,241	18,059,302	13,499,826
		2019	4,958,191	-2,105,841	-6,545,001
		2020	-	8,567,095	1,269,396
		2021	-	-	-2,769,318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20,098,492	27,647,629	172,825
		사회서비스제공형	-506,372	-4,939,757	-3,801,779
		혼합형	-5,880,004	-7,927,072	-11,405,037
		기타형	10,145,153	-153,671	-10,567,223
		지역사회공헌형	-2,268,414	-3,424,087	-9,499,878

항목			2019	2020	2021
조직 형태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5,326,131	961,350	-15,217,931
		비영리민간단체	-9,914,352	-4,804,593	-3,953,065
		사회복지법인	-24,322,587	-29,783,447	-34,073,544
		상법상회사	65,992,091	62,223,880	43,873,45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473,667	-729,286	-321,911
		영농조합법인	1,528,269	293,287	-1,758,864
		일반/사회적협동조합	-5,894,767	-16,958,150	-24,144,576
		기타	-	-	495,344
당기 순이익	전체총액		115,534,653	139,739,052	78,310,101
	인증 연도	2007	2,328,341	3,423,991	2,385,319
		2008	6,104,308	8,828,673	5,537,387
		2009	2,180,606	482,677	2,350,327
		2010	5,553,914	5,556,364	4,030,742
		2011	13,394,452	9,094,236	-542,973
		2012	3,215,310	5,198,081	3,408,312
		2013	14,832,970	11,117,849	9,734,538
		2014	6,978,955	-3,830,272	2,984,763
		2015	8,200,383	3,267,009	50,763
		2016	497,792	21,422,920	-16,490,167
		2017	15,224,349	17,099,126	2,111,594
		2018	20,197,172	29,102,130	23,052,862
		2019	16,826,102	7,146,045	5,653,552
		2020	-	21,830,218	17,035,406
		2021	-	-	17,007,676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87,021,267	121,227,030	68,065,956
		사회서비스제공형	5,205,131	3,747,739	5,989,546
		혼합형	5,237,990	3,009,494	-358,461
		기타형	14,233,449	5,403,186	1,495,221
		지역사회공헌형	3,836,816	6,351,601	3,117,839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19,335,219	27,868,479	17,762,492
		비영리민간단체	3,746,106	-669,566	53,600
		사회복지법인	3,858,271	7,396,728	-716,418
		상법상회사	77,660,023	96,201,889	49,172,76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38,028	-110,777	238,782
		영농조합법인	1,835,235	514,892	3,171,129
		일반/사회적협동조합	9,237,827	8,537,405	8,106,615
		기타	-	-	521,131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 지역 및 표준산업분류별 분석(2021)

<표 부가분석 4-2> 재정성과 총액 분석(지역, 표준산업분류)-공공민간매출 추가

(단위: 천 원)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50,997,237	1,338,898,608	95,171,770	235,909,980	162,937,802	119,852,045	99,371,218	41,783,964	1,234,936,531	229,160,022	237,920,783	161,735,241	248,767,918	194,931,525	333,333,528	187,771,701	87,504,786
매출액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5,280,736	198,267,637	905,296	74,585,474	1,636,364,938	466,357,113	13,794,804	455,700,473	71,865,373	129,034,188	62,912,333	11,379,893	73,948,443	2,238,784,193	108,664,178	219,166,945	27,328,892
		686,607,134	73,024,125	38,304,605	133,803,270	84,464,230	31,537,341	39,907,781	15,766,427	686,138,768	138,517,983	108,823,032	82,988,232	105,234,712	74,710,246	93,807,339	71,466,234	23,817,224
공공 매출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143,738,210	120,571,215	453,323	10,179,984	208,140,716	255,728,828	10,606	218,448,236	13,136,534	57,928,855	31,141,648	2,041,478	33,087,502	1,181,034,407	46,532,727	171,237,336	11,241,261
		1,354,380,103	60,874,483	56,857,165	132,103,711	78,473,551	88,284,704	59,433,437	230,175,37	568,767,793	90,642,039	129,097,691	78,746,949	143,533,235	1,202,212,80	239,325,938	116,305,447	63,687,363
민간 매출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61,532,525	77,694,422	451,973	64,405,490	1,427,424,193	210,628,285	13,784,198	237,252,237	58,738,839	71,104,323	31,770,745	9,338,415	40,860,940	1,028,743,786	62,101,451	47,929,619	16,087,631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표 부가분석 4-2> 재정성과 총액 분석(지역, 표준산업분류별) 계속

(단위: 천 원)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0,412,331	-392,677	-2,044,868	394,701	1,296,180	1,378,502	-3,535,794	-1,519,372	5,449,079	-2,771,839	-3,101,335	3,276,674	-1,189,024	-103,588	2,307,846	1,744,986	-5,878,232
영업 이익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5,414,433	-11,403,632	-220,645	-574,930	6,380,675	-6,491,236	-4,580,723	4,357,059	-4,546,954	-14,621,812	-6,336,685	520,878	-2,036,231	-9,647,656	4,712,611	7,330,266	-3,206,198
당기순 이익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01,941	2,560,401	168,204	-19,360,497	8,324,336	6,071,992	1,550,659	1,460,361	29,835,148	4,353,723	5,270,896	6,156,974	8,375,434	5,005,801	8,104,096	5,569,370	4,161,333
당기순 이익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8,124,351	4,730,232	-89,816	1,914,052	14,870,227	11,981,942	-5,333,955	9,679,284	-455,047	-1,495,166	-6,300,656	854,489	275,462	22,926,445	8,240,701	7,333,333	401,173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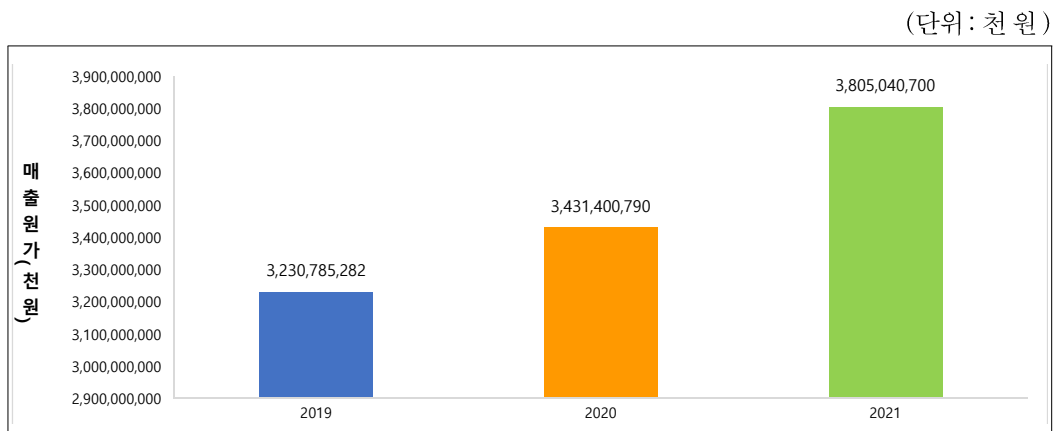
제2절 지출: 비용구조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수입구조에 대한 분석에 이어 사회적기업의 비용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업보고서 양식에서 비용구조로 구분하여 분석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표들은 매출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경비 포함), 영업외비용, 인건비(노무비 포함)가 있다.

1. 매출원가

다음 [그림 4-47]에는 사회적기업 최근 3년간 매출원가 총액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2021년의 사회적기업은 약 3조 8천억 원의 매출원가 총액을 보고하여, 전년도에 비해 약 3천7백억 원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폭은 2019~2020년 사이의 매출원가 증가액인 약 2천억 원보다 더 늘어났으며, 최근 3년간 매출액 총액이 증가하는 추세와도 일치한다.

[그림 4-47] 연도별 매출원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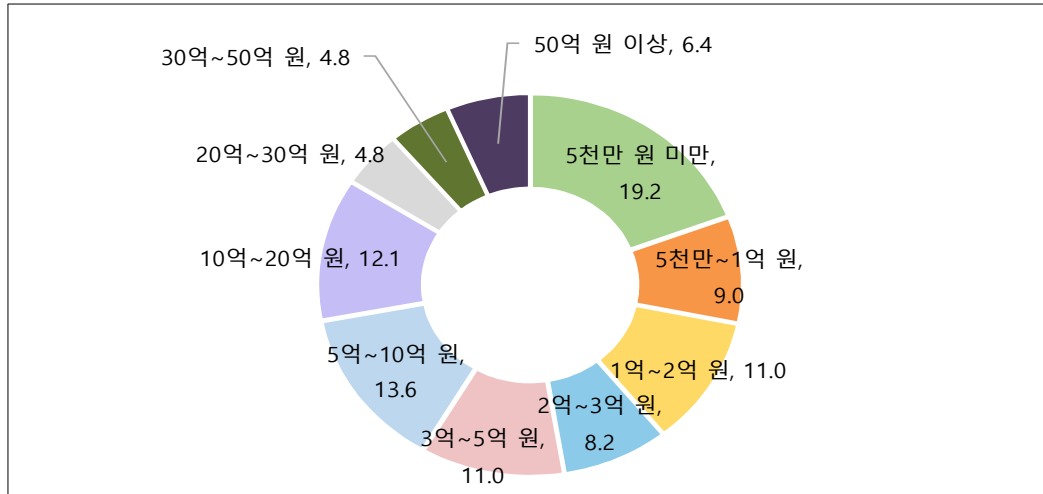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아래의 [그림 4-48]과 [그림 4-49]는 매출원가의 분포와 분포별 기업의 수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매출원가를 보고한 전체 2,188개소 중 2021년도에 매출원가가 5천만 원 미만이라고 보고한 사회적기업이 19.2%(420개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5억~10억 원이 13.6%(297개소), 10억~20억 원이 12.1%(265개소)

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매출원가가 50억 원 이상 사회적기업도 6.4%(140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3억 원을 기준으로 전체 사회적기업 중 3억 원 미만의 매출원가를 보고한 경우가 52.6%(1,151개소), 3억 원 이상이 47.4%(1,037개소)로 절반씩 차지하였다.

[그림 4-48] 매출원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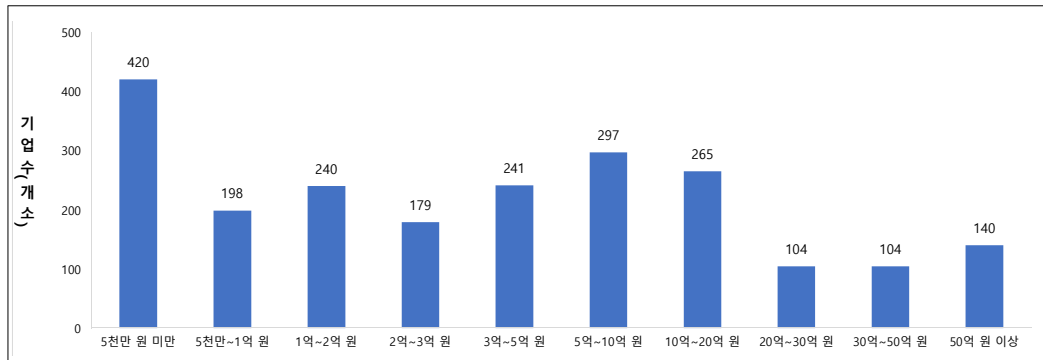
(전체 2,188개소, 단위: %)



주: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그림 4-49] 매출원가 분포별 기업 수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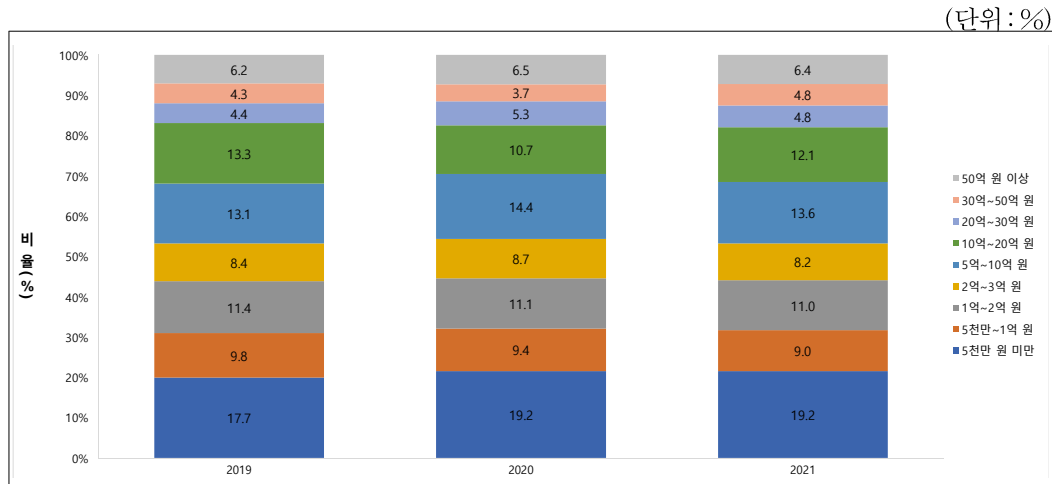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그림 4-50]은 최근 3년간 연도별 매출원가의 분포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최근 3년간 각 항목의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큰 변화는 없지만, 매출원가

가 5천만 원~1억 원인 구간은 각각 9.8%, 9.4%, 9.0%, 1억 원~2억 원인 구간은 각각 11.4%, 11.1%, 11.9%로 해마다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1년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분포 구간은 10억~20억 원, 30억~50억 원 구간에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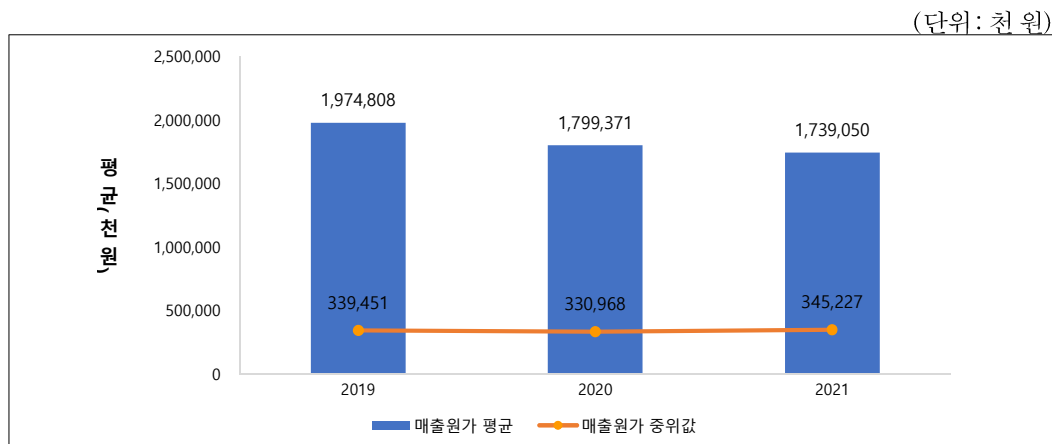
[그림 4-50] 연도별 매출원가 분포 비교



주: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그리고 아래 [그림 4-51]은 최근 3년간의 매출원가 평균과 중위값의 변화를 추적한 것이다. 매출원가 평균은 2019 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21년에는 약 17억 4천만 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매출원가의 중위값은 다소 감소하다가 증가하여 2021년에는 약 3억 5천만 원을 보고하였다.

[그림 4-51] 연도별 매출원가 평균 및 중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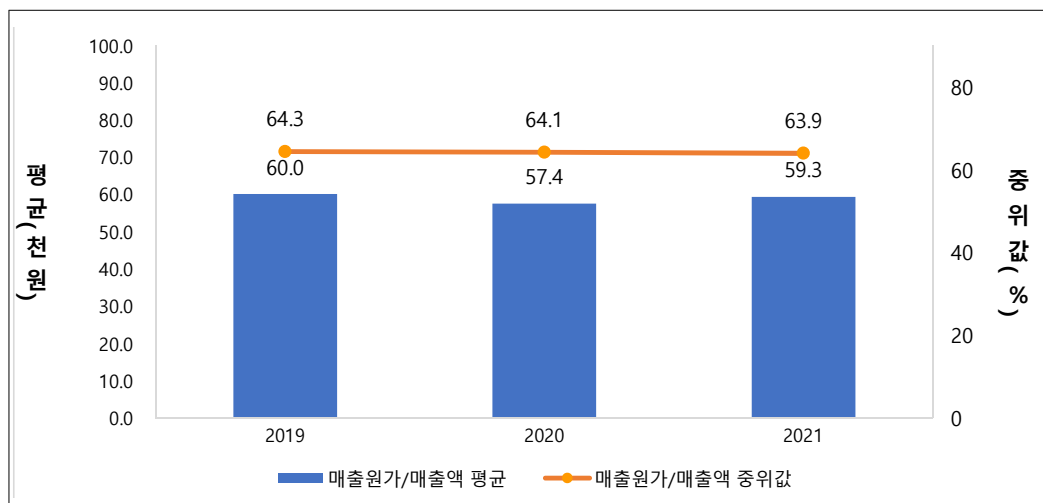


주: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그림 4-52]는 연도별 매출액(평균 및 중위값)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평균 기준일 때,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2019년 60.0%, 2020년 57.4%, 2021년 59.3%로 매년 6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위값 기준으로도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2019년 64.3%, 2020년 64.1%, 2021년 63.9%로 매년 64% 내외에서 약간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완만하지만 이러한 하락 추세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어 매출총이익률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최근 3년 간 사회적기업의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52] 연도별 매출액(평균 및 중위값) 대비 매출원가 비중

(단위: %)



주: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표 4-4>는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원가 및 매출액 평균/중위값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을 비교한 결과이다. 서울의 경우 매출원가의 평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약 44억 2천만 원), 평균 매출원가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약 6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매출액 평균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남(73.3%)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광주가 46.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매출원가의 중위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을 제외하면, 경기(약 5억 9천만 원), 경북(약 4억 원), 전북(약 3억 9천만 원), 경남(약 3억 6천만 원)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강원(약 1억 5천만 원)은 2억 원 미만으로 낮았다.

<표 4-4>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원가 비교

(단위: 천 원, 개소, %)

지역	항목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매출원가	4,422,759	336	349,532
	매출원가 비중	57.6	336	58.2
부산	매출원가	692,452	90	157,848
	매출원가 비중	50.8	90	54.7
대구	매출원가	731,328	75	243,352
	매출원가 비중	61.5	75	60.4
인천	매출원가	1,121,995	144	309,407
	매출원가 비중	58.5	144	63.1
광주	매출원가	970,779	100	326,975
	매출원가 비중	46.2	100	47.3
대전	매출원가	674,283	58	290,615
	매출원가 비중	55.6	58	64.9
울산	매출원가	772,116	75	324,297
	매출원가 비중	64.5	75	61.3
세종	매출원가	1,531,862	15	410,148
	매출원가 비중	52.8	15	56.2
경기	매출원가	1,804,147	389	593,798
	매출원가 비중	63.2	388	67.4
강원	매출원가	1,252,308	118	155,790
	매출원가 비중	53.6	118	53.2
충북	매출원가	1,540,046	103	356,342
	매출원가 비중	59.2	103	66.9
충남	매출원가	1,045,807	89	315,467
	매출원가 비중	58.8	89	69.9
전북	매출원가	1,067,472	125	388,454
	매출원가 비중	57.8	125	68.0
전남	매출원가	987,310	135	295,490
	매출원가 비중	73.3	135	67.1
경북	매출원가	1,780,617	167	400,829
	매출원가 비중	60.8	167	66.2
경남	매출원가	1,011,936	110	361,728
	매출원가 비중	58.0	110	66.8
제주	매출원가	788,119	59	304,802
	매출원가 비중	58.9	59	64.1
전체	매출원가	1,739,050	2,188	345,227
	매출원가 비중	59.3	2,187	63.9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평균 매출원가 및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을 사회적기업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표 4-5>에서 제시하였다. 우선 인증연도가 2013년, 기타(창의·혁신)형의 매출원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매출이 큰 특정 기업의 극단값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이다. 그 외 인증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과 2008년, 2009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증기업의 매출원가 평균이 최근 3년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2016년 인증기업이 2021년 69.8%로 전년 대비 15.7%p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9년 3.7%p로 비교적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표 4-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매출원가 및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

(단위: 천 원, %)

구분		2019		2020		2021	
		매출원가	매출원가비중	매출원가	매출원가비중	매출원가	매출원가비중
인증연도	2007	1,795,839	61.8	2,588,331	65.1	3,098,328	66.2
	2008	1,189,741	60.7	1,273,376	65.2	1,362,812	74.0
	2009	961,125	59.7	984,004	60.6	1,123,505	56.9
	2010	1,817,910	63.4	1,731,008	64.0	1,695,827	64.4
	2011	3,017,800	73.5	2,974,233	75.0	2,225,348	79.7
	2012	1,387,901	51.6	1,553,181	57.4	1,754,130	58.2
	2013	8,398,876	60.7	7,671,360	61.4	7,545,875	63.4
	2014	1,351,946	54.6	1,364,197	54.4	1,628,735	59.6
	2015	1,178,326	54.5	1,123,783	54.6	1,166,155	55.1
	2016	2,011,778	54.7	2,004,173	54.7	2,380,973	69.8
	2017	1,093,008	83.3	1,228,773	57.5	1,264,382	59.2
	2018	1,138,846	58.7	1,344,627	60.4	1,486,517	57.6
	2019	856,047	52.2	927,955	54.0	1,132,456	56.8
	2020	-	-	895,522	52.3	1,033,701	53.9
	2021					863,179	54.3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593,239	65.7	1,607,489	61.6	1,616,552	63.6
	사회서비스제공형	518,803	40.8	393,992	36.9	363,819	39.1
	혼합형	410,690	41.8	408,688	51.2	430,348	56.5
	기타(창의·혁신)형	7,058,461	39.1	5,255,116	39.6	4,896,559	41.0
	지역사회공헌형	947,996	56.2	874,858	56.6	944,110	55.2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1,971,974	62.2	2,313,951	65.3	2,139,957	68.7
	비영리민간단체	970,508	59.2	150,479	34.8	737,279	52.1
	사회복지법인	1,726,856	84.9	1,656,622	85.6	1,855,233	84.1
	상법상회사	2,294,383	55.6	2,012,755	56.4	1,908,793	58.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286,948	71.3	1,421,260	67.2	2,326,616	71.3
	영농조합법인	1,494,126	71.7	1,355,141	68.6	1,380,024	68.6
	일반/사회적협동조합	816,743	70.0	749,151	48.6	806,418	48.7
	기타	-	-	-	-	2,450,892	60.4

주: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인증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창의·혁신)형이 2019년도 약 71억 원, 2020년 약 53억 원, 2021년 약 49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매출원가를 보고하였다.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은 일자리제공형이 최근 3년간 61.6~65.7%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으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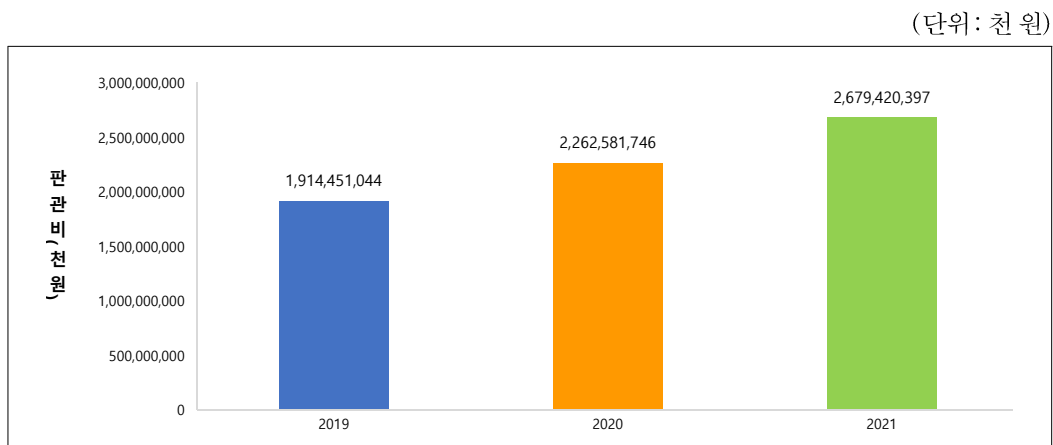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조직형태별 분류를 살펴보자면, 최근 3년간 상법상 회사가 약 20억 원 내외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매출원가를 안정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매출원가의 비중은 사회복지법인이 최근 3년간 약 84% 내외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매출원가 비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의 매출원가 비중은 최근 3년간 지속 감소 및 유지하였으나, 민법상법인의 경우 매년 매출원가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 판매비 및 관리비(경비 포함)

다음으로 판매비 및 관리비 지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증 사회적기업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비 및 관리비 외에 제조원가의 경비가 존재하는 경우 경비를 포함한 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아래 [그림 4-53]에는 사회적기업 최근 3년간 판매비 및 관리비 금액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2021년 사회적기업의 판매비 및 관리비는 약 2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천1백7십억 원이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 4-53] 연도별 판매비 및 관리비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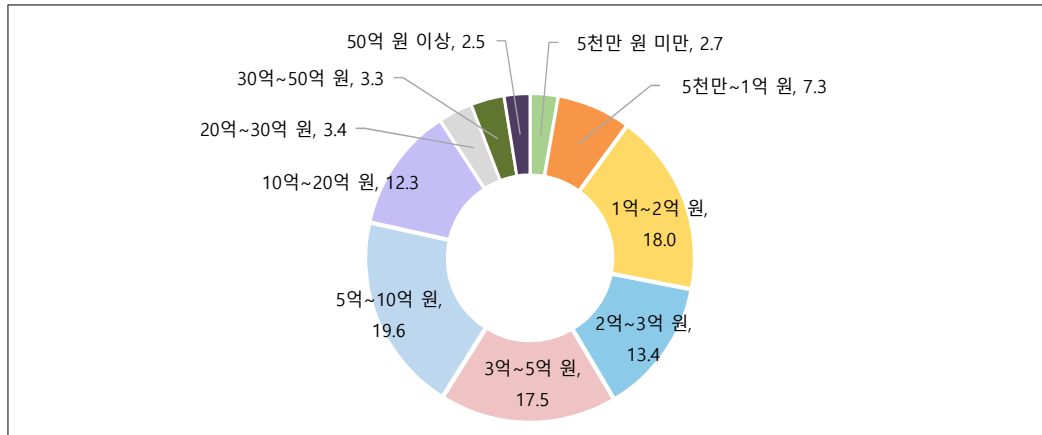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그림 4-54]와 [그림 4-55]는 사회적기업의 2021년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도와 분포별 기업 수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 3,063개소 중 5억~10억 원 사이의 판매비 및 관리비를 지출한 사회적기업이 19.6% 599개소로 가장 많았고, 1억~2억 원(18.0% 552개소), 3억~5억 원(17.5% 535개소), 2억~3억 원(13.4% 410개소)의 판매비 지출을 보고하는 사회적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4-54]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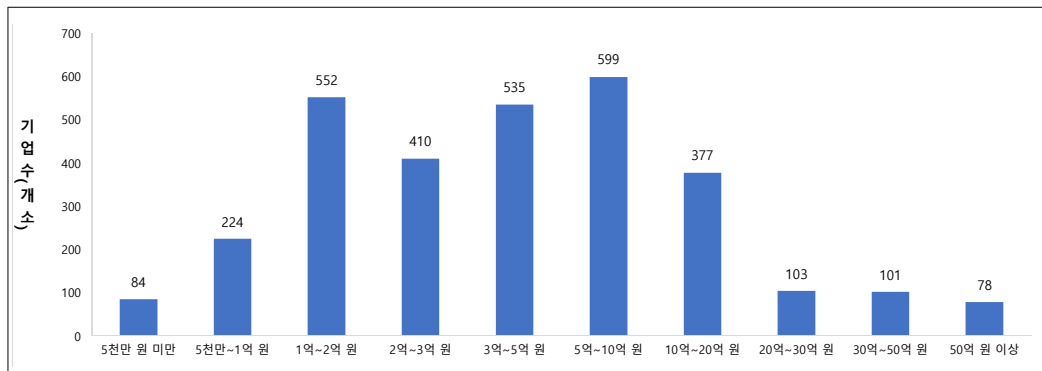
(전체 3,063개소, 단위: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그림 4-55]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별 기업 수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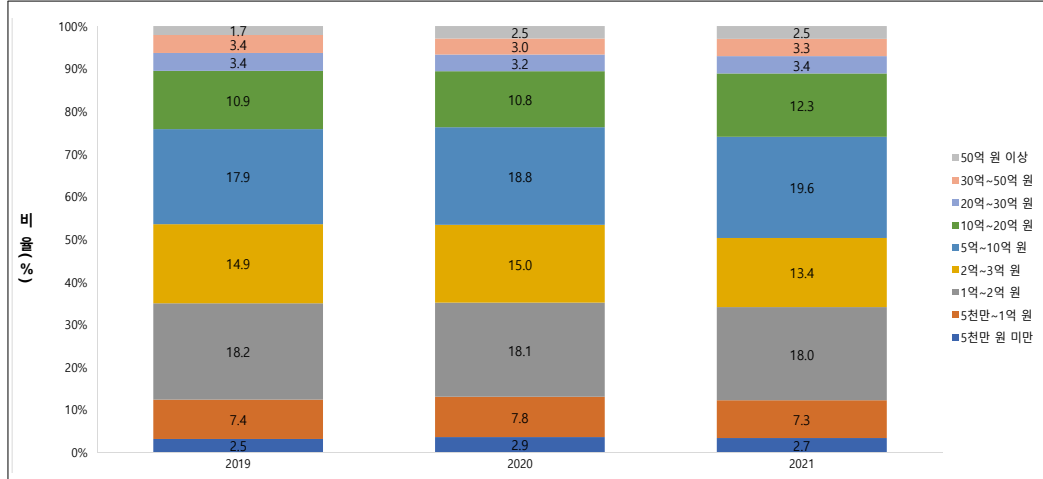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한편, [그림 4-56]에서 판매비 및 관리비의 분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전반적인 추세는 큰 변화가 없이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판매비 및 관리비가 5억~10억 원인 구간의 비율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였다(각각 17.9%, 18.8%, 19.6%). 반면, 1억

~2억 원인 구간(각각 18.2%, 18.1%, 18.0%)의 비율은 해마다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4-56] 연도별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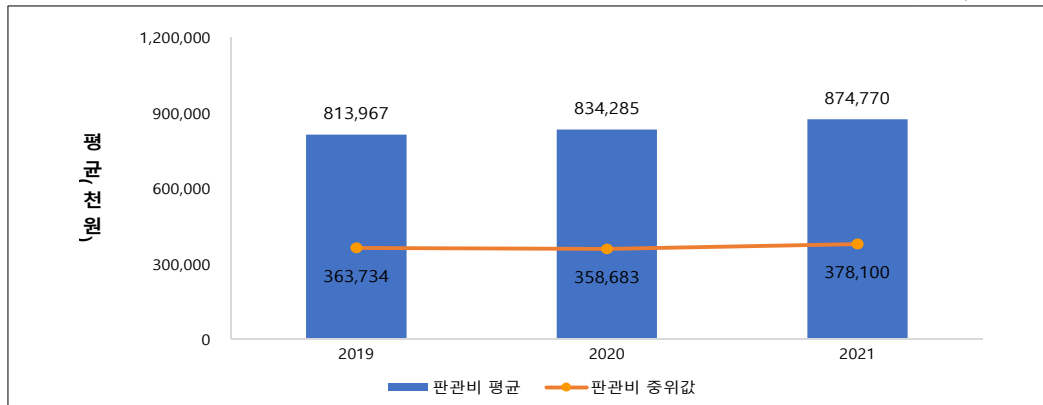


주: 판관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21년 3,063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다음의 [그림 4-57]에는 판매비 및 관리비의 평균과 중위값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평균값은 2020년에 약 8억 3천만 원, 2021년 약 8억 7천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중위값은 2019년에 약 3억 6천4백만 원, 2020년에 약 3억 5천9백만 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 약 3억 8천만 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4-57] 판매비 및 관리비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주: 판관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아래 <표 4-6>은 판매비 및 관리비의 평균과 중위값을 지역에 따라 분류한 내용이다.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을 제외하면 서울(약 13억 7천만 원), 경기(약 12억 3천만 원)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구(약 4억 4천만 원), 전남(약 5억 원)과 울산(약 5억 3천만 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중위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종을 제외하고, 경기(약 5억 9천만 원), 서울(약 4억 9천만 원)은 4억 원을 넘어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비 및 관리비 수준을 보이는 반면, 전남(약 2억 4천만 원)과 강원(약 2억 7천만 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고하여 지역별로 판매비 및 관리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지역별 판매비 및 관리비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개소)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1,367,480	531	491,008
부산	581,281	142	329,523
대구	442,872	115	318,498
인천	638,024	194	316,452
광주	606,070	129	461,269
대전	1,019,154	84	430,657
울산	525,806	101	281,876
세종	1,056,226	23	579,446
경기	1,226,058	540	591,738
강원	590,478	171	270,871
충북	900,327	129	363,996
충남	640,714	122	318,229
전북	755,469	180	413,766
전남	499,256	159	241,684
경북	609,049	210	344,959
경남	661,155	153	291,191
제주	663,413	80	440,358
전체	874,770	3063	378,100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표 4-7>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

(단위: 천 원)

구분		2019	2020	2021
인증 연도	2007	2,346,777	2,429,619	2,545,817
	2008	908,033	1,018,656	1,269,017
	2009	1,287,412	1,169,653	1,668,891
	2010	1,026,057	991,185	948,002
	2011	1,253,344	1,206,584	1,195,712
	2012	802,764	830,847	912,519
	2013	831,900	918,510	1,011,759
	2014	904,624	940,691	1,014,816
	2015	916,728	962,312	992,067
	2016	806,766	999,812	1,093,513
	2017	585,102	681,884	767,945
	2018	672,430	765,439	960,438
	2019	533,430	598,948	669,087
	2020	-	584,253	717,606
	2021	-	-	556,581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848,907	909,393	922,222
	사회서비스제공형	804,966	740,530	838,726
	혼합형	779,686	662,615	749,500
	기타(창의·혁신)형	780,518	746,154	840,828
	지역사회공헌형	568,321	574,636	663,704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967,299	1,184,370	1,091,802
	비영리민간단체	454,954	276,506	385,970
	사회복지법인	1,006,556	1,011,425	1,093,565
	상법상회사	824,553	837,624	863,11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02,720	698,422	961,274
	영농조합법인	481,292	453,970	499,127
	일반/사회적협동조합	794,211	735,668	884,989
	기타	-	-	1,138,373

주: 판매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20년 2,738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표 4-7>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에 따른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를 연도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인증연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7년 인증기업과 2009년

인증기업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판매비 및 관리비를 보고하였고, 2009년~2011년 인증기업을 제외한 모든 인증연도의 기업이 판매비 및 관리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인증유형의 경우, 2021년을 기준으로 일자리제공형(약 9억 2천만 원)과 기타(창의·혁신)형(약 8억 4천만 원), 사회서비스제공형(약 8억 3천9백만 원), 혼합형(약 7억 5천만 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를 보였으며, 지역사회공헌형은 3년간 가장 낮은 수준의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를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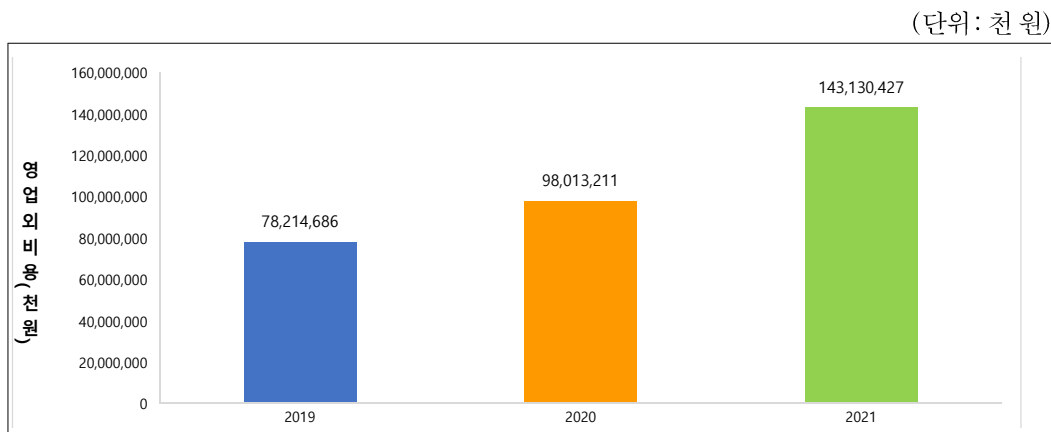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조직형태의 경우 기타를 제외한 사회복지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 평균이 2021년 약 10억 9천3백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영리민간단체가 약 3억 8천만 원, 영농조합법인이 약 5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판매비와 관리비 수준을 보였다.

3. 영업외비용

다음으로 인증 사회적기업의 영업외비용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주된 경영활동 이외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이자비용(지급이자와 할인료 및 사채이자 포함), 이연자산상각비,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매출할인,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투자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잡손실 등이 모두 포함된다(www.hometax.go.kr).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에 의하면, 영업외비용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그대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8c).

먼저, 최근 3년간 인증 사회적기업의 영업외비용 변화 추이는 다음 [그림 4-58]과 같다. 2021년 영업외비용 총액은 약 1,431억 원으로, 2019년의 약 782억 원, 2020년의 980억 원에 비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58] 영업외비용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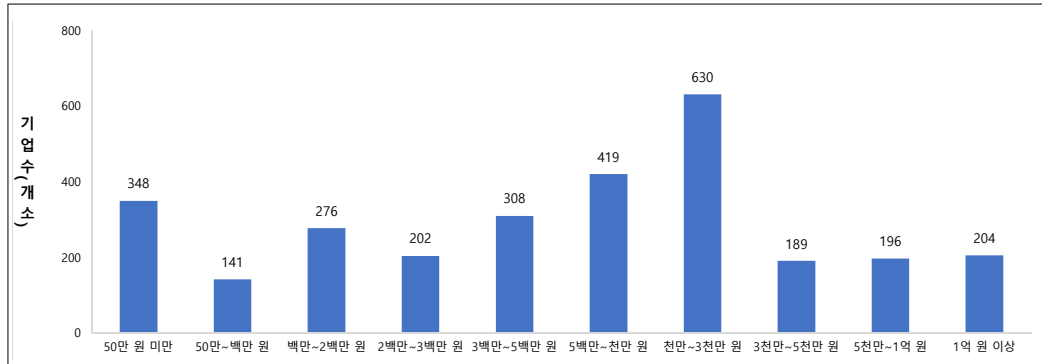
주: 영업외비용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다음 [그림 4-59]는 영업외비용의 분포별 기업 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3,063개소의 인증기업 중 2,913개소에서 영업외비용을 보고하였다. 그 중 2021년도에 영업외비용이 1천만~3천만 원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30개소(21.6%)이며, 5백~1천만 원으로 응답한 기업이 419개소(14.4%), 50만 원 미만이 348개소(11.9%)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4-59] 영업외비용 분포별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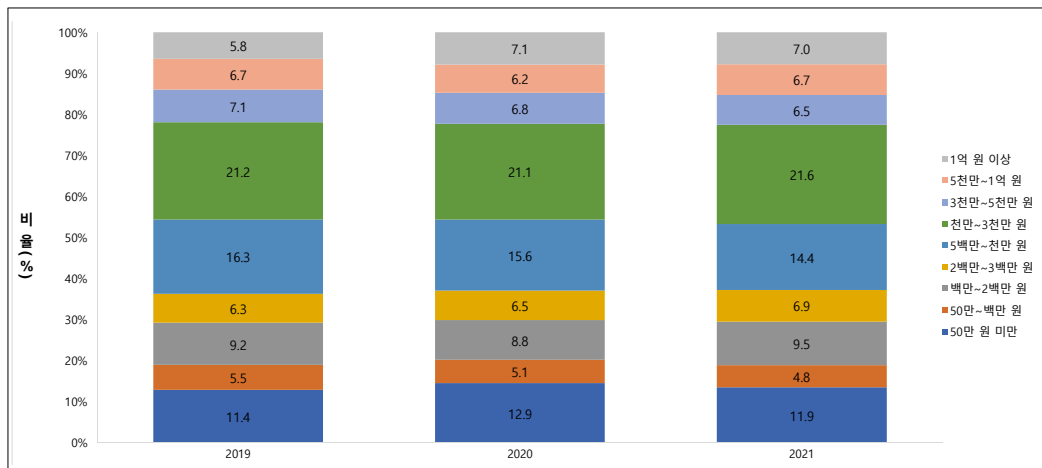
(단위: 개소, 2,913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그림 4-60] 영업외비용 분포별 기업비율

(단위: %, 2,913개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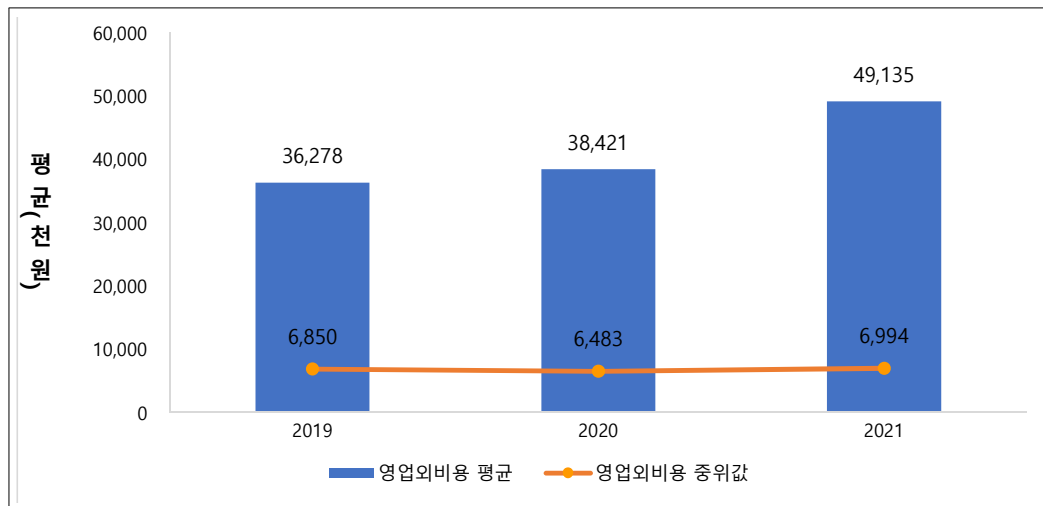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그림 4-60]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영업외비용의 분포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최근 3년간 각 항목의 영업외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큰 변화는 없었으나, 영업외비용이 2백만 원~3백만 원 구간이 각각 6.3%, 6.5%에서 6.9%로 지속 증가하고, 반대로 3천만 원~5천만 원, 5백만 원~1천만 원 구간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났다. 한편, 1억 원 이상, 1천만 원~3천만 원, 50만 원 미만 구간의 비율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반대로 5천만 원~1억 원, 3천만 원~5천만 원, 1백만 원~2백만 원 구간은 감소하였다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아래 [그림 4-61]에서는 최근 3년간의 영업외비용의 평균과 중위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21년 영업외비용 기업별 평균은 약 4천 9백만 원으로 2019년 약 3천6백만 원, 2020년 약 3천 8백만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중위값은 2019년 약 6백9십만 원에서 2020년 약 6백5십만 원, 2021년 약 7천만 원 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61] 연도별 영업외비용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영업외비용의 지역별 차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4-8>과 같다. 평균 영업외비용의 경우 기업 수가 적은 세종을 제외하면, 인천(약 2억 5천만 원), 서울(약 5천만 원), 경기(약 4천 7백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영업외비용 평균을 보고하는 지역은 울산(약 1천5백만 원), 대구(약 1천7백만 원), 경남(약 1천9백만 원) 순서로 나타나 지역별로 영업외비용이 차이가 있었다. 중위값은 세종을 제외하면, 제주(약 1천만 원), 경기(약 8백4십만 원),

서울(약 8백만 원)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약 4백만 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8>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영업외비용 비교

(단위: 천 원, 개소)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50,175	502	8,031
부산	33,834	132	5,830
대구	16,569	109	5,212
인천	250,305	191	5,144
광주	21,796	117	6,477
대전	23,158	77	4,006
울산	15,108	94	6,477
세종	74,393	21	9,028
경기	47,176	526	8,455
강원	28,018	165	4,869
충북	30,073	126	6,586
충남	20,733	114	7,659
전북	28,120	169	7,666
전남	26,573	144	6,859
경북	37,037	201	7,601
경남	18,986	146	5,166
제주	27,357	79	10,115
계	49,135	2,913	6,994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마지막으로 <표 4-9>는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외비용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한 것이다. 먼저 인증연도를 기준으로 2021년에는 2013년과 2016년에 인증 받은 기업의 영업외비용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2009년과 2010년, 2017년, 2020년에 인증 받은 기업이 영업외비용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0년, 2012년, 2020년 인증기업은 영업외비용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2007년과 2008년, 2010년, 2015년~2018년 인증기업은 매년 영업외비용의 평균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표 4-9>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외비용

(단위: 천 원)

구분		영업외비용		
		2019	2020	2021
인증연도	2007	28,546	42,308	48,835
	2008	37,373	51,517	53,996
	2009	21,118	53,066	38,649
	2010	22,094	26,357	29,279
	2011	51,134	55,090	47,096
	2012	27,324	23,390	27,004
	2013	79,078	60,681	65,449
	2014	35,511	66,202	42,684
	2015	28,999	34,673	38,628
	2016	62,039	62,119	243,343
	2017	23,012	24,921	34,916
	2018	28,282	31,755	41,221
	2019	24,881	34,996	34,219
	2020	-	19,131	23,948
	2021	-	-	16,493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35,829	40,560	48,232
	사회서비스제공형	18,723	21,225	20,043
	혼합형	11,958	19,018	124,911
	기타(창의·혁신)형	58,153	51,038	53,933
	지역사회공헌형	41,375	29,338	20,098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25,730	32,385	33,287
	비영리민간단체	26,275	7,038	11,174
	사회복지법인	36,309	46,161	35,048
	상법상회사	40,675	40,841	59,09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556	27,288	29,137
	영농조합법인	30,251	52,389	28,781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9,468	30,947	28,485
	기타	-	-	53,059

주: 영업외비용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다음으로 인증유형을 기준으로, 혼합형이 상대적으로 영업외비용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고하였다. 일자리제공형, 혼합형은 영업외비용의 평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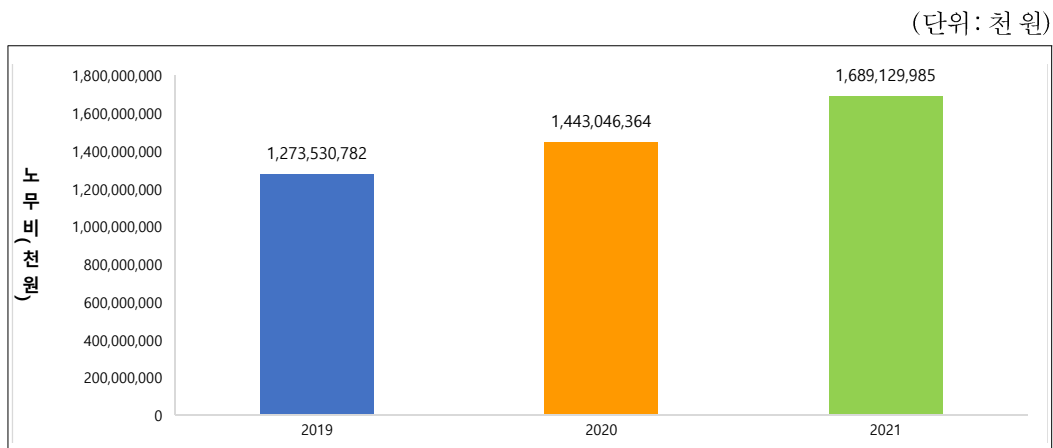
조직형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상법상회사가 약 5천 9백만 원의 평균 영업외비용을 보고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반대로 비영리민간단체가 가장 낮은 평균 영업외비용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의 영업외비용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가 다시 다소 증가한 경향이, 민법상법인, 상법상회사, 소비자협동조합은 매년 영업외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4. 노무비

사회적기업의 지출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마지막으로 활용된 지표는 노무비이다. 본 분석에 포함된 노무비는 판매비 및 관리비에 포함되는 인건비 외에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노무비가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먼저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의 노무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4-62]와 같이, 2019년 약 1조 2천7백억 원, 2020년 약 1조 4천4백억 원, 2021년 약 1조 6천9백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62] 연도별 노무비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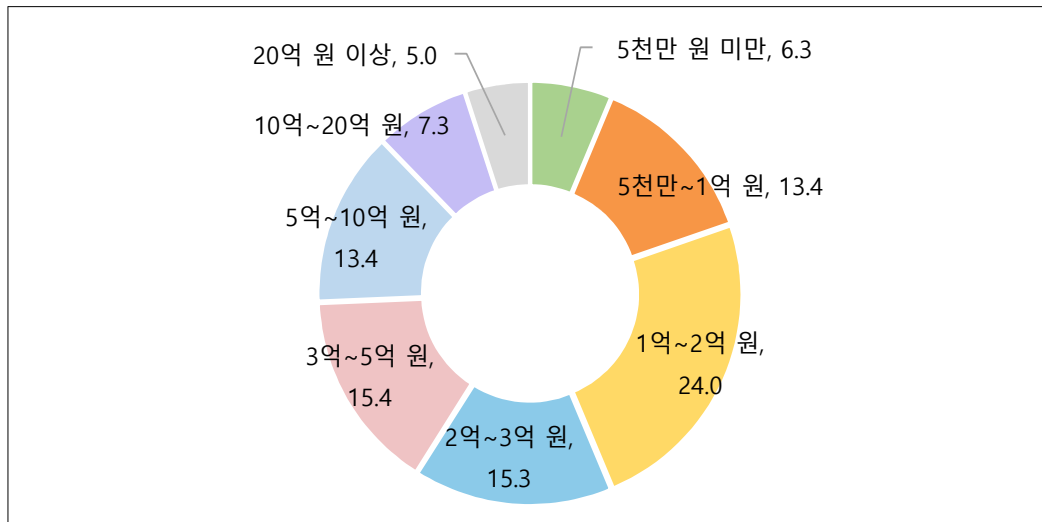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그림 4-63]과 [그림 4-64]는 2021년도 사회적기업의 노무비 분포와 분포별 기업 수를 나타낸 것이다. 노무비가 있다고 응답한 전체 3,046개 사회적기업 중 노무비가 1억~2억 원인 경우가 731개소(2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억~5억 원(468개소, 15.4%), 2억~3억 원(465개소, 15.3%), 5억~10억 원(409개소, 13.4%)의 순서로 많았다. 그리고 노무비가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도 191개소(6.3%)가 있었으며, 20억 원 이상인 기업도 152개소(5.0%)를 차지하였다.

[그림 4-63] 노무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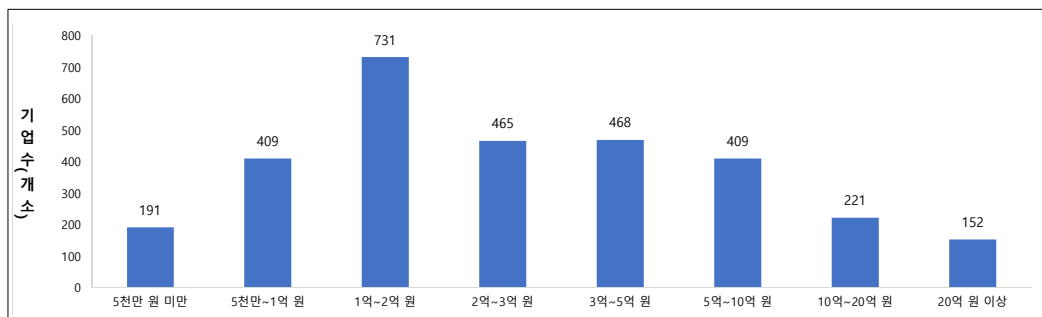
(단위: %)



주: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21년 3,046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그림 4-64] 노무비 분포별 기업 수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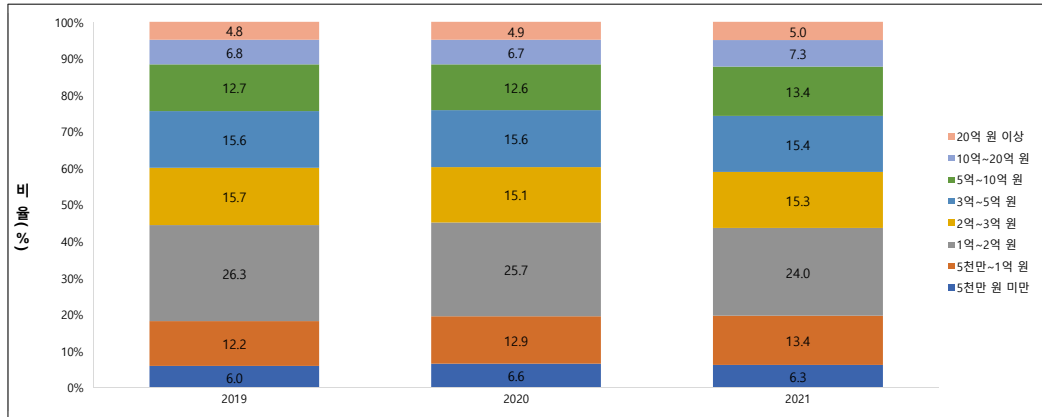


주: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21년 3,046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아래의 [그림 4-65]는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의 노무비의 분포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지난 3년간 전체적인 분포의 변화는 대체로 큰 차이가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20억 원 이상이 각각 4.8%, 4.9%, 5.0%로 매년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65] 노무비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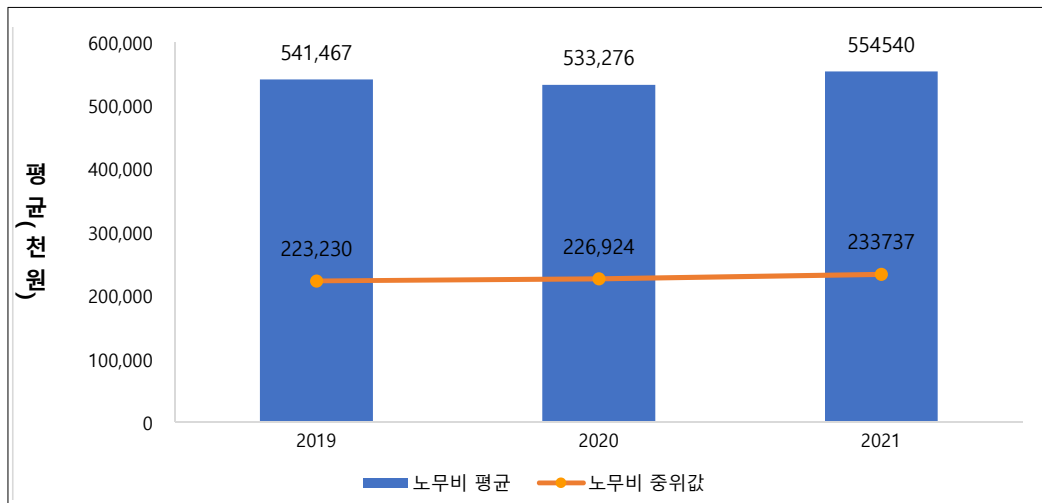
(단위: %)



주: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21년 3,046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그림 4-66] 연도별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주: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21년 3,046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그림 4-66]은 최근 3년간 노무비의 평균 및 중위값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노무비 평균은 2019년 약 5억 4천만 원에서 2020년 5억 3천만 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21년 약 5억 5천만 원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중위값을 기준으로 2019년 약 2억 2천3백만 원, 2020년 약 2억 2천7백만 원, 2021년 2억 3천3백만 원으로 약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10> 지역별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개소)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654,878	529	243,563
부산	409,037	138	198,425
대구	300,839	115	216,908
인천	425,002	194	209,284
광주	346,321	129	207,846
대전	530,592	83	219,865
울산	411,028	100	229,329
세종	1,093,364	23	350,378
경기	862,305	538	315,647
강원	703,999	168	172,125
충북	480,965	129	240,305
충남	395,675	121	219,506
전북	498,259	180	278,923
전남	329,121	157	187,596
경북	356,109	209	220,988
경남	476,716	153	200,861
제주	417,559	80	259,082
전체	554,540	3,046	233,737

주: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21년 3,046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한편, <표 4-10>에서는 지역별로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을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기업 수가 적은 세종을 제외하면, 노무비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약 8억 6천만 원)이고, 강원(약 7억 원), 서울(약 6억 5천만 원), 대전(약 5억 3천만 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무비 수준을 보고하였다. 반면, 노무비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대구(약 3억 원)와 전남(약 3억 3천만 원)로 나타났다. 중위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종을 제외하면 경기(약 3억 2천만 원)가 가장 높았고, 전북이 약 2억 8천만 원, 제주가 약 2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노무비 수준이 높았다. 반면, 노무비 중위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강원(약 1억 7천만 원), 전남(약 1억 9천만 원), 부산과 경남(약 2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 4-1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노무비

(단위: 천 원)

구분		2019	2020	2021
인증연도	2007	1,717,371	1,406,535	1,144,874
	2008	676,605	725,086	888,917
	2009	937,172	754,564	845,730
	2010	773,897	812,588	665,042
	2011	840,486	718,195	796,865
	2012	493,361	511,707	593,395
	2013	534,272	583,740	669,843
	2014	550,265	542,728	652,029
	2015	742,852	750,302	837,978
	2016	452,349	490,838	557,853
	2017	349,019	379,150	407,972
	2018	433,254	499,385	603,196
	2019	332,633	369,730	396,132
	2020	-	403,006	489,582
	2021	-	-	347,680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600,256	616,236	628,694
	사회서비스제공형	527,167	432,162	553,381
	혼합형	567,293	441,882	531,662
	창의·혁신형(기타)	369,266	372,001	334,869
	지역사회공헌형	253,623	258,997	286,783

<표 4-1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노무비

(단위: 천 원)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558,278	562,511	506,546
	비영리민간단체	276,078	153,870	200,077
	사회복지법인	867,896	826,609	987,474
	상법상회사	567,020	563,589	579,15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30,133	471,684	595,179
	영농조합법인	260,394	257,770	275,93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509,432	456,423	530,756
	기타	-	-	675,206

주: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20년 2,706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위의 <표 4-11>은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에 따른 평균 노무비의 연도별 변화를 제시하였다. 먼저 인증연도를 기준으로, 2007년도 인증기업이 다른 연도의 인증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균 노무비를 보고하였으며(2021년 약 11억 4천만 원), 2021년 기준으로 2008년 인증기업 또한 약 8억 9천만 원의 높은 노무비 수준을 보고하였다. 대체로 최근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노무비를 보고하였다(2021년 인증기업 약 3억 5천만 원, 2019년 인증기업 약 4억 원, 2017년 인증기업 약 4억 1천만 원).

인증유형을 기준으로, 일자리제공형의 노무비 평균이 약 6억 3천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지역사회공헌형은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노무비 수준을 보고하였으며, 2021년 기준으로 약 2억 9천만 원으로 노무비 평균이 가장 낮았다.

조직형태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노무비 수준을 보고하고 있는데, 약 8억 3천만 원에서 약 9억 9천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약 2억 원)와 영농조합법인(약 2억 8천만 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앞서 언급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 노무비의 총액을 비교하기 쉽게 정리한 내용을 다음의 <표 부가분석 4-3>과 <표 부가분석 4-4>를 통해 제시하였다.

지출총액분석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19, 2020, 2021)

<표 부가분석 4-3> 지출총액(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단위: 천 원)

항목		2019	2020	2021	
매출 원가	전체총액		3,230,785,282	3,431,400,790	3,805,040,700
	인증 연도	2007	41,304,306	56,943,298	65,064,878
		2008	88,040,828	94,229,839	89,945,608
		2009	32,678,249	27,552,127	29,211,131
		2010	147,250,748	138,480,715	125,491,185
		2011	235,388,397	220,093,314	155,774,354
		2012	105,480,480	107,169,503	122,789,078
		2013	1,192,640,437	1,066,319,122	1,018,693,138
		2014	204,143,836	203,265,353	223,136,758
		2015	177,927,206	165,196,135	164,427,825
		2016	342,002,278	336,701,136	388,098,600
		2017	189,090,354	199,061,353	203,565,532
		2018	247,129,619	286,405,644	304,736,076
		2019	227,708,545	251,475,829	288,776,250
		2020	-	278,507,413	316,312,377
		2021	-	-	309,017,912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900,734,251	2,195,831,288	2,557,385,707
		사회서비스제공형	29,571,764	28,761,450	36,745,759
		혼합형	42,301,032	42,094,878	43,895,519
		기타형	1,143,470,672	1,014,237,452	974,415,308
		지역사회공헌형	114,707,564	150,475,720	192,598,407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376,646,940	340,150,838	427,991,301
		비영리민간단체	53,377,924	3,310,557	18,431,973
		사회복지법인	96,703,909	106,023,841	113,169,239
		상법상회사	2,427,457,004	2,652,811,545	2,838,374,73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295,580	12,791,341	23,266,164
		영농조합법인	104,588,846	126,028,197	129,722,27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61,715,079	190,284,468	249,183,227
		기타	-	-	4,901,784

항목		2019	2020	2021
관관비	전체총액	1,914,451,044	2,262,581,746	2,679,420,397
	인증연도	2007	82,137,210	85,036,692
		2008	94,435,402	101,865,680
		2009	69,520,272	59,652,349
		2010	138,517,685	130,836,534
		2011	132,854,452	121,865,047
		2012	91,515,097	91,393,216
		2013	163,884,228	179,109,492
		2014	184,543,199	187,197,591
		2015	214,514,310	217,482,566
		2016	191,203,531	224,957,843
		2017	142,764,912	159,561,009
		2018	201,056,529	223,508,217
		2019	207,504,218	232,392,206
		2020	-	247,723,298
		2021	-	272,724,651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330,237,033	1,625,995,955
		사회서비스제공형	115,110,175	128,852,308
		혼합형	148,919,944	128,547,491
		기타형	234,935,810	259,661,652
		지역사회공헌형	85,248,083	119,524,338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297,928,204	328,070,552
		비영리민간단체	52,319,750	19,355,445
		사회복지법인	63,412,999	76,868,372
		상법상회사	1,211,267,794	1,500,185,10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4,524,478	6,984,222
		영농조합법인	35,615,606	44,943,056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49,382,214	286,174,990
		기타	-	4,553,491
노무비	전체총액	78,214,686	98,013,211	143,130,427
	인증연도	2007	884,919	1,269,242
		2008	3,251,445	4,533,580
		2009	886,973	2,334,945
		2010	2,540,773	3,110,163
		2011	4,397,500	4,958,145
		2012	2,759,735	2,198,730
		2013	14,075,812	11,408,141
		2014	6,747,137	12,181,199
		2015	6,176,695	7,350,793
		2016	13,772,592	13,169,292
		2017	5,384,790	5,682,061
		2018	8,230,033	9,240,880
		2019	9,106,282	12,808,645
		2020	-	7,767,390
		2021	-	7,784,672

		항목	2019	2020	2021
노무비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52,095,910	69,196,940	94,342,738
		사회서비스제공형	2,415,312	3,353,595	4,168,894
		혼합형	1,877,429	3,176,052	21,484,649
		기타형	15,992,181	16,536,327	18,391,014
		지역사회공헌형	5,833,854	5,750,295	4,743,132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6,869,786	7,740,184	10,452,087
		비영리민간단체	2,049,474	365,981	603,400
		사회복지법인	1,633,900	2,631,184	1,927,638
		상법상회사	56,782,926	70,492,070	114,114,09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85,005	272,883	320,512
		영농조합법인	2,147,801	5,029,389	2,820,538
		일반/사회적협동조합	8,545,795	11,481,518	12,732,984
		기타	-	-	159,176
영업외 비용	전체총액		1,273,530,782	1,443,046,364	1,689,129,985
	인증 연도	2007	60,107,992	49,228,753	37,780,857
		2008	70,366,967	72,508,630	81,780,385
		2009	50,607,268	38,482,789	38,057,871
		2010	104,476,107	105,636,529	81,135,127
		2011	89,091,568	71,819,592	72,514,718
		2012	56,243,200	56,287,786	61,713,055
		2013	105,251,620	113,829,466	123,251,082
		2014	112,253,975	108,002,940	121,929,468
		2015	173,827,328	168,817,995	181,003,319
		2016	107,206,809	110,438,612	121,054,142
		2017	85,160,714	88,342,162	90,161,917
		2018	129,542,952	145,321,078	164,069,355
		2019	129,394,283	143,455,268	142,607,638
		2020	-	170,874,759	201,707,691
		2021	-	-	170,363,362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940,600,432	1,099,982,900	1,273,105,221
		사회서비스제공형	75,384,859	75,196,222	121,743,725
		혼합형	108,353,053	85,283,411	102,079,013
		기타형	111,148,957	128,712,372	122,227,084
		지역사회공헌형	38,043,481	53,871,457	69,974,943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171,949,754	155,253,199	172,225,567
		비영리민간단체	31,748,966	10,770,947	14,605,649
		사회복지법인	54,677,428	61,995,741	70,110,679
		상법상회사	832,952,719	1,007,697,979	1,149,628,38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971,197	4,716,848	6,546,969
		영농조합법인	19,269,146	25,519,272	27,041,318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59,961,573	177,092,375	246,270,596
		기타	-	-	2,700,824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 지역 및 표준산업분류별 분석(2021)

<표 부가분석 4-4> 지출총액(지역, 표준산업분류별)

(단위: 천 원)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63,047,190	62,320,632	54,849,601	161,567,333	97,077,908	39,108,438	57,908,719	22,977,930	701,813,123	147,772,285	158,624,608	93,076,846	133,434,056	133,286,884	297,363,090	111,312,954	46,499,012
매출 원가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145,888,085	34,158,683	0	56,552,584	1,353,878,231	23,296,500	3,572,539	169,748,093	40,748,247	15,496,765	52,375,199	9,098,823	18,595,235	1,783,016,120	41,389,138	45,325,572	9,133,859
판매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26,131,708	82,541,868	50,930,303	123,776,622	78,183,016	85,608,908	53,106,379	24,293,193	662,071,369	100,971,736	116,142,195	78,167,073	135,984,351	79,381,722	127,900,194	101,156,739	53,073,019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97,025,869	180,915,307	1,125,941	24,263,978	287,366,236	451,011,403	15,052,514	299,619,241	38,891,098	134,518,270	47,020,288	8,049,683	62,603,225	742,516,709	77,771,511	179,075,934	23,492,762	
노무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5,187,782	4,466,098	1,806,002	47,808,222	2,550,156	1,783,203	1,420,147	1,562,255	24,814,517	4,622,904	3,789,137	2,363,606	4,752,289	3,826,530	7,444,493	2,771,903	2,161,185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3,132,853	20,913,695	436	1,251,118	17,612,022	6,885,243	1,734,322	5,706,075	1,564,196	3,347,123	1,038,424	243,631	1,755,951	71,491,401	2,476,730	3,484,981	335,923	
영업외비 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46,430,231	56,447,167	34,596,503	82,450,329	44,675,404	44,039,140	41,102,839	25,147,362	463,920,284	118,271,794	62,044,535	47,876,732	89,686,657	51,671,981	74,426,781	72,937,528	33,404,717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60,017,138	102,155,786	563,022	16,224,917	128,399,777	334,343,594	5,206,524	293,589,685	27,919,552	58,475,443	8,730,355	1,455,018	27,462,090	430,777,986	35,963,486	135,744,620	16,892,907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제3절 기타 성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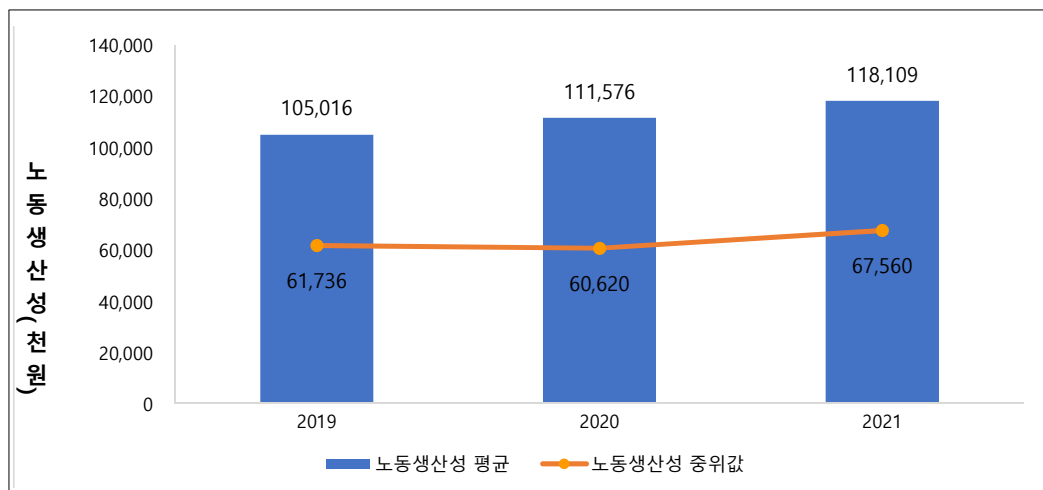
앞서 제1절과 제2절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지표로서 재정성과와 비용구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사회적기업의 또 다른 차원에서의 경제적 성과로 분류 가능한 노동생산성과 일반인 고용지표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노동생산성

먼저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1인당 매출액으로 측정되는데, 다음 [그림 4-67]에 평균 노동생산성과 중위값을 연도별로 분석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2019~2021년 동안에 노동생산성의 평균값 및 중위값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21년 노동생산성의 평균은 약 1억 2천만 원, 중위값은 약 6천8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4-67] 연도별 노동생산성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아래 <표 4-12>는 지역별 노동생산성의 평균 및 중위값을 나타낸 것이다. 평균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경북(약 1억 4천만 원), 서울(약 1억 3천3백만 원), 전남(약 1억 3천만 원)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세종을 제외하면 대구(약 8천만 원), 부산(약 8천8백만 원)이었다. 노동생산성의 중위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약 8천3백만 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약 4천8백만 원)로 나타났다.

<표 4-12> 지역별 노동생산성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지역	노동생산성 평균	노동생산성 중위값
서울	132,764	63,031
부산	87,514	52,045
대구	79,993	47,935
인천	108,867	69,051
광주	125,374	80,047
대전	94,799	66,585
울산	91,901	50,318
세종	90,738	46,869
경기	128,107	83,451
강원	92,392	59,380
충북	128,505	77,851
충남	128,351	72,125
전북	116,601	68,766
전남	130,276	71,074
경북	139,654	74,518
경남	111,945	58,500
제주	95,538	69,955
전체	118,109	67,560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표 4-13>은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평균 노동생산성을 보다 세분화시켜, 이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4-13>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노동생산성

(단위: 천 원)

		2019	2020	2021
인증 연도	2007	76,279	82,920	92,766
	2008	77,999	80,169	82,389
	2009	74,357	88,445	87,534
	2010	81,504	76,729	84,189
	2011	124,683	117,828	103,069
	2012	100,382	108,836	120,738
	2013	127,392	129,084	134,953
	2014	124,045	135,306	143,835
	2015	101,446	107,278	115,614
	2016	140,460	155,888	181,022
	2017	93,697	105,425	120,563
	2018	103,885	123,350	132,277
	2019	90,501	98,396	110,190
	2020	-	101,277	109,856
	2021	-	-	100,919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10,438	121,268	125,398
	사회서비스제공형	85,878	73,398	82,789
	혼합형	67,127	64,372	82,503
	기타(창의·혁신)형	103,966	97,210	109,348
	지역사회공헌형	116,894	126,228	130,423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90,040	88,191	106,759
	비영리민간단체	68,714	51,290	64,209
	사회복지법인	47,286	46,574	43,998
	상법상회사	114,419	118,198	125,95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7,336	110,580	123,641
	영농조합법인	174,186	224,318	203,68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84,387	93,217	94,299
	기타	-	-	158,969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인증연도별로는 2016년 인증기업(약 1억 8천만 원)이 가장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였고, 2014년 인증기업(약 1억 4천만 원), 2013년 인증기업(약 1억 3천만 원)도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았다. 반면 2008~2010년도 인증기업이 약 8천2백만~8천8백만 원 수준의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고하였다.

인증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과 지역사회공헌형에서 최근 3년간 노동생산성이 평균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였다.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 2019년 약 1억 4백만 원에서 2020년에 약 9천7백만 원으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다시 2021년에 약 1억 1천만 원으로 다소 증가된 노동생산성을 보고하였다. 혼합형의 경우 노동생산성이 약 6천만 원에서 유지하고 있지만, 2021년 약 8천3백만 원으로 다소 증가된 노동생산성을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형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약 1억 7천만 원, 2020년에 약 2억 2천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2021년 약 2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노동생산성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노동생산성은 2020년 각각 약 4천 4천만 원과 약 6천 4백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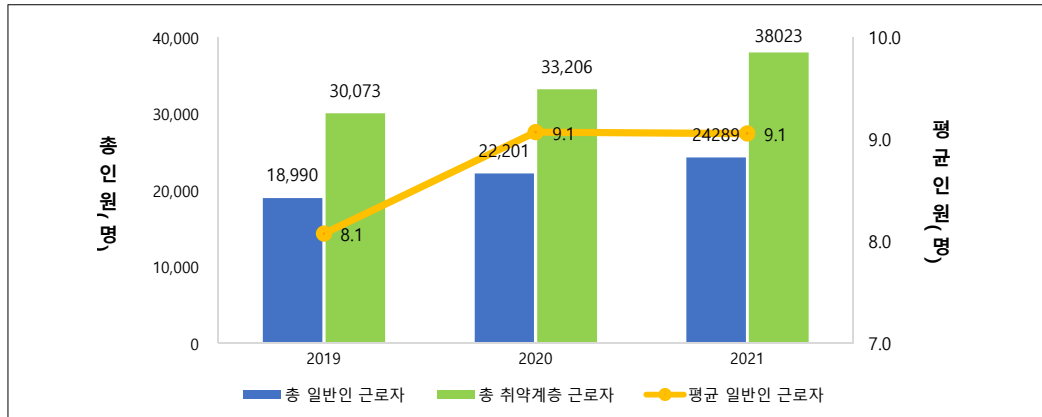
2. 일반인 근로자 고용효과

사회적기업 경제적 성과의 마지막 측정으로, 이하에서는 일반인 근로자의 고용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 4-68]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총 일반인 근로자의 수, 취약계층 근로자 수,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최근 3년간 총 일반인 근로자와 총 취약계층 근로자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즉, 총 일반인 근로자 수는 2019년 18,990명, 2020년 22,201명, 2021년 24,289명으로 매년 증가하였고, 총 취약계층 근로자 수 또한 2019년 30,073명, 2020년 33,206명, 2021년 38,023명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반면, 평균 일반인 근로자의 수는 2019년 8.1명에서 2020년 9.1명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에도 9.1명으로 유지하였다.

[그림 4-68] 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명)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다음에 제시된 <표 4-14>는 각 지역별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를 설명하고 있다.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에서 세종지역을 제외하고 10명 이상을 나타낸 곳은 서울(12.4명), 경기(12.1명), 강원(11.4명)이었다. 반면, 대구(5.2명)와 전남(5.5명), 울산(5.8명)은 평균 6명에도 미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를 보고하였다.

<표 4-14> 지역별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

(단위: 명)

지역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
서울	12.4
부산	6.9
대구	5.2
인천	6.3
광주	6.0
대전	9.0
울산	5.8
세종	14.2
경기	12.1
강원	11.4
충북	8.1
충남	7.6
전북	6.9
전남	5.5
경북	7.9
경남	7.1
제주	7.1
전체	9.1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다음의 <표 4-15>에서는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의 수와 평균을 살펴보고 이를 연도별로 비교하였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평균 근로자 수는 인증연도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인증연도가 최근 기업보다 더 많고, 최근 인증 기업일수록 평균 근로자 수가 적은 경향을 보였다. 2021년을 기준으로 총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기업군은 2020년 인증기업이었고(2,980명), 가장 적은 기업은 2009년 인증기업이었다(626명).

<표 4-15>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총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2007	946	28.7	983	28.9	965	31.1
2008	1,089	12.1	1,278	14.0	1,274	15.0
2009	793	18.4	836	17.8	626	15.7
2010	1,548	12.8	1,578	12.7	1,425	13.2
2011	1,158	12.5	1,053	11.6	941	11.3
2012	885	8.8	733	7.5	857	9.4
2013	1,764	10.3	1,811	11.0	1,719	10.9
2014	1,489	8.6	1,579	8.9	1,608	9.9
2015	2,406	11.5	2,105	10.4	1,978	10.6
2016	1,571	7.1	1,669	8.1	1,620	8.5
2017	1,258	5.5	1,347	6.3	1,248	6.3
2018	1,964	7.2	2,049	7.6	2,138	8.7
2019	2,119	6.0	2,309	6.6	2,349	7.4
2020	-	-	2,871	7.5	2,980	8.2
2021	-	-	-	-	2,561	6.1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다음의 <표 4-16>은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수와 평균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최근 3년간 일자리제공형의 총 일반인 근로자 수가 가장 많았고, 2021년을 기준으로 15,857명이었다. 일자리제공형과 지역사회공헌형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경우에는 약 1천5백~3천명 사이의 근로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공헌형은 매년 조금씩 총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2021년 기준으로 1,255명에 그쳤다.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혼합형의 평균이 2019년 12.0명, 사회서비스제공형의 평균이 2020년 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1년에는 다시 사회서비스제공형의 평균이 11.1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 4-16>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명)

	2019		2020		2021	
	총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일자리제공형	12,132	9.0	14,611	9.0	15,857	7.8
사회서비스제공형	1,549	11.0	1,833	11.4	2,452	11.1
혼합형	1,902	12.0	1,643	9.9	1,617	8.3
기타(창의·혁신)형	2,671	10.0	3,056	9.5	3,108	8.5
지역사회공헌형	736	6.0	1,058	6.3	1,255	5.1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조직형태에 따라 일반인 근로자 수와 평균을 구분한 내용은 다음의 <표 4-17>에서 제시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상법상회사에서 고용한 총 일반인 근로자 수가 2019년 11,250명, 2020년 14,326명, 2021년 14,9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21년 기준 일반/사회적협동조합과 민법상법인도 각각 4,461명과 3,251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총 일반인 근로자 수는 3년간 각각 64명, 105, 131명으로 가장 적었다. 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2021년 평균 11.9명으로 가장 많은 일반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법인과 일반/사회적협동조합, 민법상법인에서도 각각 11.0명, 9.6명, 9.5명의 일반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농조합법인(3.9명), 비영리민간단체(4.0명)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일반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명)

	2019		2020		2021	
	총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민법상법인	2,948	11	2,659	10.6	3,251	9.5
비영리민간단체	502	5	231	3.9	294	4.0
사회복지법인	644	11	801	11.1	791	11.0
상법상회사	11,250	9	14,326	8.8	14,938	7.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4	7	105	10.5	131	11.9
영농조합법인	298	5	381	5.1	394	3.9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284	12	3,698	10.6	4,461	9.6
기타	-	-	-	-	29	7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표 4-18>은 지역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평균근로시간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약 250만 원, 평균근로시간은 36.3시간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세분화하면, 경북(약 318만 원), 경기(약 272만 원), 강원(약 266만 원), 제주(약 260만 원), 충북(약 254만 원)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임금을 보고하였고, 인천(약 214만 원), 부산(약 212만 원), 대구(약 200만 원)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임금 수준을 나타냈다. 지역별 평균근로시간은 경북(40.1시간), 강원(38.5시간), 제주(38.1시간), 전남(38.0시간) 등에서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으며, 서울과 세종(35.3시간)과 경남(35.2시간), 울산(35.1시간)에서 상대적으로 짧게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지역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단위: 천 원, 시간)

지역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서울	2,417	35.3
부산	2,125	36.1
대구	2,004	35.8
인천	2,144	36.9
광주	2,504	37.1
대전	2,519	37.6
울산	2,159	35.1
세종	2,162	35.3
경기	2,717	35.6
강원	2,660	38.5
충북	2,538	36.6
충남	2,206	35.4
전북	2,473	37.0
전남	2,394	38.0
경북	3,182	40.1
경남	2,138	35.2
제주	2,595	38.1
전체	2,509	36.3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다음 <표 4-19>는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을 나타낸다. 2021년을 기준으로 2010년 인증기업이 일반인 근로자의 가장 높은 평균임금(약 300만 원)을 보고하였고, 2010년과 2016년 인증기업이 가장 긴 평균근로시간(37.9시간)을 보고하였다. 최근 3년 동안 평균임

금은 2008년, 2012년, 2015년 인증기업은 제외하면, 대체로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평균근로시간은 대체로 최근 3년 동안 35시간 내외의 수준에서 큰 폭의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표 4-19>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단위: 천 원, 시간)

	2019		2020		2021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2007	2,190	34.8	2,305	34.6	2,337	34.2
2008	2,404	34.9	2,379	34.7	2,520	35.1
2009	1,882	33.0	2,110	33.5	2,129	34.0
2010	2,469	35.0	2,636	37.2	2,999	37.9
2011	2,410	37.7	2,585	37.9	2,648	37.3
2012	2,222	34.5	2,526	37.2	2,525	35.8
2013	1,987	33.2	2,206	35.4	2,363	35.1
2014	2,222	36.5	2,266	37.0	2,299	35.4
2015	2,584	36.0	2,956	36.4	2,883	36.5
2016	2,268	37.3	2,426	37.7	2,549	37.9
2018	2,285	37.4	2,413	37.4	2,560	37.8
2019	2,217	35.5	2,338	36.8	2,446	36.1
2020	2,180	36.0	2,295	36.6	2,474	36.7
2021	-	-	2,535	36.2	2,543	36.5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표 4-20>은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이다. 2021년도를 기준으로, 일자리제공형이 가장 높은 평균임금(약 265만 원)을 보고한 반면에, 평균근로시간은 지역사회공헌형이 38.2시간으로 가장 긴 평균근로시간을 보고하였다.

<표 4-20>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단위: 천 원, 시간)

	2019		2020		2021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일자리제공형	2,434	36.7	2,592	37.3	2,646	37.1
사회서비스제공형	1,926	30.9	1,904	32.6	1,980	32.9
혼합형	1,706	31.4	1,893	32.8	2,006	32.9
기타(창의·혁신)형	2,188	35.9	2,394	35.9	2,525	36.2
지역사회공헌형	2,183	38.2	2,339	38.2	2,420	38.2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아래 <표 4-21>은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평균근로시간이다. 2021년도를 기준으로 사회복지법인(약 334만 원)이 가장 높은 평균임금과 가장 긴 평균근로시간(약 39.1시간)을 보고한 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약 179만 원의 가장 낮은 평균임금을 보고한 반면, 평균근로시간은 기타가 28.1시간으로 가장 낮았다.

<표 4-21>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단위: 천 원, 시간)

	2019		2020		2021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민법상법인	2,082	34.7	2,220	35.4	2,361	35.5
비영리민간단체	2,142	33.1	1,835	33.5	1,995	34.5
사회복지법인	2,906	39.1	3,108	38.8	3,341	39.1
상법상회사	2,398	36.3	2,569	36.9	2,646	37.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712	33.9	1,900	33.9	1,789	31.6
영농조합법인	2,193	38.8	2,271	38.7	2,330	38.6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942	33.6	2,052	34.7	2,085	34.2
기타	-	-	-	-	2,018	28.1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마지막으로 <표 부가분석 4-5>와 <표 부가분석 4-6>에는 앞서 정리한 유급근로자의 임금수준,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일반근로자와 취약근로자로 나누어 다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유급근로자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18, 2019, 2020)

<표 부가분석 4-5> 전체 유급근로자(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단위: 명, 천 원, 시간)

항목		2019	2020	2021
전체 유급 근로자 수	전체 유급근로자 수	49,063	55,407	62,312
	인증연도	2007	2,260	1,950
		2008	3,048	3,352
		2009	2,540	2,427
		2010	3,818	3,893
		2011	3,150	2,685
		2012	2,214	1,916
		2013	4,473	4,396
		2014	4,409	4,473
		2015	5,730	5,371
		2016	4,007	4,033
		2017	3,158	3,174
		2018	5,118	5,603
		2019	5,138	5,650
		2020	-	6,484
		2021	-	6,245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35,420	41,725
		사회서비스제공형	3,406	3,769
		혼합형	5,395	4,175
		기타(창의·혁신)형	3,579	3,995
		지역사회공헌형	1,263	1,743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7,390	6,650
		비영리민간단체	1,458	487
		사회복지법인	2,552	2,981
		상법상회사	29,480	35,58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51	235
		영농조합법인	686	785
		일반/사회적협동조합	7,346	8,685
		기타	-	-
				124
전체 유급 근로자 평균임금	전체평균임금		1,917	2,028
	인증연도	2007	1,936	1,990
		2008	1,807	1,801
		2009	1,615	1,698
		2010	2,120	2,166
		2011	1,967	2,008

항목		2019	2020	2021	
전체 유급 근로자 평균임금	인증연도	2012	1,852	2,002	2,039
		2013	1,631	1,750	1,825
		2014	1,762	1,792	1,838
		2015	2,348	2,580	2,521
		2016	1,918	2,010	2,062
		2017	1,996	2,110	2,180
		2018	1,889	1,941	1,975
		2019	1,847	1,913	2,000
		2020	-	2,252	2,194
		2021	-	-	1,950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972	2,071	2,086
		사회서비스제공형	1,692	1,682	1,754
		혼합형	1,539	1,606	1,683
		기타(창의·혁신)형	2,104	2,271	2,387
		지역사회공헌형	2,052	2,209	2,285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1,760	1,760	1,839
		비영리민간단체	1,602	1,593	1,652
		사회복지법인	1,672	1,718	1,885
		상법상회사	2,044	2,179	2,20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514	1,745	1,672
		영농조합법인	2,006	2,105	2,21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710	1,746	1,769
		기타	-	-	1,392
전체	평균 시간	33.1	33.6	33.3	
인증연도	2007	33.7	33.5	32.8	
	2008	31.0	31.1	31.1	
	2009	30.3	29.2	30.6	
	2010	33.4	34.6	35.3	
	2011	35.1	35.2	34.2	
	2012	32.2	33.3	32.7	
	2013	30.4	31.6	31.2	
	2014	32.1	32.5	31.1	
	2015	35.5	35.7	35.5	
	2016	34.7	34.7	34.4	
	2017	35.3	35.4	34.7	
	2018	32.9	33.3	32.5	
	2019	32.5	33.0	32.7	
	2020	-	34.9	34.5	
	2021	-	-	34.0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33.8	34.0	33.6
		사회서비스제공형	28.6	30.3	30.2
혼합형		29.2	29.4	29.2	
기타(창의·혁신)형		35.3	35.1	35.4	
지역사회공헌형		37.2	37.7	37.4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32.2	31.8	31.7	
	비영리민간단체	30.0	29.9	29.6	
	사회복지법인	32.4	32.3	32.7	
	상법상회사	33.9	34.4	34.3	

항목		2019	2020	2021	
전체 유급 근로자 평균시간	조직형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1.2	33.6	31.7
		영농조합법인	37.8	37.7	38.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1.2	31.8	31.2
		기타	-	-	22.6
전체 취약근로자 수	인증연도	전체	30,073	33,206	38,023
		2007	1,314	967	975
		2008	1,959	2,074	2,187
		2009	1,747	1,591	1,496
		2010	2,270	2,315	2,257
		2011	1,992	1,632	1,607
		2012	1,329	1,183	1,330
		2013	2,709	2,585	2,816
		2014	2,920	2,894	2,847
		2015	3,324	3,266	3,183
		2016	2,436	2,364	2,348
		2017	1,900	1,827	1,678
		2018	3,154	3,554	3,837
		2019	3,019	3,341	3,392
		2020	-	3,613	4,386
		2021	-	-	3,684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23,288	27,114	31,033
		사회서비스제공형	1,857	1,937	2,422
		혼합형	3,493	2,532	2,831
		기타(창의·혁신)형	908	939	948
		지역사회공헌형	527	684	789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4,442	3,991	4,615
		비영리민간단체	956	256	355
		사회복지법인	1,908	2,180	2,230
		상법상회사	18,230	21,258	23,57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7	130	182
영농조합법인		388	404	416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062	4,987	6,557	
기타		-	-	95	
전체 취약 근로자 평균임금	인증연도	전체	1,690	1,749	1,769
		2007	1,753	1,669	1,701
		2008	1,476	1,445	1,500
		2009	1,494	1,481	1,604
		2010	1,882	1,845	2,027
		2011	1,709	1,636	1,626
		2012	1,605	1,678	1,726
		2013	1,400	1,430	1,496
		2014	1,528	1,533	1,577
		2015	2,176	2,338	2,297
		2016	1,692	1,716	1,726
		2017	1,805	1,887	1,897
		2018	1,684	1,713	1,712
		2019	1,613	1,649	1,673
		2020	-	2,028	1,956
		2021	-	-	1,728

항목			2019	2020	2021	
전체 취약 근로자 평균임금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732	1,789	1,800	
		사회서비스제공형	1,496	1,471	1,525	
		혼합형	1,448	1,419	1,499	
		기타(창의·혁신)형	1,857	1,869	1,937	
		지역사회공헌형	1,868	2,008	2,070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1,546	1,454	1,472	
		비영리민간단체	1,318	1,374	1,367	
		사회복지법인	1,256	1,208	1,369	
		상법상회사	1,826	1,916	1,92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368	1,621	1,587	
		영농조합법인	1,863	1,948	2,10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522	1,520	1,553	
기타	-	-	1,202			
전체 취약 근로자 평균시간	인증연도	전체	31.6	31.7	31.3	
		2007	32.8	32.3	31.3	
		2008	28.8	28.9	28.7	
		2009	28.8	26.9	29.2	
		2010	32.7	32.9	33.6	
		2011	33.8	33.4	32.3	
		2012	30.8	30.9	30.8	
		2013	28.7	28.9	28.8	
		2014	29.8	30.0	28.7	
		2015	35.1	35.3	34.9	
		2016	33.2	32.5	32.0	
		2017	33.8	34.0	32.5	
		2018	31.3	31.3	30.5	
		2019	30.2	30.6	29.9	
		2020	-	33.9	33.1	
		2021	-	-	32.3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32.3	32.2	31.9
	사회서비스제공형		26.5	28.0	27.6	
	혼합형		28.1	27.2	27.0	
	기타(창의·혁신)형		33.6	32.8	32.7	
	지역사회공헌형		36.1	36.8	36.2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30.6	29.4	29.0
			비영리민간단체	28.6	26.7	25.6
			사회복지법인	30.3	29.9	30.4
			상법상회사	32.5	32.8	32.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9.6	33.2	31.8
			영농조합법인	37.2	36.7	37.3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9.0	29.7	29.2
	기타	-	-	20.9		
전체 일반인 근로자 수	인증연도	전체	18990	22,201	24,289	
		2007	946	983	965	
		2008	1,089	1,278	1,274	

항목		2019	2020	2021
일반인 근로자 수	인증연도	2009	793	836
		2010	1,548	1,578
		2011	1,158	1,053
		2012	885	733
		2013	1,764	1,811
		2014	1,489	1,579
		2015	2,406	2,105
		2016	1,571	1,669
		2017	1,258	1,347
		2018	1,964	2,049
		2019	2,119	2,309
		2020	-	2,871
		2021	-	2,561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2,132	14,611
		사회서비스제공형	1,549	1,832
		혼합형	1,902	1,643
		기타(창의·혁신)형	2,671	3,056
		지역사회공헌형	736	1,059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2,948	2,659
		비영리민간단체	502	231
		사회복지법인	644	801
		상법상회사	11,250	14,32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4	105
		영농조합법인	298	381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284	3,698
		기타	-	-
				29
전체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전체		2,275	2,444
	인증연도	2007	2,190	2,305
		2008	2,404	2,379
		2009	1,882	2,110
		2010	2,469	2,636
		2011	2,410	2,585
		2012	2,222	2,526
		2013	1,987	2,206
		2014	2,222	2,266
		2015	2,584	2,956
		2016	2,268	2,426
		2017	2,285	2,413
		2018	2,217	2,338
		2019	2,180	2,295
		2020	-	2,535
		2021	-	-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2,434	2,592
		사회서비스제공형	1,926	1,904
		혼합형	1,706	1,893
		기타(창의·혁신)형	2,188	2,394
		지역사회공헌형	2,183	2,339

항목			2019	2020	2021
전체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2,082	2,220	2,361
		비영리민간단체	2,142	1,835	1,995
		사회복지법인	2,906	3,108	3,341
		상법상회사	2,398	2,569	2,64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712	1,900	1,789
		영농조합법인	2,193	2,271	2,33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942	2,052	2,085
		기타	-	-	2,018
전체 일반인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	전체		35.6	36.4	36.3
	인증연도	2007	34.8	34.6	34.2
		2008	34.9	34.7	35.1
		2009	33.0	33.5	34.0
		2010	35.0	37.2	37.9
		2011	37.7	37.9	37.3
		2012	34.5	37.2	35.8
		2013	33.2	35.4	35.1
		2014	36.5	37.0	35.4
		2015	36.0	36.4	36.5
		2016	37.3	37.7	37.9
		2017	37.4	37.4	37.8
		2018	35.5	36.8	36.1
		2019	36.0	36.6	36.7
		2020	-	36.2	36.5
		2021	-	-	36.5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36.7	37.3	37.1
		사회서비스제공형	30.9	32.6	32.9
		혼합형	31.4	32.8	32.9
		기타(창의·혁신)형	35.9	35.9	36.2
		지역사회공헌형	38.2	38.2	38.2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34.7	35.4	35.5
		비영리민간단체	33.1	33.5	34.5
		사회복지법인	39.1	38.8	39.1
		상법상회사	36.3	36.9	37.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3.9	33.9	31.6
		영농조합법인	38.8	38.7	38.6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3.6	34.7	34.2
		기타	-	-	28.1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표 부가분석 4-6> 전체 유급근로자(지역, 표준산업분류별)

(단위: 명, 천 원, 시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981	2,254	1,334	3,221	1,684	1,521	1,487	1,101	16,084	3,492	2,094	1,771	2,674	1,641	3,150	2,573	1,250
전체 유급 근로자 수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1,361	2,903	14	585	4,782	16,428	131	11,644	1,279	2,081	411	49	935	15,348	1,066	2,321	758
	전체	1,862.9	1,762.9	1,757.7	1,729.9	1,952.2	2,006.1	1,861.2	1,723.4	2,222.9	2,451.6	2,122.2	1,962.4	2,097.5	2,083.5	2,678.3	1,910.5	2,121.7
전체 유급근로 자 평균임금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227.1	1,894.8	3,045.7	1,866.7	2,208.5	1,629.2	2,455.3	2,000.3	1,866.5	1,851.1	2,553.2	2,400.0	2,521.7	2,024.2	2,401.6	4,864.3	1,732.9
	전체	30.9	32.6	32.7	33.3	32.7	36.5	33.4	33.0	33.3	37.1	33.9	33.4	33.9	35.9	37.1	33.1	34.2
전체 유급근로 자 평균시간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39.8	33.1	40.0	35.5	35.9	29.6	35.5	33.6	33.0	33.5	38.1	37.5	36.6	33.8	36.5	40.3	32.4
	전체	39.8	33.1	40.0	35.5	35.9	29.6	35.5	33.6	33.0	33.5	38.1	37.5	36.6	33.8	36.5	40.3	32.4

<표 부가분석 4-6> 계속

(단위: 명, 천 원, 시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110	1,425	753	2,219	972	991	938	817	10,136	1,930	1,174	1,030	1,521	916	1,716	1,648	727
전체 취약근로 자 수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765	1,090	0	359	2,142	11,172	24	8,619	757	760	190	25	341	9,622	363	1,129	529
		1,506.0	1,552.3	1,567.3	1,543.0	1,548.3	1,809.8	1,687.0	1,571.0	1,933.0	2,283.3	1,796.7	1,787.4	1,812.7	1,838.0	2,257.4	1,782.9	1,781.0
전체 취약근로 자 평균임금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08.2	1,634.6	0.0	1,707.0	1,921.6	1,519.3	1,753.7	1,835.9	1,639.6	1,638.7	2,116.7	2,167.9	2,125.7	1,624.5	1,974.5	4,673.6	1,522.8
		28.1	30.5	30.4	31.6	29.5	35.9	32.5	32.2	32.0	36.0	31.7	32.0	31.6	34.3	34.6	31.9	31.3
전체 취약근로 자 평균시간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38.6	30.7	0.0	34.4	34.8	28.5	34.6	32.2	31.2	30.3	37.1	36.1	33.1	31.2	33.7	40.2	30.9

<표 부가분석 4-6> 계속

(단위: 명, 천 원, 시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871	829	581	1,002	712	530	549	284	5,948	1,562	920	741	1,153	725	1,434	925	523
일반인 근로자 수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596	1,813	14	226	2,640	5,256	107	3,025	522	1,321	221	24	594	5,726	693	1,192	229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416.7	2,125.0	2,004.5	2,143.9	2,503.6	2,519.3	2,153.8	2,161.8	2,716.9	2,609.6	2,537.6	2,205.6	2,473.1	2,393.5	3,182.0	2,137.8	2,555.3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507.9	2,051.3	3,045.7	2,198.2	2,432.2	1,862.6	2,661.6	2,815.2	2,244.7	2,025.3	2,928.6	2,641.8	2,749.0	2,665.8	2,625.3	5,045.0	2,218.2
일반인 근로자 평균시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5.3	36.1	35.8	36.9	37.1	37.6	35.1	35.3	35.6	38.5	36.6	35.4	37.0	38.0	40.1	35.2	38.1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41.3	34.5	40.0	37.2	36.8	32.0	35.7	37.6	35.5	35.4	39.0	38.9	38.7	38.3	38.0	40.3	35.9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제5장 요약 및 결과해석

이상에서 본 연구는 사업보고서 행정자료를 활용해 2019~2021년 인증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성과를 다면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를 최근 변화에 초점을 두어 요약해 보면 다음 <표 5-1>과 같다.

<표 5-1> 2021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요약

구분	분석결과
사회적기업 일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은 2020년에 비해 325개의 사회적기업이 증가해, 2021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은 3,063개소. • 인증연도별로는 2019년 및 2020년에 비해 2021년의 인증 기업 수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 • 인증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66.5%), 조직형태별로는 상법상회사(65.1%)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지원금 및 기타 영업외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전체의 지원금 총액은 408,996,133천 원으로 2020년에 비해 약 8.6% 증가했으며, 지원금 총액 중 정부지원금이 70.3%를 차지하고 있음. • 지원금을 받는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전체평균은 133,965천 원이고 중위값 58,282천 원으로 작년에 비해 소폭 감소함. 정부지원의 경우에는 평균 131,049천 원으로 증가하였고 중위값은 62,486천 원으로 소폭 감소함.
취약계층 및 일 반인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2021년 기준 38,02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기업당 평균 근로자 수는 2020년에 비하여 증가함(13.6명). 과거에 인증되었던 기업, 인증유형에서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조직형태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기업당 취약계층 유급근로자가 많음. •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인 근로자 수는 2021년 기준 24,289명. 기업당 평균 근로자 수는 2020년에 비해 감소함(7.9명). 과거에 인증되었던 기업, 인증유형에서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조직형태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일반/사회적협동조합에서 기업당 일반인 근로자 수가 많음. • 취약계층 평균임금은 1,769천 원으로 2020년에 비해 증가, 평균근로시간은 31.3시간으로 감소했음. 일반인 평균임금은 약 2,509천 원으로 2020년에 비해 증가, 평균근로시간은 36.3시간으로 2020년에 비해 감소. 일반인 평균임금대비 취약계층 평균임금은 2020년에 비해 감소(70.5%).

<표 5-1>의 계속

구분	분석결과
사회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수는 2021년 1,338개소로 2020년에 비해 증가함.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은 전체 인원 6,494,902명, 중위값 297명으로 2020년에 비해 전체 수혜인원과 중위값 모두 증가함. 이 수치는 관련 자료의 여러 한계로 인해 해석의 주의를 요함. •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기업의 2021년 총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은 2,360,723명, 중위값은 690명으로 나타남. 2020년에 비해 총 수혜인원과 중위값 모두 증가함. 이 수치는 관련 자료의 여러 한계로 인해 해석의 주의를 요함. • 시계열자료 기술분석 결과, 총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의 경우 202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함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를 활용하는 기업은 2,763개소, 기타회의체(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를 활용하는 주체는 728개소임. 2021년 이사회에 근로자대표 참여비율은 22.3%, 수혜자 참여비율은 1.8%,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비율은 19.9%로 나타났고, 기타 회의체에 근로자대표 참여비율은 26.9%, 수혜자 참여비율은 7.6%, 지역사회구성원 참여비율은 18.8%로 나타남. 2020년과 큰 폭의 차이는 보이지 않음.
사회적 목적 재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기업 중 사회적 목적 재투자를 보고한 기업은 총 2,124개소이며, 전체 재투자액은 213,966,183천 원으로 나타남. • 기업 수로는 구성원 성과급, 총급여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높게 나타남. 사회서비스 제공의 경우 기업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투자 금액이 컸던 반면, 지역사회 재투자에는 기업 수는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재투자 금액은 가장 적었음.
수입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5,975,954,691천 원을 보임.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평균은 1,953,565천 원, 중위값은 601,112천 원으로, 평균은 감소, 중위값은 증가함.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 부흥으로 인해 증가된 것으로 추정됨. 민간시장매출의 비중이 공공시장매출에 비해 다소 낮음. • 2021년 영업이익 총액 -35,101,092천 원, 평균 및 중위값은 각각 -11,463천 원, -855천 원임. 2020년과 비교 했을 때 총액이나 평균, 중위값 모두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당기순이익 총액은 78,310,101천 원, 평균 25,675천 원으로 감소하였고, 중위값은 11,522천 원으로 다소 증가함. 당기순이익을 나타낸 기업의 비율은 68.5%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함.
지출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원가 총액은 3,805,040,700천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매출원가 평균(1,739,050천 원)은 전년 대비 감소 중위값(345,227천 원) 전년 대비 증가함. • 판매관리비(경비 포함) 총액은 2,679,420,397천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2020년에 비해 평균(874,770천 원) 중위값(378,100천 원) 모두 증가함. • 영업외비용 총액은 143,130,427천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2020년에 비해 영업외비용 평균(49,135천 원)과 중위값(6,994천 원) 모두 증가함. • 노무비 총액은 1,689,129,985천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2020년에 비해 노무비 평균(554,540천 원)과 중위값(233,737천 원) 모두 증가함.
노동생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생산성(1인당 매출액)은 2020년에 비해 증가하여 2021년 평균 118,109천 원, 중위값도 증가하여 67,560천 원을 나타냄.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인증 사회적기업의 현황이나 성과는 대체로 지난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된다. 구성에 있어 예년과 같이 상법상 회사와 일자리제공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원금 총액은 2020년과 달리 민간 지원금은 감소하고 정부지원금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지원금 평균과 중위값도 감소하였다. 이는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2020년에 2,705개소에서 2021년 3,053개소로 증가하였으나, 지원금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기관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0년에는 기타민간지원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2021년에는 정부지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기타 정부지원금의 경우에 지역별로는 세종에 소재한 기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형태별로는 사회복지법인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근로자 총인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근로자 수와 평균 취약계층근로자 수는 2020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에 코로나19의 완화로 인해 기업 당 고용이 증가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평균임금은 취약계층, 일반인 모두 상승하는 경향을 지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도 2020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제적 성과에서는 총 매출액은 다소 증가하였지만, 매출액 중위값은 상승하였지만, 평균 매출액은 하락하였으며,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2019년 이후 하락세에 있던 영업이익이 2021년에 대폭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인증유형별 평균 영업이익(손실)을 살펴보면 혼합형(-59,093천 원)과 지역사회공헌형(-38,617천 원)이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창의·혁신)형(-28,872천 원)이 손실이 발생했다. 반면 사회서비스제공형은 2019년과 2020년에 비해 영업손실이 소폭 증가하였는데,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유형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완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표 부가분석 3-2>의 분석을 통해 교육 서비스업 분야 수혜자 비중이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가 교육 서비스업 분야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였다. 당기순이익(손실)의 경우에 당기순이익 총액과 평균은 감소하였지만, 중위값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1년에 0원 이하의 순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증가하였지만 0원 ~ 3천만 원 미만의 순이익이 발생한 곳이 크게 증가(19.0%p)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난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자료를 통한 분석 결과가 실제 현상을 반영

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길현중 외, 2020), 자료를 통한 양적분석과 더불어 일부 사회적기업 사례에 대한 질적분석이 함께 병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완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받는 영향이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빈도, 확진자 수, 거리두기 지침 등에 따라서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부적인 영향은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코로나19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제 사회적기업의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강병노(202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질적분석을 병행하여 재난 상황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기피가 발생하고, 자발적 배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업무 비효율성, 휴업, 폐업 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2020년 8월 조사). 이러한 결과는 2021년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된 본 연구의 결과와도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통과 연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대응 방식이 발전함에 따라 상담과 같은 비대면이 가능한 사회서비스는 접근성과 수요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과 혁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재난 상황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사회적기업 역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업, 원격기술, 방역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취약한 소기업에 대해서는 물적·인적 자원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합하고 적절하고 세부적인 지원 전략 구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사회 전반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부록1] 상대적 성과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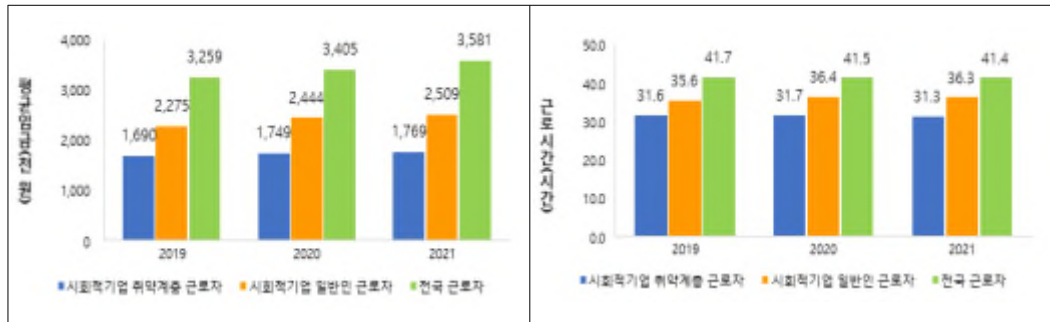
제1절 사회적 및 경제적 성과 비교

[부록]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광역단체, 연구기관 등의 관련정책 자료 및 연구자료 등 2차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상대적인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국내의 경제동향, 고용시장 상황 등 거시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 객관적인 성과를 파악할 것이며, 생존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인증연도별, 인증유형별 조직형태별 추가 재무 비율 분석을 통해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비교

먼저,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반인 유급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평균근로시간을 전국의 평균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그림 부1-1]과 같다.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평균임금은 1.1% 증가하였고, 일반인 평균임금은 2.7% 증가하였다. 반면 전국 평균임금은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 취약계층과 일반인 유급근로자의 평균임금 상승률은 전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의 경우 취약계층 평균근로시간은 2020년에 0.4%증가 2021년에 1.2% 감소하였고, 일반인 평균근로시간은 2020년에 2.3%증가, 2021년에는 0.2% 감소하였다. 반면, 전국 평균근로시간은 2020년에 0.5% 감소, 2021년엔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반인 유급근로자의 평균근로 감소율은 2020년 전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1년 전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이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이 증가했다가 정상화되고, 주52시간 제도가 확대되면서 전체 근로시간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부1-1]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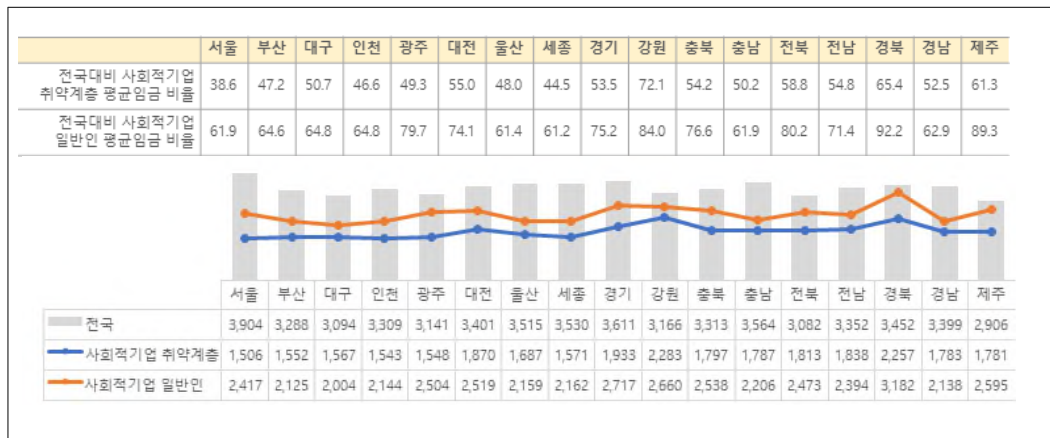


주: 주당 근로시간은 '상용근로시간/상용근로일수*5'로 산출함.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고용노동부(2021a).

다음으로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부1-2]와 같다. 2021년 전국 유급근로자 평균임금은 서울 3,904천 원, 경기 3,611천 원, 충남 3,564천 원, 세종 3,530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 임금은 강원이 2,283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 2,257천원, 경기 1,933천 원, 대전 1,870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일반인 유급근로자 평균임금은 경북이 3,182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2,717천 원, 강원 2,660천 원, 제주 2,595천 원, 충북 2,538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유급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대체로 수도권의 평균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적기업 유급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지역 간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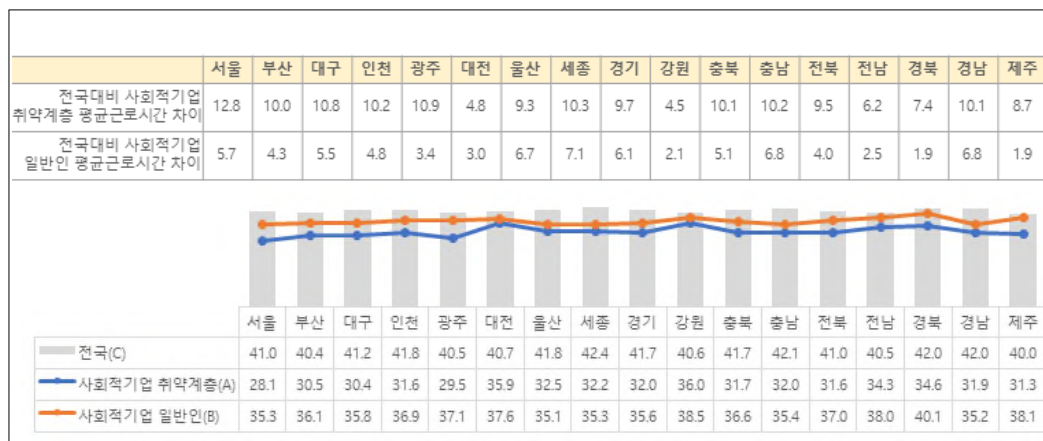
[그림 부1-2]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고용노동부(2021a).

다음으로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근로자 평균근로시간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부1-3]와 같다. 2021년 전국 유급근로자 평균근로시간은 세종이 42.4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남 42.1시간, 경북, 경남은 42.0시간, 울산, 인천은 41.8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근로시간은 강원이 36.0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 35.9시간, 경북 34.6시간, 전남 34.3시간, 울산 32.5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일반인 유급근로자 평균근로시간은 경북이 40.1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 38.5시간, 제주 38.1시간, 전남 38.0시간, 대전 37.6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평균근로시간 경북을 제외하고 모두 40시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국 유급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은 모두 40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보다 평균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근로자 평균근로시간은 지역 간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적기업 유급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은 비교적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그림 부1-3]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근로자 평균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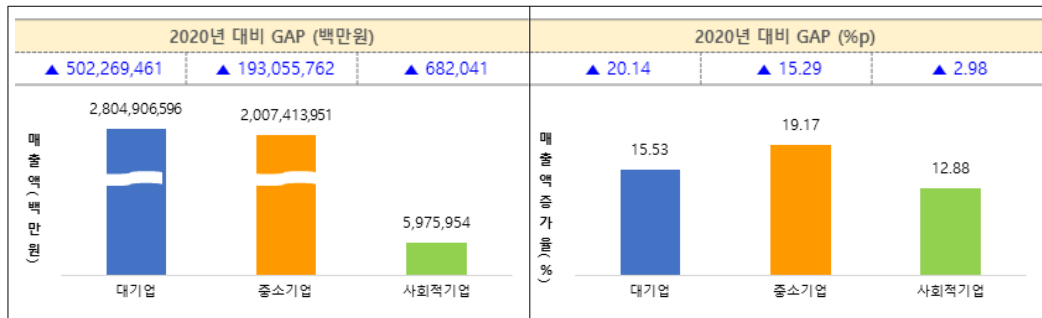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고용노동부(2021a).

2. 수입구조: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비교

2021년 비금융 비영리법인기업과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부1-4]와 같다. 2021년 매출액은 대기업이 2,804조 9,065억 원, 중소기업이 2,007조 4,139억 원, 사회적기업이 5조 9,759억 원으로 나타났고, 매출액 증가율은 대기업 15.53%, 중소기업 19.17%, 사회적기업 12.88%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 및 기업 수의 차이로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은 현저히 작은 수준이나, 2020년 대비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모두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1-4]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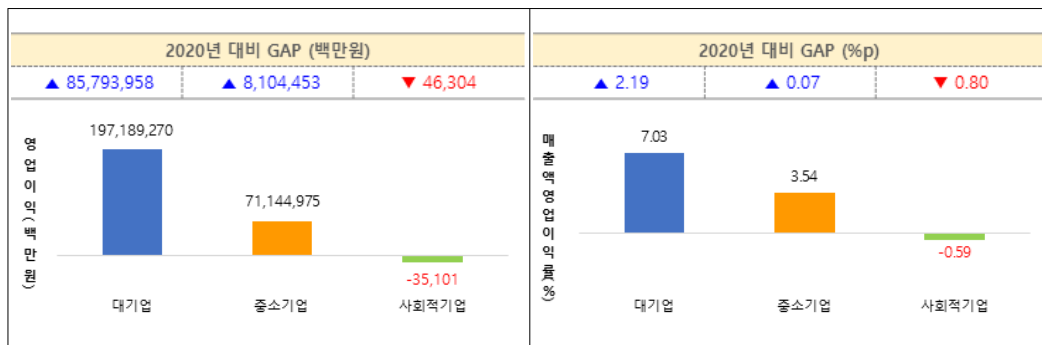


주: 비금융 비영리법인 기업(대기업 11,147개소, 중소기업 847,419개소)의 경영성과 자료임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한국은행(2021).

3. 수입구조: 영업이익 및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2021년 비금융 비영리법인기업과 영업이익 및 매출액영업이익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부1-5]와 같다. 2021년 영업이익은 대기업이 197조 1,892억 원, 중소기업이 71조 1,449억 원, 사회적기업이 -351억 원으로 나타났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대기업이 7.03%, 중소기업 3.54%, 사회적기업이 -0.59%로 나타났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계산하여 기업의 수익성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 타 기업 대비 사회적기업의 영업효율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1-5] 영업이익 및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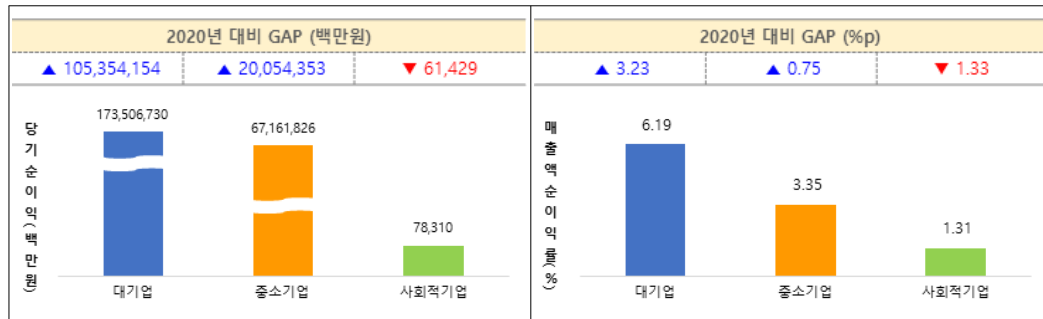


주: 비금융 비영리법인 기업(대기업 11,147개소, 중소기업 847,419개소)의 경영성과 자료임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한국은행(2021).

4. 수입구조: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순이익 비교

2021년 비금융 비영리법인기업과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순이익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부1-6]과 같다. 2021년 당기순이익은 대기업이 173조 5,067억 원, 중소기업이 67조 1,618억 원, 사회적기업이 783억 원으로 나타났고, 매출액순이익률은 대기업 6.19%, 중소기업 3.35%, 사회적기업 1.31%로 나타났다. 매출액순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률을 파악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 타기업 대비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순이익률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1-6]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순이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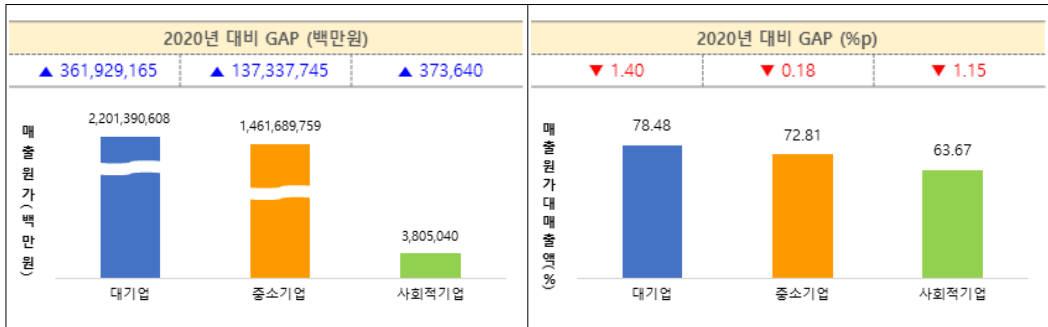


주: 비금융 비영리법인 기업(대기업 11,147개소, 중소기업 847,419개소)의 경영성과 자료임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한국은행(2021).

5. 비용구조: 매출원가 및 매출원가대매출액의 비교

2021년 비금융 비영리법인기업과 매출원가 및 매출원가대매출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부1-7]과 같다. 2021년 매출원가는 대기업이 2,201조 3,906억 원, 중소기업 1,461조 6,897억 원, 사회적기업이 3조 8,050억 원으로 나타났고, 매출원가 총액 대비 매출액 총액 비율은 대기업 78.48%, 중소기업이 72.81%, 사회적기업이 63.67%로 나타났다. 매출원가대매출액은 기업원가율 또는 마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타기업 대비 사회적기업의 기업원가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1-7] 매출원가 및 매출원가대매출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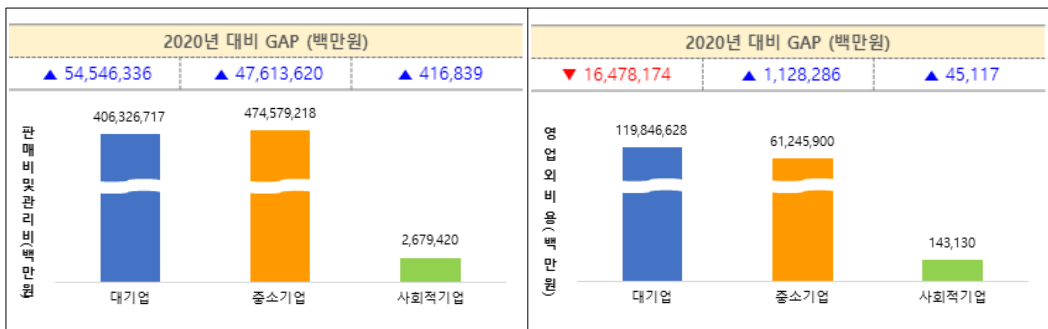


주: 비금융 비영리법인 기업(대기업 11,147개소, 중소기업 847,419개소)의 경영성과 자료임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한국은행(2021).

6. 비용구조: 판매비 및 관리비, 영업외비용 비교

2021년 비금융 비영리법인기업과 판매비 및 관리비, 영업외비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부1-8]과 같다. 2021년 판매비는 대기업이 406조 3,267억 원, 중소기업 474조 5,792억 원, 사회적기업이 2조 6,794억 원으로 나타났고, 영업외비용은 대기업이 119조 8,466억 원, 중소기업이 61조 2,459억 원, 사회적기업이 1,431억 원으로 나타나 대기업의 영업 외 비용 제외 대기업, 중소기업의 판매비 및 관리비, 영업외비용 총액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1-8] 판매비 및 관리비, 영업외비용 비교



주: 비금융 비영리법인 기업(대기업 11,147개소, 중소기업 847,419개소)의 경영성과 자료임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한국은행(2021).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21a), 2021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_____ (2021b), 행정구역(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1), 사회적기업 보조금 회계처리 안내.
- 길현종·이경희·이영수·김성용·안승재(2020), 2019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윤지성·이재호·한송연·송민주·전혜원(2021), 2020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보건복지부(2021a), 2021년 자활사업 안내.
_____ (2021b),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1a), 2021 한손에 잡히는 사회적 기업, 39.
_____ (2021b), 2021년 사회적 경제 관련 주요사업 안내자료, 138-141.
- 한국은행(2022a), 2021년 기업경영분석_책자형 통계편.
_____ (2022b), 2021년 기업경영분석_업종별 작성대상 업체수.
- 행정안전부(2021), 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likms.assembly.go.kr

www.coop.go.kr

www.kdissw.or.kr

www.mois.go.kr

www.socialenterprise.or.kr

www.seis.or.kr

sv.kibo.or.kr/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2021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발 행 인: 정현곤

발 행 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6~8층

대표전화: 031-697-7700

팩 스: 031-697-7853

홈페이지: <http://www.socialenterprise.or.kr>

인 쇄 처: 프린트엠(02-2264-1010)

ISSN: 2799-8061

<비매품>

※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전제 및 복제할 수 없으며 책자의 내용 및 활용에 관한 문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